

미 요한 계시록의 총 주제와 성경의 구조 파악하기

계1:1-3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1년에 걸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강해를 시작하려 한다. 1-22장을 자세하게 공부하여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 세상이 급변하며 종말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 바쁘게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UN, 세계 경제 포럼, 10-30년 계획을 짜고 지구/인간 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함

그리고는 이런 계획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 (*)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레이트 리셋은 곧 사람의 손으로 신세계질서, 유토피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유일하게 절대 진리를 말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인류의 마지막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일단 결론: 그레이트 리셋이 있다. 3번, 노아의 대홍수, 7년 환난기(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7년 환난기, 적그리스도, 짐승의 시대

앞으로 20-30년 동안에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재편되는 때가 있다. 절정기가 바로 7년 환난기

그런데 이 그레이트 리셋의 주인공은 UN이나 세계정부주의자들이나 이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1).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7년 환난기 이후에 평화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모든 것이 리셋된다. (*) 타임라인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

이유: 하나님의 인간 역사 경륜을 연구하여 평안을 얻으려고, 무슨 책이든 결론을 알면 기쁘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지구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난 6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아니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 >, 여러 책들 소개

라킨, 럭크맨, 위어스비, 모리스, 제임스 닉스, 가이슬러, 존 맥아다, 밥존스, 델러스, 남침례대학, 펜사콜라, 무디, 바이올라, 휘튼 등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개인과 신학교에서 성경 그대로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글, 설교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먼저 큰 그림을 보고 자세한 나무를 설명할 것이다. 그냥 마음을 열고 행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전하는 것들이 성경과 비교하여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취할 것을 취하기 바란다.

눅24장, 엠마오 마을 두 제자, 그 이후 11제자,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예수님의 평가(눅24:25), 설명(27), 이해력을 넓혀 주심(45)

1517년 마르틴 루터, 요한 갈빈, 오웬, 에드워즈, 요한 웨슬레 등 계시록에 관한 한 눈먼 소경들이다. 그들에게는 때가 열리지 않았다. 짐승의 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9:15) 등 어떻게 이해하는가?

비행기도 모르는데, 더욱이 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

다니엘서의 말씀(12:4),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의 증가, 교통 수단의 발달, 심지어 자동차 비행기, 드론 등, 지식의 집적, 4차 산업혁명, 초고속 인터넷, 인공 지능,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시대, 동성애의 창궐

이런 것들은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번에 코로나 19 백신, 방역 패스 사태,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UN에서는 UN 어젠다 2030을 세우고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한다.

특히 코로나 19를 통해 그레이트 리셋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평안하다. 그것이 이번 공부의 목적이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제임스 나스).

우리는 오늘부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예언에 관해 살펴보고 싶다. 계시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책이다. 왜,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의 종말을 다루고 있으므로. 소설책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성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책이다. 그것은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일 것이다. 신구약 성경은 BC 1500-AD95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이 세상의 왕국들과 통치자들은 왔다가 사라진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던 것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항상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읽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 기록된 부분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부분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특히 예언을 믿는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바른 접근이다.

1.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다(1). 하나님인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계19:10,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함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할 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구약 시대 대언자들, 천사들, 사도들, 지금의 목사들, 다 대언한다.

무엇을, 예수님의 증언(즉 말씀)을, 한 성령 안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 구원, 사악한 자들의 멸망, 계시록의 음녀 바빌론, 다 맞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증언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는 계시록에 관해 공부하면서 예언(대언) 따로, 예수님 따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예언(대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달려 있다. 유엔이나 세계경제포럼이나 미국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는 왕들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주제는 아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다. 유대인과 교회는 성경의 주요 수신인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였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완전해진다. 지구 전체는 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과 국가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사9:6)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해 다루고 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이것은 일시적인 일에 관한 설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 매일 죽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6)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진실과 달리 영원한 일에 관한 설명이다. 정권이 주님의 어깨에 놓이면 그 정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의 정권의 확장 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9:7)

성경은 미래에 관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과 영원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 일어나는 사건이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지 못한다. FAC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얼마나 타락하든, 느부갓네살이나 카이사르 같은 황제나 교황이나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건 성경의 이러한 예언을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러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언에 관해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온 세상에는 7년 환난기가 임할 것이고 큰 배교가 올 것이며 거짓 대언자들과 짐승과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이다.

FACT: 하지만 결국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확실하다. 이 세상은 멸망하여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지옥이나 불 호수나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것이다.

단2:37, 39, 40, 42를 보자.

우리는 이 시간에 형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결론만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의 왕국들과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44절)

우리는 결과를 모두 알고 관람하는 관객과 같다.

우리는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반대와 원수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만일 성경이 명확하게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예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확실성과 혼란 가운데 이 주제를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피하는가?”(시 2:1) 이것은 좋은 질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질문은 기록했지만 답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늘나라도 없고 용서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없다면 죄에 대한 심판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위로와 확신과 교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일뿐 아니라 자신의 혼을 자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2-3절)

인간이 연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내던지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4-12절,

3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의 의회와 정상회담과 유엔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교회를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후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7년 환난기를 보내시고 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 년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그레이트 리셋)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그레이트 리셋).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창조한 창조물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그때에는 이전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고(1)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다(2).

이것은 수정 구슬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 코란이나 몰몬경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라.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보기 위해 성경 전체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 쌓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야 한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예언에 관해 공부하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결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 지고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미군 요한 계시록, 휴거와 재림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탁과 경고의 말씀
약3:13-18

공지한 대로 주일 오전 요한계시록, 주일 오후 성경 문제, 금요일에는 그레이트 리셋, 메타버스, 세상 변화 등 설명, 이유: 세상이 급속히 성경이 예고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므로 목사로서 알리고 경고해야 한다. 13년 전 계시록 강해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기술, 교통, 통신, 문화
지난주, <요한 계시록의 총 주제와 성경의 구조 파악하기>, 계시록 1-22장을 자세하게 공부하여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심적/영적인 스트레스

핵심: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식과 지혜의 문제(약3:13)

저와 제 아내의 차이: 나는 지식 추구(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데 여러 일에서 실수한다), 내 아내는 지혜 추구(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관계, 믿음 문제 등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때로는 큰 갈등을 일으킨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목회 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 목회를 중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19 입원 이후, 내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설교의 방향 등도 다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내에게는 큰 불안 초래

좋지 못한 일을 하는 몇몇 목사 이름 언급 등, 혹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등의 불안 부산 한마음침례교회 김문수 형제 목사 임명 취소, 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영상 비공개 가처분 신청 내 아내에게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노년에 조용히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 수지 강OO 목사 사건 등 왜 말하느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내 생각: 나도 자제하기 원한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해 온 일이기

좋은 것, 부드러운 것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눅6:26).

그렇다고 말보회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하도 안하무인격으로 노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내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다. 나에 대해.

요즘 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때가 급한데 목사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사랑발림, 감성팔이 설교, 신사도(은사), 구원 상실, 환난 통과, 성경과 영감과 완전성 부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

그런데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 내가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므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심사숙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갈등은 나와 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에게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나만 다 안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들 폄하, 집과 직장 등에서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는가? 다시 강조한다: 나는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여 가정과 교회와 주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미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왔다. < >

앞으로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세상 징조를 보고, 개역성경의 문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등을 눈으로 볼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낄 것이다(나도 그랬다).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눅24: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성경 연구를 통해 분명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냉랭하게 될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지적하는 마음, 한 마디로 나만 옳다는 마음

말보회, 개역성경은 사탄성경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지식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

즉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오늘은 경고와 함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 한다.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 제임스 닉스의 야고보서 강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13),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 지혜와 지식 둘 다 필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이 지혜롭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인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사용한다.

나의 경험

지식은 사실을 정확히 하는 것, 지혜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지식: 성경의 구조, 계시록, 세상 징조, 성경 본문,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 중요하다.

미국에 가서 25살에 처음으로 클라렌스 라킨의 성경 바로 보기 책을 접함(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 책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전까지 감리교인,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성경의 구조, 조직신학, 계시록, 창조와 진화 등 잘 모름, 그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정도의 지식

그러다가 침례교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함, 라킨 기계공학도, 성경의 중요 주제들을 읽고 파악한 뒤 제도를 통해 그림으로 묘사함(전문 제도 기사), 공학적인 마인드에 딱 다가오는 책(논리적,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주제들 일목요연하게 설명함

위키백과(*) 1850-1924년, 라킨은 32살에 회심함, 성공회, 그 뒤 침례교가 맞다고 판단하여 침례성도, 침례교 목사

당시 미국, 근본주의, 전천년주의, 환난 전 휴거,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함

1918년에 Dispensational truth, 3년에 걸쳐 완성, 300쪽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킴, 재창조 부분을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함

가장 큰 특징: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함

다니엘서 세상 왕국(*)

예언의 산봉우리(*), 이런 차트를 총 200여 장 그리고 설명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음, 유대인들 전 세상으로 흩어져서 어려움 겪음

라킨의 주장: 유대인들이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므로 이런 주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함

반면에 근본주의자들 바이블 빌리버들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

결국 그가 죽은 뒤 24년이 지나서 1948년에 유대인들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무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의 책들을 통해 확고하게 성경을 믿는 믿음, 당시는 100% 킹제임스 성경, 그 책들도 당연히 KJB 1992년 귀국, 곧바로 그의 책을 냄, <다시 보는 성경>, 그 뒤 <성경 바로 보기>

모두 컬러 차트로 바꿈, 스티디 성경, 에스라 성경 사전 지도
그 뒤 러크맨, 위어스비, 맥아더, 파이퍼, 제임스 닉스, 웨이트, 로이드 존스 등 세계적인 목사, 성경 학자들 책 참고, 성경 번역, 유명하다는 주석들 읽음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기에 내 처는 늘 걱정하고 있다.
나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오늘 14-18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14-16)

본문에 의하면 자기 지식을 세상적이고 관능적이며 마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잘 아는 대로 킹제임스성경 진영은 지식은 넘쳐나지만 실행은 빈약하다. 오늘날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인생을 보면 열매가 빈약하고 초라한 경우가 허다하다. 안타깝게도 킹제임스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14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지만 지식이 시기와 다툼과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로 지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 분열과 다툼을 포함한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동기로 일했다.

진정한 사역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다. 세상이나 마귀나 인간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역이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 낸다. 성경 말씀은 단순하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우리의 사역(일)의 결과는 다툼과 논쟁과 분열일 것이다.

마귀의 지혜(15)

야고보서 3장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서로 대응하는 7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15-16절)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에 관해 말씀한다. 세상(마귀)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

- (1) 땅에 속했다. 이것은 세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자기 자랑
- (2) 관능적이다. 이것은 느낌을 따라 산다는 말이다. 자기 기쁨
- (3) 마귀적이다. 마귀를 기쁘게 한다. 교만하다.
- (4) 시기를 일으킨다.
- (5) 다툼을 일으킨다.

- (6) 혼란을 일으킨다.
- (7) 그 결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자신의 방법대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17-18)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공홀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17)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순수하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 정반대를 이룬다. 순수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화평을 이루어낸다.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하되 끝이 결과가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부드럽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과 대응하는 특징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 선한 것을 파괴하는 자이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부드럽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본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며 아내를 사랑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부드럽다고 말한다.
- (4) 간청을 잘 들어준다.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잘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기를 일으키는 것과 대응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외적 증거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이 가장 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청을 잘 들어주고 도와준다.
- (5)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킹제임스성경 진영은 역사상 그 어떤 진영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는 그룹이다.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난다. 바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면 다툼이 아닌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 (6) 차별이 없다. 이것과 대응하는 세상의 지혜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혼란이 사라질 것이다.
- (7) 위선이 없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위선을 행한 것이며 그 결과는 선이 아닌 악이다.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그 결과는 모든 악한 일로 드러날 것이다.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한다. 계시록, 재림과 휴거

그리고 지혜롭게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옳은 것을 알리는 일, 악한 것을 꾸짖는 일도 필요하면 하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계시록 공부 등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㉓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계1:1-3

우리는 배움을 위해 책을 읽는다. 책 속에 길(지혜)이 있다. 유익이 있다.

올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 한다. 그러면 계시록 공부에도 유익이 있고 길이 있다.

오늘 < >, 어떤 책, 연구의 가치,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 요한 계시록 요약(킹제임스 흠정역 계시록 소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예언

수신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었다 (1-2).

주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요5:22, 27)

목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종착지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상태를 보여 주는 것, Eschatology

내용: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미지근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 이 책은 또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 주며 특히 창세기와 함께 완벽하게 진리의 사이클을 구성한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면서(1:19) 그리스도의 환상(1장), 교회의 심판(2-3장),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난기(4-19장), 천년 왕국(20:1-6),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20:7-15),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21-22장)을 차례대로 기록한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다. (*) 차트 설명

핵심 장: 19장(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1:19)

핵심 단어: 이기다(2:7, 11, 17, 26; 3:5, 12, 21),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요일5:5)

핵심 문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7),

B. 계시록 연구의 가치

1.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이 임한다(계1:3; 22:7).
2.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끝을 알므로 행복하고 평안하다.
3.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다(재림의 상세 사항, 19-22장).
4.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앞으로 진리의 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다음 시간 자세히
5.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 39권 중 26권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C.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1. 성경의 66권 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책이다. 심지어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 안식교, 신천지 등, "어렵다, 이단이 되거나 이단에 빠진다."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가장 평이한 책 중 하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
2. 종말 완성: 사탄, 교회, 유대인, 이방인, 민족들, 바빌론(천주교 체제), 땅과 우주의 종말, Eschatology
3. 계시록은 기록된 때부터 시종일관 신학적 싸움의 근원이 되었다: 전천년설(주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
4. 계시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20:1-6에서 나온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시적인 왕국을 세운다는 것에 반대함, 평화의 왕국 즉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다. 천년왕국, 6번이나 나온다.

세계정부주의자들, 빌 게이트 등 후천년설(*)

D.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책이다.

(*)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세상 Christendom: 카톨릭(행위 구원, 마리아 숭배, 연옥, 제사장 등 비성경적인 교리들, 행위 구원 혹은 믿음 + 행위 구원), 프로테스탄트, 침례교(침례, 세례, 칼빈주의, 알미니안 주의. 다양하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2:8-10).

Christianity: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프로테스탄트와 침례교(Bible believer)의 가장 큰 차이

핵심: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루터, 칼빈, 에드워즈, 웨슬리 등)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교회가 차지한다(복을 받는다. 평안하다. 보호를 받는다 등).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런 약속들 가운데 물리적인 것들,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짐 등은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사야서 9, 11, 눅1:31-33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함

실제 왕국은 없고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이 이론은 보통 무천년설(주의)이라고 말한다. (*) 창시자는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천주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천년설, 실제 이스라엘 부인

그러나 침례교회의 다수의 바비블 빌리버들: 아니다.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결국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개의 신학 사조가 프로테스탄트, 침례교를 지배하고 있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로교 감리교 중심, 당연히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칼빈주의, 언약 신학

미국: 당연히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다수, 이렇게 믿는 신학을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의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의 신학교들, 다 이런 입장 교수, 델러스, 밥존스, 남침례, 무디, 바이블라, 리버티 펜사콜라 등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다룬다.

한국,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펜사콜라, 무천년주의 칼빈주의를 학교로 들여오면 안 된다는 규정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왜, 1948년 5월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환난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 이후 약 1600년 동안 이어진 무천년주의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들의 주장: 휴거 없다. 천년왕국 없다.

이 가운데 휴거가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있다(역사적 천천년주의자들). 다만 7년 환난기를 목숨을 내걸고 통과해야 한다. 환난 통과설,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마24:13).

E. 네 가지 해석 방법

1. 과거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AD 96년 전에 다 일어난 것들이다.

카톨릭, 대다수 장로교, 그래서 기록 연대와 저자를 달리 보려 한다.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 기록 연대도 AD 70년 이전의 네로의 박해 시대

그래서 계시록 6-19장의 모든 심판은 이미 다 끝났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다.

재림은 곧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쯤 되면 계시록을 수백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읽으려고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개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러니 계시록을 가르쳐주겠다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등장한다.

2. 역사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즉 계시록의 환상들을 저작 당시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르는 전 역사의 축소(縮圖)로 보는 해석법이다. 주장 근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시까지의 연대순서대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사건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도 문제없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6장의 사건들은 계시록에서 4분의 3의 위치에 있으니 그 시기를 1517년 종교개혁시대로 잡는다면 세상의 종말은 1987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법은 계시록을 마치 계산자(slide rule)나 인류역사의 시간표처럼 취급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와 결부시키므로 이 점을 배격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stchopeter/222319440287>

다섯째 봉인: 순교자들, AD 300년경의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핍박

다섯째 나팔: 메뚜기 심판, 마호메트 군대의 침략 등, 프로테스탄트 일부

3. 영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므로 다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무천년주의). 천주교, 프로테스탄트 일부
4. 미래적 해석 방법: 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한 해석 방법이다, 11장의 환난기 성전, 13장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17-18장의 바빌론 몰락,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F. 연구에서 주의할 점

1.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2. 사건의 배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늘에서 일어나는지, 땅에서 일어나는지
예: 4-5장은 하늘에서, 6장은 땅에서
3. 이 책의 사건 중 4-19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기간이 여러 번 반복된다.

G. 결론

1-3절을 읽어 보자. 예수님의 계시(1), 예수님의 증언(2, 5절 참조),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그래서 3절

휴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기다리면 벤후3:12-14대로 해야 한다.

마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묵시)라는 말의 의미

계1:1-3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관점, 해석의 방법에 따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읽고 계시록의 경우 과거주의 해석을 하지 않고 미래주의 해석을 한다. 즉 계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라는 말의 의미>, 창세기와의 대비, 가장 중요한 구절, 전체 개요, 계시와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 설명

창세기와의 대비

성경 66권, 39권, 27권, 첫 책 창세기, 마지막 책 계시록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의 관점: 세상 창조 전 마귀의 타락,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 줄 필요

그 일을 위해 우주와 인간을 만들, 마귀의 개입, 인류 역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 하나님 대적함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높, 결국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불 호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 6일+1일, 약 7일 동안, 하나의 점도 못됨

인간의 관점: 마귀에 의해 타락함, 죄와 사망, 영원히 사는 것,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 성경은 마귀가 망친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계시록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잘 보여 주고 있다(창3:15).

	창세기	계시록
1. 낙원	잃어버림(에덴동산)	회복함(천년왕국)
2. 생명나무	접근 금지(3:22-24)	먹음(22:2)
3. 인간의 반역	시작(3-4장)	종결
4. 살인 등의 죄악	시작	종결(21:27)
5. 죽음(사망)	시작(4:8)	종결(21:4)
6. 저주	시작(3:15-18)	종결(22:3)
7. 마귀	인간의 유혹자(3:1-18)	최후를 맞음(20:10)
8. 바빌론(바벨)	시작(11)	최후 멸망(17-18)
9. 하나님의 말씀	변개(3:1-5)	변개의 저주(22:19)

그리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일은 영원 무궁히 지속된다.

성경의 중간 책, 이사야서, 66장, 38장, 27장

시작 하늘들, 끝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중요한 구절

계시록 1장 19절 (*), (*), (*)

계시록의 전체 개요

I. 서론(1:1-8)

II. 네가 본 것들(1:9-20)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 내용

III. 지금 있는 것들(2:1-3:22)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IV. 이후에 있을 것들(4:1-22:5)

A. 환난기(4:1-19:21), 4-19장

1. 하늘의 왕좌(4장)
2. 하늘의 책과 그것의 일곱 봉인들(5장)
3. 일곱 봉인 심판(6:1-17)
4. 환난기에서 구속받은 자들(7:1-17)
144,000명의 유대인(7:1-8), 수많은 이방인(7:9-17)
5. 일곱 나팔 심판(8:1-9:21)
6.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작은 책(10:1-11)
7. 두 증인(11:1-19), 환난기 성전
8. 하늘에서의 전쟁(12:1-17), 미가엘과 용
9.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거짓 대언자(13:1-18)
10.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줌
144,000명에 대하여
영존하는 복음에 대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땅의 수확에 대하여
11. 일곱 금병 심판(15-16장)
12. 종교적 바빌론의 심판(17장)
13. 상업적 바빌론의 심판(18장)
15.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19장)

B. 천년왕국(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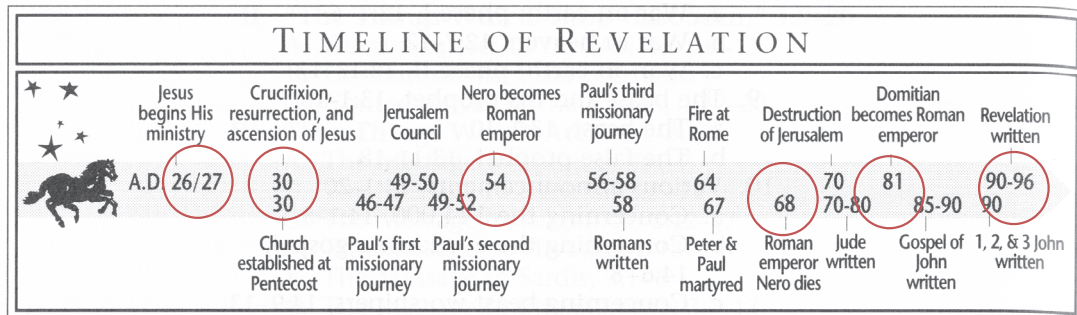
C.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21:1-22:5)

V. 결론(22:6-21)

계시록과 초대 교회 시대 타임라인

과거주의자들, 계시록은 AD 70년 전 기록됨, AD 70년 예루살렘 파멸이 재림이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다 등 주장, 이스라엘 대체 신학, 영해

(*) 초대 교회 타임 라인



기록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이었다.

위키 백과 AD6-100년, 그는 요한복음과 계시록 그리고 세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으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다(막1:20; 15:40; 요

18:15; 19:27). 그는 유순해 보이지만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분과 함께하였다(요19:35).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갔으며 그분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4:13). 그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야망도 있었으므로 그분의 오른쪽에 앉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다(마20:20-24). 마지막 만찬에서 그는 주님 옆에 누웠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셨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겐세마네에서의 고통을 보았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곳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갈 2:9). 주후 65년경에 그는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후 95년경에 그는 밧모 섬으로 유배되어 갔고 거기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 뒤 에베소로 돌아와 아주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하였다(요한복음). 요한 1,2,3서

계시와 예언

계1:1 계시, (*) Apokalypsis(아포칼립시스): 신비를 밝혀내다(눅2:32; 갈1:12; 살후1:7), '휘장을 찢히다', 스트롱 번호 602(신약성경에 18회)

목적: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자신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 주는 일.

'목적'을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을 지닌 명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춰진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은 '계시'(啓示)와 같을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계시'란 말이 넓은 의미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목적'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상 끝 날의 일, 곧 종말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목적은 계시의 일부로서 대개 세상 종말, 특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일종의 문학적 술어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1:). (*)

..관한 계시: 요한이 주체, ..의 계시: 예수님이 주체

계시록(1:1)

예수님께서 친히 승인하신 유일한 책(계22:16)

계시록은 예언의 책: 이 대언(prophecy)의 말씀들(1:3; 22:7, 10, 18, 19), 대언 중 예언 대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대언자가 기록한 것, 대언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이사야서 이후 말라기까지의 대언서들에는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22장 중 첫 3장도 예언이 아니라 대언임

특히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예언 특히 후대의 대언자들인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담은 책이다(1:1).

마지막 대언(예언)의 책, 더 이상 예언은 없다(계22:18-19).

자신의 천사를 통해(1): 계22:8-9

천사(*): 임무를 수행하는 자. 스트롱 번호 32, 앙겔로스, 영어 angel은 음역, 주로 angel, messenger

이것은 히브리말이나 그리스말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 즉 임무 수행자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이 말은 종종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눅1:14; 삼상 11:3; 눅9:52), 대언자에게(사42:19; 학1:13), 제사장에게(전5:6; 말2:7)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게도 적용되었다(시78:49; 104:4; 고후12:7).

그리스어 사전 용례 (*)

(*) 한편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3:1)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즉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나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결론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 주신다. 계시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 주는 계시

계시록의 증인,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내 책이다.

주신 목적(1:3):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환난 전 휴거, 들떠서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정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22:20-21

5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계1:1-3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라는 말의 의미>, 창세기와 계시록의 대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1:19), 전체 개요, 계시와 예언, 천사라는 말의 의미 설명, 기초를 모두 놓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해

오늘 <5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1-6절 강해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소유자, 발원자, 2절에 있듯이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 증언함 계시를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다(signified) sign, 스톱 싸인, 접근금지 싸인

즉 표적들 혹은 상징들을 사용하여 계시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 주다.

계시록은 성경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책

상징들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풀면 이단적인 해석이 나오기 쉽다.

상징들을 사용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 계시록의 구조,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목사가 몇 주에 걸쳐서 기초를 놓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이다. 엡4:12, 성도들의 완전을 위해

성도들은 행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해야 한다.

성경으로 풀려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책과 비교해서 풀어야 한다.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 다니엘서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상징들이 나온다.

계13:1, 17:3의 짐승 열 뿔, 단7:8의 넷째 짐승 열 뿔

계12:14,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반 이레, 1260일, 42달, 단7:25, 12:7

그래서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렵다(어쩌면 불가능).

다니엘의 예언은 끝이 오는 때까지 봉인됨(단12:4, 9), 봉인된 책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된 책(단12:1)

다니엘서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

또한 그 안의 뜻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마24:15).

즉 단2, 7-11장의 유대인 관련 계시들은 마지막 때에 풀린다.

계시록은 유대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 계시록 연구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상징들, 등잔대, 성막, 언약 궤, 나팔과 재앙들, 7장의 144,000명의 유대인들

이유: 마23:37-39, 재림 전에 유대인들을 다루는 때가 있어야 한다.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이레 7년 환난기, 렘30:7의 야곱의 고난의 때, 단12:1(마24:21)

반면에 계시록은 봉인되지 않음(계22:10). 즉 유대인들의 7년 환난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대언이므로 교회,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고전10:32)에 대한 모든 결론을 줄 것이다. 초반부: 교회, 중반부 이후: 이스라엘과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

마24장 1-3절, 예수님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24장 유대인들, 마25장 예수님 재림, 양과 염소의 심판 이방인들 심판

이를 통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계21장, 1000년 왕국 이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묘사에서도 이 세 부류가 등장한다.

열두 사도로 나타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 안에(21:14), 열두 지파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열두 문 안에(21:12), 구원받은 민족들은 그것의 거리들에 나타난다(21:24).

2절

계1:2 요한은 기록자이다(1:1; 22:8)

사도 요한의 다른 책들과는 문체가 매우 다르다. 환상 계시를 보는 대로 기술함.

영어에는 vision이라는 말이 있다. (단수 79, 복수 24, 총 104회),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보여주는 계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증언,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말, 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신실한 증인으로 증언해 주신 것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계19:10)

1.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준다, 2. 미래를 알려준다(사41:23-26).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대언(예언)이 있기 때문이다(벧후1:20-21).

3절

계1:3 이 대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다 깨닫지 못해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read+hear+keep

많이 읽어야 한다, 올바른 강해를 들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바르게 기록하게 살아야 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에는 마귀의 꾀망이 있으므로 마귀는 사람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한다.

또 창세기를 읽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1-11장, 창3:15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시간표(히1:1-2), 2000년, 이틀, 예수님 초림 이후는 마지막 때이다.

결론

왜 계시록을 공부하는가?

계1: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깨닫지 못해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read+hear+keep

많이 읽어야 한다, 올바른 강해를 들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밝히 앞으로써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이겨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마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계1:4-8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오늘 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 < >,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 하러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재림의 두 단계 등

3절: 때가 가깝다. 때 크로노스(시계의 시간)와 카이로스(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철)

롬13: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4절

여기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한다. 소아시아에서도 서쪽 끝부분, 지금의 터키 지도(*)

7교회 명단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

당시 그 지역에는 7교회만 있지 않았다.

골로새(골1:2), 히에라폴리스(골4:13), 드로아(행20:6-7)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들은 그 당시 지역 교회들이고 동시에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어떻게 아는가?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

일곱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등잔대, 일곱 재앙 등 54회).

일곱은 완전한 수: 대표적인 지역 교회 7개를 택하여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 준다.

우리 교회도 이 일곱 교회 중 하나에 가깝다. 2-3장을 공부하면서 비교해 볼 것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여호와, 출3:14) 일곱 영(사11:1-2), 어려운 구절, 매튜 헨리, 성령님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다. 일곱은 완전한 수, 완전하신 성령님 표현, 그분의 일곱 가지 특성 혹은 사역, 계3:1; 4:5; 5:6의 일곱 영도 역시 완전함을 강조함

5절

예수님 자신이 신실한 증인이시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골1:18; 행13:32-33; 롬1:4). 죽었다가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약 성경 여러 사람들 부활,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사람 살림

여기는 firstborn이 아니라 first begotten, 그리스어는 같은 말, 거의 같은 말

이런 독특한 단어: 성경의 용례를 잘 보아야 한다.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firstborn, 총 117회(구약110, 신약 7), 대개는 장자, 큰 아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자 그런데 다른 용례가 있다. 이 경우 시간 순을 말하지 않고 월등함을 말한다.

1. 주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출4:22).

2.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렘31:19)

3.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시89:27)

나의 처음 난 자: 하나님이 장자로 삼은 월등한 분, 이 경우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골1:15)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 등

이 경우는 16절이 처음 난 자의 의미를 말해 준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이 될 수 없다. 창조물 중에서 처음 창조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아리우스파의 주장과 같게 된다.

처음 나게 하신 분, firstborn, bear 낳는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혹은 장자는 집안을 다스린다.

소유한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분, 소유하는 분,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 뛰어나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진짜 왕국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과거: 죽임 당한 대언자(특히 공생애 기간), 현재: 제사장, 미래: 왕(물리적)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다(영적인 왕), 여기서는 물리적인 실제 왕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구분해야 한다(딤후2:15).

천년왕국의 통치자

계시록의 왕국은 문자적, 가시적,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

첫째 아담이 망쳐 놓은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눅1:30-33; 마25:31-46).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마19:27-29). 28절 주목

계시록 19장의 올리브산 재림 이후에 실제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은혜와 화평, 그리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침례의 물이 아니라 피로 씻으셨다(벧전1:18-19). 행20:28

(사1:18),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4-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함, 아버지(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아들

6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심

우리는 지금 왕가의 제사장은 지금(벧전2:9), 왕은 나중에(계5:9-10)

이것은 나중에 21-2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임

7절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그분을 찌른 자(슌12:10)

올리브 산으로(슌14:4)

이것은 휴거를 가리키지 않는다(고전15:50-53). 구름과 함께 오신다(행1:9). 성경에서 구름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구름 기둥, 시내 산의 구름 등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 슌9:1; 마24:30; 26:6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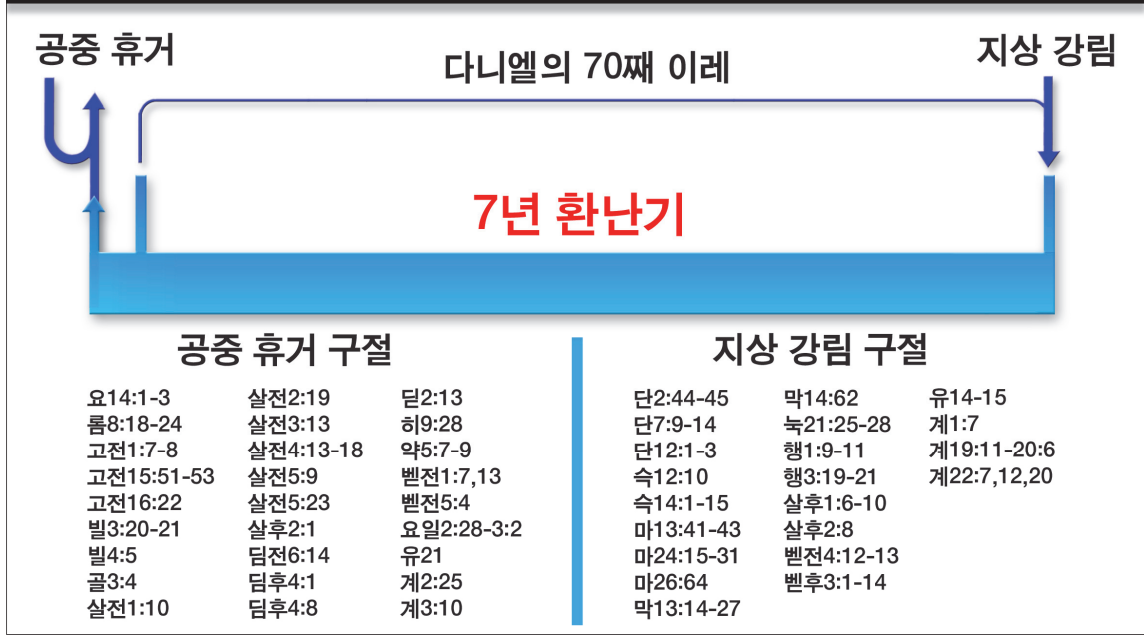
지파들이 통곡한다. 회개 혹은 공포의 눈물, 유대인들의 후회와 회심(슌12:9-14)

공중 강림(휴거)과 지상 강림은 완전히 다르다.

초림 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그런데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림과 재림의 상황: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33년 반, 7년 (*) (*)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성경 구절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비교

	공중 휴거/옮겨짐	지상 강림/왕국 확립
1	모든 성도들이 채여 올라감	채여 올라가는 일이 없음
2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감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옴
3	땅이 심판받지 않음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됨
4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함	예언된 표적들, 환난기 이후에 발생함
5	구약에는 없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음
6	성도들에게만 해당됨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줌
7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남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냄
8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탄이 결박됨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
11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봄
12	환난기가 시작됨	천년왕국이 시작됨

8절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24글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하나님의 전지하심

알파와 오메가는 글자, 말씀(요1:1)

시작과 끝마침,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엘 샤다이(El Shaddai): ‘똥어 주시는 이’, 48회, 구약의 모든 사례에서 이 단어는 ‘전능자’(Almighty)로 번역됨. 또 이 단어는 율기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29회). 창17:1(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갈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결론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 공생애, 사복음서, 대언자,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에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7년 환난기, 우리는 복된 소망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린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롬13: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ㄹ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계1:9-20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5), 땅의 왕들의 통치자 1000년 동안,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5절 firstborn, firstbegotten)

firstborn, 처음 나신 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시간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의미는 메시아(나의 처음 난 자),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신 분, 다스리시는 분, 소유자,

여기의 firstbegotten, 지기 힘으로 부활하신 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7절, 재림의 기간, 7년(*), 공중 강림 휴거, 7년 환난기, 지상 강림,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야 한다.

오늘, < >, 재림 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신다. 두려운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도 요한의 체험, 우리의 체험, 9-20절 강해

9절

요한은 열두 사도 중 하나, 유일하게 남은 사도, 마리아를 돌봄, 그런데 자기를 형제라고 소개한다(*).

히2:11-12, 형제 자매

환난과 예수님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다.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 큰 근심과 재난. tribulation, 타작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경에는 총22회(구약 3, 신약 19)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1.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행14:22)

2. 세상 끝에 창세 이후로 한 번 없었던 환난(계3:10의 시험의 시간, 마24:21, 29),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단12:1); 이런 환난은 말세에 이 땅에 닥칠 큰 환난, 단 한 번

계1:9 요한의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이것은 7년 환난이 아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의 감독(목사)이었으며 거기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밧모 섬으로 유배됨(*). 그림들 Revelation Illustrated.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생김, 인내가 필요하다.

10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

주의 날(Lord's day): 일요일(Sunday) 혹은 주의 날(day of the Lord)

신구약 성경의 주의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환난기+천년왕국+새 하늘과 새 땅)

심판과 권능과 권위가 모든 창조물에게 뚜렷이 보임, 불신자들에게도

구약성경 대언서들의 핵심 주제

주의 날 개념: 암5:16-20; 출2:1-2; 슥1:14-18; 사2:12-18; 말4:5; 행2:20 등

성경에서 일요일은 항상 주의 첫 날이라 불렸다.

일요일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요한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으므로 주의 날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보인다.

즉 그는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 즉 주의 날로 옮겨져서 모든 것을 보았다. 17절에서 추가 설명

11절

계1:11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계시록, 첫 번째 명령

일곱 교회에 보내라. 개역성경, NIV 등 현대 역본들은 '아시아에 있는' 제거 (*) (*)

일곱 교회: 실제의 일곱 개 지역 교회, 교회 시대의 일곱 종류의 교회 형태, 교회(성도)의 일곱 가지 속성, 교회사회의 일곱 교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3:10)가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으므로 잘 안 맞는다.

12절

일곱 금 등잔대와 예수님(12-13) (*) (*)

일곱 금 등잔대=일곱 교회(1장 20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교회는 등불이 아니라 등잔대이다. 그리고 개역성경처럼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이다.

candlestick 아마도 휴대용 기름 등잔대, 아니면 유대인들의 등잔대

13절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의 아들(딤후2:5), 66년 만에 다시 봄

그리스도는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 계심, 즉 교회들 안에 계심, 교회의 소유자(마16:18)

교회는 그분의 몸,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마28:20), 세상의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땅에 있을 때 사람의 아들로 대언자,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제사장, 재림할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왕, 지금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심(히2:17-18) (*)

14-16절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영광

1. 머리와 머리털(14): 알털같이 희다(단7:9)

2. 눈(14): 불꽃 같다, 전지한 눈(히4:12)

3. 발(15): 정제된 놋 같다. 심판 의미, 나중에 발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계19:15).

4. 음성(15): 심판하는 음성(마25:41)

5. 오른손(16): 손에 일곱 별을 자기고 계신다. 20절은 별이 천사임을 보여 줌, 여기의 천사는 angelic being이 아니라 사자(messenger)를 뜻한다. 회당의 천사, 목사(감독)의 권위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잠시 후 20절에서 설명

6. 입(16),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성령의 검(엡6:17; 히4:12), 여기서 사람의 아들의 검, 심판의 검(계19:11-15)

7. 용모(16), 변화산의 주님(마17:2; 계21:23; 말4:2)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

17절

요한이 위엄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짐(66년의 차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변화산 체험(마17, 요21)

마16:28, 17:1-8, 모세(율법)야 엘리야(대언자)가 존중하는 분

요21,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 그에 대한 핍박(18-19)

베드로의 질문(21), 예수님의 대답(23), 핵심: 내가 올 때까지는 그는 죽지 않는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요한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100년경에 죽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왔는가?

예수님은 계시록의 재림의 환상 계시를 통해 이미 요한에게 오셨다.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셨다.

18절

나는 살아 있는 자다.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5)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 지옥과 사망은 짝으로 같이 다닌다. 성경에 총 13구절

사망은 상태, 지옥은 장소, 열쇠는 권세

넷째 봉인, 창백한 말(6:8)

계20:13, 14

우리는 문제가 없다(히2:14-15). ★★★ 적용

19절

계시록은 세 단원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원 구분이 되어 있다. (*)

1. 과거(계1:10-20)

2. 현재(계2:1-3:22)

3. 미래(계4-22장)

20절

천사: 설명한 대로 원래 의미 임무 수행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1:14).

대개는 말을 전하는 사자(메신저), 영어의 angel, 앙젤로스

여기의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당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 편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렀고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신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은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계2:3).

별은 천사들(목사들), 별은 마귀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계12:4).

내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된다. 구약에서는 감추어졌으나 신약에는 드러나는 비밀
일곱 별과 일곱 교회의 신비, 이것들의 해석은 2-3장
이제 2장부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다.

결론

초림 때의 예수님과 재림 때의 예수님은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초림: 베들레헴 마구간,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모습

재림: 요한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 세상과 불신자들의 심판자로 오신다.

중요한 점: 예수님의 신부는 환난기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

즉 우리는 환난기 바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구원, 비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듣고 읽고 지키면 깨닫게 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 역시 영감을 받은 책(딤후3:16-17)

계시록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밝히 앞으로써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이겨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마침 요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버리고 멸망한 교회

계2:1-7

지난 7시간, 요한 계시록의 기초, 배경 설명,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영광의 왕, 주님의 계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에베소(*) 2-3장,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아는 사실, 책망할 것, 회개할 것,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 준다.

주님의 모습, 교회의 현실, 합당한 처방

오늘, < >, 우리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배경

에베소는 BC 197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그 지역의 수도, BC 129년경 로마에 편입됨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에베소 이름의 뜻: 흠모할 만한 인구 25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아테네 (*) (*), 위키 백과, 히스토리 채널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다이애나 여신: 땅의 풍요, 다산의 여신, 신전 제사장, 매춘, 부도덕의 최고봉

다이애나 여신 신전(*), 72m*129m,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 당시 인류 최고의 신전(*)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였다. 자유 도시란 로마에게 충성하는 도시에게 붙여진 칭호였으며 따라서 그 경계 내에서는 자치가 인정되었고 군대도 상시 주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은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제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의 두란노 학교에서 직접 2년 이상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장 참조).

처음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에 넘친 교회였다(행20:19).

계2-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딤후 1:1)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 주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얼마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났다(행 18:18-21).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거기를 들러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교회 시작, 거기서 약 3년 동안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20:31) 그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며 그 온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수고 때문이었다.

사도 요한 인생 후반부 수십 년 간 에베소 거주, 열심히 선포하다가 유배됨, 요한 1,2,3서 에베소에서 기록함

왜 장황하게 소개하였는가? 전통, 지식, 교리 등에서 으뜸가는 교회라 해도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주 예수님(2:1)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천사는 인간 목회자, 별처럼 빛나는 안내자, 메신저, 회개하라(2:5)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1절)
 계1:20은 금 등잔대가 교회라고 말하므로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요, 기초요,
 중심이요, 머리되는 분이다(마16:18).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2-3)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2:4)라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 에베소 교회는 첫 세대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잃고 있었으나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결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

1.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

예수님은 먼저 2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이 ‘행위’는 곧 ‘믿음의 행위’(살전1:3; 엡2:8-10)이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약2:26) 엡2:8-10,

2. 서로 섬기는 교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네 수고(labour)를 안다”고 하셨다. 수고에는 이미 섬김과 봉사가 들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막10:45).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3.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주님은 “내가 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모든 교회는 핍박의 대상, 황제 숭배 반대 에베소 교회는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졌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4. 성별된 교회

예수님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초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세속 문화와 그것을 가져오는 자를 거부했다는 점이다(롬16:17 참조). 엡5:10-13

5. 순수한 교회

주님은 또한 “네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하며(행1장) 고후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표적들을 보여야 한다. 즉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낫는 표적을 말한다(행19:12).

바울의 경고(행20:29-31)

초대교회에는 사도적 계승권(Apostolic succession)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교부라 하는 자들

카톨릭(베드로로부터), 오순절 주의(은사의 표적), 현시대 신사도 운동 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도들을 인지하고 그들이 교회에 받을 붙이지 못하게 한 순수한 교회였다. 고전11:13-15

6. 낙심하지 않는 교회(3절)

예수님은 3절에서 “네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방해가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한다(갈 6:9). 꾸준히 밀고나간다. 신실하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책망(4)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졌다. 둘째,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식어졌다.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 특징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의 ‘처음’, 그리스어 프로토스, 가장 좋은 것, 즉 최상의 사랑을 잃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고후11:1-3), 정결한 처녀, 이것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말로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특히 재림의 때, 고전16:22를 기억해야 한다.

권면(5)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해야 한다. KJB, 신약 교회, 영혼의 자유 처음 기쁨
이를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 뜻을 돌이키는 것,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칭 구원과 등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회개 기도 불필요
이것은 큰 거짓말이다.

여기 에베소 교회 등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성경의 회개: 구원의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행11:18), 단회적 회개

요13:8-10, 목욕, 발을 씻는 것

여기의 회개는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르게 정돈하라는 말이다.

처음 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최상의 행위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를 옮긴다.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함(AD 431년).

6-7세기 지진, 아랍 세력의 점령, 완전히 빛을 잃고 폐허가 되고 말았다.

칭찬(6)

참과 거짓을 정확히 판별해 낸 교회: 바울의 경고(행20:29-30)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니콜라당이라는 무리가 거짓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니콜라당은 ‘정복한다’는

의미의 ‘니코’와 ‘일반 성도들’을 뜻하는 ‘라오스’가 결합된 말로 ‘일반 성도들을 억누르는 자들’이란
뜻이다. 주교, 감독, 추기경, 교황 등이 나옴. 성직자 계급 체계(벧전5:1-4)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거짓 교리를 판별하고 그것을 미워했다.

보상(7)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롬8:9)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듣는다. 영적인 귀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의미: 에베소 교회의 문제, 처방 등은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이기는 자(overcomer, 요일4:4; 5:4), 결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

거짓 교리를 물리쳐 이기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다.

구약 시대의 낙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후12).

생명나무(창2:9), 에덴동산, 접근이 금지됨, 계시록에서는 접근이 허용됨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의미, 이것을 먹어서 생명 연장 아니다. 계22장의 생명나무 잎사귀들, 민족들 치유

교회 시대 성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의미

교훈

교리가 충만하고 섬김 사역이 풍성하다고 바른 교회는 아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끝이다(잠4:23).

호14:1-4의 교훈을 받자.

며 요한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핍박을 받으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계2:8-11

계시록 강해, 이미 8번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주, 에베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 회개하라. 결국 멸망
오늘 서머나(*)

2-3장,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일곱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아는 사실, 책망할 것, 회개할 것,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 준다.

주님의 모습, 교회의 현실, 합당한 처방

오늘, < >, 믿음,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

배경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 70km에 위치한 항구 도시,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작가
호메루스의 출생지

주전 300년 경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세웠다. 이곳은 부요함 때문에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등의 칭찬을 받았다. 에베소 다음 가는 도시

서머나는 처음부터 로마에게 충성을 바쳤고 이러한 충성의 결과로 한때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 황제
승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자유 도시가 되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거하면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 (*), (*), (*)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 한가운데서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이다.

이 도시의 이름은 영어로 'Smyrna'인데 이것은 'myrrh' 즉 몰약을 뜻한다.

동방의 지혜자들의 선물 중 하나 몰약(마2:11, 4666), 예수님의 죽음, 니고데모의 몰약(요19:39)
서머나(4668) 동일한 어근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물품으로 사망과 고통을 상징한다.

서머나 교회는 죽기에 이르는 큰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 그래서 주님은 대표적인 교회들의
특성을 보여 주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그중 하나로 택하신 것으로 보인다.

로마 시대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

주후 63-주후 313년, 250년 동안 10번의 역사적인 큰 핍박

첫 번째가 네로: 바울 베드로 순교

두 번째가 도미티안, 요한 등 황제 승배, 당시의 서머나 교회, 극도의 핍박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약탈하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사실 서머나 교회를
비롯해서 대다수 초대 교회 신자들은 거의 다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황제 승배 도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목사),

주 예수님(2:8)

왜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까? 믿음을 지키려고, 사도 요한처럼 인내를 가지고 환난에 참여함
(1:9),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당시 고난과 핍박의 결과는 죽음,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다. 나는 부활의 주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 유대인들, 그 뒤의
사탄과 마귀들, 모두 내 권세 아래 있다. 그들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요약: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이시다. 이것은 환난과 궁핍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적절한 표현이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2:9)

예수님은 생존을 위협 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9절).

행위는 믿음의 행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3:15의 행위는 악한 행위

환난: 고통, 압박, 짓누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 겐세마네, 기름 짜는 곳, 올리브가 짓눌려야 기름이 나온다.

겐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 내가 뜻하는 것(my will)이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마26:39, 42). 눅22: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땀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름을 짤 때 눌러야 하듯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환난이다. 이것 뒤에 십자가와 부활 서머나 교회는 겐세마네의 예수님처럼 그분의 증언을 굳게 붙들었기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으깨어지고 있다. 이런 환난과 순교의 기름을 통해 신약 교회가 전달되어 21세기에 우리에게까지 왔다.

딤후3:12: 반드시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도착한다(행14:22)

물론 이런 환난은 7년 환난기의 한 번밖에 없는 환난과는 다른 환난(마24:21)

이들의 궁핍: 믿음을 지키다 보니 직업 등을 제대로 갖기 어려웠다. 실질적인 가난

부요한 도시에서 서도들만 가난하게 됨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겐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후 6:10).

이것은 영적으로 부요함을 말한다.

이상한 현상, 고후8-9장, 마케도니아 교회, 극심하게 가난한데 엄청난 헌금(8:1-3)

환난과 궁핍 외적인 것, 자칭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비방은 내적인 것

여기의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다

즉 교회 내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 혹은 속으로 유대인(롬2:28-29)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할례, 안식일, 절기 준수 등) .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모든 육적, 영적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 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대체 신학

이것이 결국에는 카톨릭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천년설, 지금 교회 시대가 왕국이다.

안식교, 여중, 하나님의 교회(유월절), 메시아닉 주도 이와 비슷한 부류들

영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오류이다.

주님의 말씀, 이들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

사탄: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욥1:6), 회당: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 원래는 모임, 집회를 뜻함.

즉 이들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한 마디로 신성모독이다.

blasphemy,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

1948년 5월, 저 땅에 메시아의 천년왕국

결국 이런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면서(계3:9) 어거스틴이 등장하여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완성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의 세상 지배 완성, 무여 1000년간 중세 암흑 시대, 그 뒤 칼빈주의, 프로테스탄

트들의 무천년주의, 이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신성모독

이런 자들이 교회의 교부라고 불리고 심지어 성경을 변개하는 일을 수행함(제롬, 오리겐, 어거스틴 등)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조심스레 보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가담하면 사탄의 회당, 신성모독

우리는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신실한 교회에 대한 축복(계2:10)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사43:1-3).

고난을 면하게 해 주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 준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기서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앞뒤 문맥상 문자적인 10일로 보기에는 어렵다. 교회사적으로는 이것을 교회사의 예언으로 보고 로마 황제들의 공식적인 10번의 핍박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주님이 말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혹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준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에 합당한 영광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자.

주여, 제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환난기를 끝까지 통과해서 휴거받게 해 주십시오,

마24:13, 여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다. 계2:10과 다르다.

24:14, 세상 끝,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예수님이 지켜 주신다.

고전1:7-9, 왜? 신실하시므로

계2:10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가 누릴 보상의 약속이다.

이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왕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왕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따라 주시는 보상이다. 약1:12, 벰전 5:4 등의 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마귀의 핍박과 시험을 이긴 연단된 믿음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신실하다'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며 성실히 전파한다는 의미이다(고전4:1-2).

Faithful, 이것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다. (*)

그런데 개역성경 등은 충성하라로 바꾸어 놓았다.

신실한 것과 충성된 것은 다르다. 전자는 믿음, 후자는 행위

대다수 한국 성도들은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다. 믿음 면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할 것이다.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

보상(2:11)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귀 있는 자만

계2:11 이기는 자(요일5:4)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이다.

둘째 사망(계20:6, 14; 21:8)

구원받은 사람,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죽음: 분리, 첫째 사망 몸이 영과 혼에서 분리된다.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기지 못하면(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다시 이야기한다. 이기는 자는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다. 밤새 기도하는 등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결론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정신적 영적 고통이 크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환난을 견디며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가?
고전4:1-2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순교자 폴리갑

폴리갑은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계 2:8-11)의 감독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 화형에 의해 순교한다.
당시 황제 숭배,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큐리오스)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를 수 없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갑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죄로 인해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한 관리가 폴리갑에게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10 요한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과 결합한 교회
계2:12-17

계시록 강해, 이미 9번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두 주 에베소, 서머나, 오늘은 < > 버가모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버가모

버가모는 에베소 북방 160km에 위치한 도시로 주전 5세기에 이미 잘 알려진 도시였다.

항구 도시가 아니라 25킬로미터 바다에서 떨어진 도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붕괴하여 생긴 셀레우코스 왕조 때는 그 왕조의 수도였다.

단2장,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뒤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로 발전했다. 요한 당시 무려 250년 간 소아시아의 수도 (*),(*),(*),(*)

또한 이 도시는 문화의 도시로도 잘 알려졌는데 이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는 20만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다. 벨럼이라 불리는 양피지가 여기서 개발되었다는 전승이 기록이 있다. 도서관, 책들,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 문화를 지키는 역할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주신(主神)인 제우스(Zeus)를 비롯하여 승리자 아테네(Athene), 지도자 디오니소스(Dionysos) 등의 신전이 있었다.

더구나 이곳은 황제 숭배까지 성행한 곳으로 각지에서부터 오는 순례객들로 언제나 번잡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도 이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버가모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신실한 자도 있었지만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니콜라당의 교리에 동조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버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도시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임을 지적하셨다.

주 예수님(2:12)

예수님께서 양날 달린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계1:16) 두 가지 의미

1. 엡6:17(*), 13 전신갑주, 14-17, 17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4:12-13, (*) 양날이 달렸다: 인간 폐부의 가장 깊은 곳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양날 달린 검을 지닌 주님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깊숙하게 심판하는 분, 계19:15 (*)

따라서 이런 모습의 주님은 즉시 심판하시는 분,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이다.

버가모란 말의 뜻: 여러 번 결혼하다.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세상과 짝이 되어 하나가 된 것 의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짝한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2.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요15:3), 기쁘게 하실 때에도(요15:11), 화평을 주실

때에도(요16:33),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도(요17:17) 말씀을 쓰신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2:13-15)

1. 고난을 당한 버가모 교회(13절 초반부). 네 행위를 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의 원인은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탄의 자리: 여러 의미

1.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 니므롯(창10:8-9), 세미라미스, 담무스, 여러 가지 신비

그런데 이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의 사령부가 BC 133년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될 때 바빌론에서

버가모로 옮겨짐.

사도 요한 당시에도 사탄의 자리가 존재함. 결국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로마로 옮겨감
콘스탄틴 대제는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묶어 버림. 바빌론 신비주의를 채택함
그 뒤 어거스틴, 제롬, 암브로스 교부들, 로마 카톨릭 체제, 중세 암흑시대
이런 의미에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천주교의 유래(*)

2. 로마는 백성들에게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신전을 지어 그것을 구체화했다. 특히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카이사르의 신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황제를 '주'(Lord)라 부르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주(Lord)로 믿는 버가모 성도들은 이를 거부했고 교회는 자연히 핍박을 받았다.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눈에 불충성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비추어졌기에 박해는 더 심했다.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벧전4:14)

신실한 증인 안디바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순교한 것으로 보인다. 안디바에 대한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 교회의 지도자. 증인은 마르투스(그리스어),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다.

2. 믿음을 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13절 중반부)

나의 믿음, 나를 믿는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내게서 오는 믿음
크리스천 믿음, 마16:18을 이루는 교회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성도들은 위축되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지만 버가모 교회는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굳게 지켜 나갔다. 특히 버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고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음을 고려할 때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안디바처럼 신실한 증인이었다. 터툴리안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안디바는 늦쇠 가마에서 서서히 구워지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2:14-15)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14).

1.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 우상 숭배

14절은 우상숭배자들을 가리켜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발람은 40년 광야 생활 끝 부분에 등장한다. 시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브올 숭배를 가르친 장본인이다. 그의 감언이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여 큰 재앙을 당했다(민22:1-9; 25:1-5; 31:16). 25:1, 9(24,000명 죽음)

베드로의 책망(벧후2:15-16)

우상 숭배는 항상 타협과 함께 들어온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풍습이 들어와 기독교와 혼합되어 천주교를 만들어 냈다. 주후300년(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호를 긋는 풍습), 375년(성인과 천사 숭배), 394년(미사 제도 시작), 431년(성모 마리아 숭배), 500년(성직자 계급 체제 확립, 옷의 구별), 526년(중부성사), 593년(라틴어 예배), 600년(중보자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림).

2.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행(고전6:18-20)
3.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2:15), 2:6, 주님이 미워하는 것, 구약식 제사장 체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회개 촉구(2:16)

내 입의 검(계1:16)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허탄한 교리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회개는 온 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이 교회 성도들과 싸우실 것이다.

배도한 자들 심판, 용인한 자들 징계,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2:17)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주님은 1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신다.

이기는 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이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출16:32-34를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일 오멜을 가득히 담아 주님 앞에 있는 증언 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우리 주님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빌4:19).

만나의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요6:48-51),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복

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무죄의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흰 돌을 놓으면 무죄가 되었다. 이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결론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 세상과 하나가 된 것

교회에 세상을 들여온 것, 천주교 같은 바빌론 음녀 체제를 만든 것

세상은 무엇인가?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요15:19).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시스템,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체제, 철학, 문화

요일2:15-17,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2: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약4: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롬12: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딤후2:11-13

우리는 어떤가?

세상 속에서 산다.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철학, 방법, 가치관, 문화, 언어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본인, 가정, 교회

고후6:14-17

11 요한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멸망한 교회 계2:18-29

계시록 강해, 도전, 모험, 동시에 엄청난 공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한다.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세 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오늘은 < > 두아디라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두아디라

배경: 버가모는 7 교회 중 가장 북쪽(*), 거기서 동남쪽으로 65km에 두아디라 위치.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테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업 도시로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의 상업적 발전을 위해 유대인들을 일찍 받아들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믿고 낭독하는 소수의 무리가 이 도시에 있었음,

이곳은 요한 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이다. (*) (*) 하지만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비대가 주둔했으며 염색 공장으로도 유명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 역시 옷감 장사였다. 행16:14,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빌립보는 직선 거리로 350km, 돌아가면 450km 떨어진 유럽의 도시, 아마도 유대인들의 영향, 하나님 경배, 자주색 옷감(*)

그래서 이 도시의 주민도 직공들과 상인들 그리고 군인 등 여러 부류로 구성되었고 이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회원들은 거의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머나나 버가모의 경우처럼 바울이 에베소 체재 중에 전도해서 세운 것으로 추측되다. 혹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돌아가서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면에서 가장 불품없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 가장 긴 편지가 주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장 긴 서신: 고린도전후서 29장, 즉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 암시함

주 예수님(2:18)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 누군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제된 발(계19:15). 정제됨은 거룩함을 뜻한다. 발은 짓밟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단 한 번 이곳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곳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태양신이나 로마 황제 보다 뛰어난 위엄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당이 있었으며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신으로 숭배를 받았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두아디라에 여러 가지 우상이 즐비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된 듯하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통찰력과 심판자의 권위를 지닌 그리스도를 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2장 27절의 철장 권세를 지닌 분과 연관되어 있다(시편2편 7-8절). 메시아 시편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2:19)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온다. 거짓 가르침과 악행이 팽배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선한 성도들이 존재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했던 그들의 행위를 아셨다. 주님께 서 행위를 두 번이나 안다고 하시며 또 마지막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셨다. 즉 믿음의 행위에 진보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구체적인 선한 행위는 나오지 않음, 그것은 영적 분별력(2:2)과 교회의 순수성(2:6) 즉 봉사 등 외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내적인 성장, 성숙과 분별력은 없는 교회
이 교회에는 황제 숭배 문제가 크지 않았다. 이 교회의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주님의 책망(2:20)

두아디라, 그리스 이름의 뜻은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사, 천주교의 미사처럼 헛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대언자를 용납한 것이다. 행음, 우상 숭배의 희생 제사 (*),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이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이다.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출애굽기 말씀(7:1-2)

대언자의 효시는 아벨이다(눅11:50-51)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고: 거짓 대언자가 일어난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신18:20).

구약 시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 거짓 대언자(렘14:14,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신약성경 (단수 4 복수 7)

예수님의 경고(24: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특징: 직통 계시를 받는다. 기도 입신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 대개는 헌금을 강요한다.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한다. 자기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등.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없다(히1;1-2).

꿈, 환상, 점치는 기도 받으러 다니는 일들 다 영적을 음란한 일들이다.

더욱이 신약 시대에는 여성 대언자가 존재할 수 없다(딤후2:12, 3:2).

구원받지 못한 이 여인이 교회로 들어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함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인지는 모른다.

확실한 것: 이 여자가 구약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행위를 한 여인이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 율법은 모세, 대언자는 엘리야 발람과 이세벨은 율법 시대, 대언자들의 시대에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장본인들이다.

이세벨은 왕상 16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로 등장한다(16:29-33).

31절 시돈 사람들의 왕 옛바알(바알이 함께한다)의 딸 이세벨,

옛바알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제사장,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이세벨을 아합에게 시집보냄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것을 무시함

이세벨은 바일과 아스다롯, 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데려옴

여호와 신앙 멸절, 엘리야의 고백 주 여호와를 섬기는 대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왕상19:10).

음행과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이스라엘의 멸망 초래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도 이런 것들을 가르침

이원론(Dualism):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너희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신전에서 의 음행, 우상 숭배 허용

교인들의 다수는 그런 가르침에 끌려가 믿음을 버림

21절: 이러한 이세벨에게 주님은 마치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2:21).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요3:19)

22절: 주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들과 그들을 따른 추종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음이며 이러한 심판은 이세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그녀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침상은 역병 등으로 인한 죽음의 침상, 여기의 큰 환난은 계4장 이후의 큰 환난 즉 세상에 단 한번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7년 환난이 아니다. 극심한 고통

23절: 주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들을 용납한 자들(그녀의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망으로 벌하신다.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분(렘11:20; 17:9-10)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천국, 지옥 모두

앞뒤 문맥으로 보아 여기 이세벨과 그녀의 자식들은 교회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교회 파괴 세력이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마리아 신앙(*)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세벨과 같은 거짓 대언자를 추방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분(렘11:20; 17:9-10)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작정해야 한다.

바르게 사는 성도들(24)

반면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소수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 사탄의 깊은 곳을 안 자들, 마귀 숭배자, 사탄 숭배자

영지주의자들: 구원받았으면 몸을 가지고 짓는 모든 죄 용서되었다.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말3:16-17)

이단은 항상 자기들만이 아는 신비가 있다고 말해 사람을 유혹한다. 여호와와 증인, 몰몬, 지방교회, 기타 한국에 무수한 자생 이단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언가 자기들만의 신비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외의 신비한 것을 원치 않는다.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이 그대로 용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리가 중요하다.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 없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 성경을 믿고 지키고 전하는 교회, 자식들 바르게 키우는 교회
딤후2:11-13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권고(25)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교리와 믿음을 굳게 잡고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기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의 약속(계2:26-27)

이기는 자(요일5:4-5)

예수님의 믿음에서 난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게 되어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

시2:8, 9, 메시아의 1000년 왕국. 믿음의 승리자에게 메시아의 통치권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

28절: 승리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다. 새벽별(계22:16), 예수님 자신, 그분의 영광과 빛

29절: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따라야 한다.

12 요한 계시록의 사데 교회: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계3:1-6

왜 계시록을 공부하는가? 미래 예측, 재림의 소망,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2:7, 11, 17, 29; 3:6, 13, 22).
2-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여러 특성을 가진 7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네 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은 < > 사데 교회
1세기 교회, 지금 교회, 우리 성도 각 사람, 인간의 본성 불변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배경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의
해발 약 450m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다(동북서는 거의 절벽, 남쪽에서만 접근 가능). 이
도시는 주전 12세기경에 세워짐. 주전 6세기경에 루디아 왕국(주전 1200-546)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그 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었고 결국에는 BC 133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 (*)

사금이 흐르는 팍톨루스 시내가 이 도시의 부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이는 사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데는 또한 양탄자, 양털 옷 생산으로 유명했고 부유했지만 지진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세계 최초로 금화 동전 주조, 이솝 우화의 이솝(BC 600년경)은 사데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사데 교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교회였던
것 같다(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시 에베소 두란노 학교 2년 선포, 행19:9-10). 에베소 북동쪽 80km
2세기 후반, 사데 교회의 감독 멜리토(변증가)의 등장

그러나 그 도시의 퇴폐풍조가 교회에도 숨어들어 사데 교회는 안일과 부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데 교회는 사데라는 도시의 운명과 매우 비슷하다. 즉 명성을 잃고 죽은 도시, 죽은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사데 교회의 특징은 한 마디로 '죽은 교회'라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나쁜 명칭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뛰어갔으나 가
보니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경우
교회의 네 단계; man, movement, machine, monument, 사데(넷째 단계),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 우리 자신

주 예수님(3:1)

계3:1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한다.

일곱 영: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강조함(계3:1; 4:5; 5:6)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 성령님의 내주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게서 온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일곱 영이라는 완전한 표현을 통해 죽어 가고 있는 사데 교회에 성령님의 무한한 영적 은혜를
주려고 하시면서 지금의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람의 인위적인 프로그램은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창출하지 못한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일곱 별(계1:20)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 즉 지도자들,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는 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어쩌면 사데 교회의 목사 혹은 목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데라는 교회에 성령님의 파워가 떨어지고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데 교회의 특징(3:1)

사데라는 말은 “도망하는 자”, “빠져나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오염되어 결국 1절에 언급된 것 같이 사데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간단히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꾸짖는 일을 시작하신다.

이 교회에는 칭찬이 없다. 박해나 반대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의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 사데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다. 성도들은 모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았다.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교회, 마치 사데라는 도시처럼

그러나 실상 사데 교회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1. 세상에 의해 점령됨(철학, 문화, 운영 방침), 2. 내부 부패, 3.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주무름, 지난 주 두아디라 교회: 50%, 오늘 사데 교회: 95% 이상이 죽은 자 유기체가 조직체가 되고 말았다.

죽어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엡2:8-10), 약2:26

교회 사망의 원인

1.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지낼 때
2. 영적인 실체보다는 교회 의식에 빠질 때, 무미건조한 예배(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다)
3.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없을 때
4.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치중할 때(기복 신앙, 번영 복음)
5.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6.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교리적인 신조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7.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잊을 때
8.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교인 수, 헌금, 교회 건물, 주변 평가 등에 상관없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즉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기억해야 할 것: 사데 교회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데 교회는 구약 시대 삼손과 비슷하다.

엄청난 힘, 용맹함,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다.

들릴라의 조르기(삿16:16), 그는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

결국 비밀을 말하고(17) 머리털이 잘린 채 잡혀서 종이 되고 말았다(19). 두 눈이 다 빠진 채(21) 이것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의 비극(16:20).

동일한 사람, 이름, 그러나 힘이 사라졌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권고(3:2)

사데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원가지에서 떨어져나간 가지는 말라죽게 되는 것처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요15:4-6).

사데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타락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었다.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한 마디로 죽은 교회이다. “죽었다”는 표현은 매우 무서운 말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데 교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현대 교회의 문제이다. 우른 어떤가?

주님의 해결책

1.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신다(롬13:11). 왜? 깨어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무지하게 지내면 안 된다. 무관심하게 지내면 안 된다. 내 문제, 아이들 문제 사데는 난공불락의 도시, 그런데 과거에 두 번이나 적군에게 요새를 빼앗긴 적이 있다. 군사들과 지도자들의 태만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누워서 잠자다가

2. 아직 남아 있지만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살펴야 한다.
3. 교회의 깨어남의 첫 단계: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세 암흑시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및 국가
우리는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회개 촉구(3:3)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살전4:1).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의 상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우리 교회 올 때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진실함

건전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 죄, 구원, 성화, 재림과 휴거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뒤 그냥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은 사람이 잠자는 때에 몰래 온다.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른다(마24:42).

밤의 도둑, 임박한 심판(마24:43; 눅12:39; 살전5:2; 뱀후3:10, 계16:15 등)

여기서는 등잔대가 없어지거나 옮겨지는 것, 결국 사데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3:4)

사데 교회에는 전반적인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풍조에 몰리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유23), 죄와 세상에 몰리지 않은 자들

성경에서 옷은 종종 성품을 뜻한다. 좋은 크리스천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사데는 하얀 양털 옷, 더럽혀진 옷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으로 아직 살아 있는 자가 소수 있다.

말3:16-17

엘리아 시대, 7000명의 남은 자들(롬11:1-5)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닌다.

흰옷: 순결, 승리, 주님의 인정(계6:9-11),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신다.

계19:7-8, 주님의 신부에게도, 성도들의 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3:5)

생명책(빌4:3; 계3:5; 계17:8; 20:12, 15; 22:19)

데이빗 리건, 팀 라헤이 목사님의 설명, 성경 Q & A 6,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계3:5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생명책(book of life)

살아 있는 자들의 책(시69:28), 그들(악한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죽여 주십시오.” 이 책에는 의로운 자, 사악한 자 모두 살아 있는 자들은 다 기록됨. 죽으면 살아 있는 자들의 명단에서 나간다.

하나님의 책(출32:32-33), 모세: 32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32:33)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주의 책, 이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책(시69:28).

거기에서 지우 버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여 달라는 것,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책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여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몸이 모태에서 형성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다윗의 시편(시139:16).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 우리의 잘못된 생각: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신자든 불신자든 그의 이름은 생명책 즉 살아 있는 자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즉 불신자 즉 죄인들의 이름은 거기서 지워진다.

계3:5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위협 구절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다.

사람들의 주장: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요일5:4-5,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이긴 사람

3:5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의 메시지이다. 2:11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다.

지워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의미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마10:32).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 보장(롬8:28-39), 38-39

사데 교회에 남아 있던 몇몇 신실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격려하신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13 요한 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 전 휴거를 받는 교회

계3:7-13

올해 계시록 강해, 이미 12번, 나와 성도들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존 맥아더 목사님 50년 목회, 계시록을 100회 이상 강해,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당시의 대표 교회들, 교회 시대 대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은 < >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 전 휴거의 예표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 7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모범된 교회이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는 교회

‘형제 사랑’(살전4:9)이라는 뜻의 필라델피아는 루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라는 이름의 도시로 건설되

었다. 그 후 BC 159-138년에 ‘버가모의 필라델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탈루스 2세가 동부 진출의

전초 기지로 이 지역에 도시를 건립하고 자신의 칭호를 따서 이곳을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로/Philo(사랑)’와 ‘델포/Delpho(형제)’의 합성어로서 ‘형제 사랑’을 뜻한다.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이던 아탈루스 2세 사이의 형제 사랑, 유메네스가 먼저 버가모의

왕이 됨(BC 197-160), 그가 전쟁터에 나감, 주변 국가들이 동생을 유혹하여 왕이 되게 하였으나

거절함. 형이 다시 돌아와서 통치하다가 죽은 뒤에 동생인 아탈루스 2세가 왕이 됨, 여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의 명칭이 나옴.

이곳은 사테에서 44km 동남쪽, 소아시아 고원 지대와 서쪽의 서머나 사이의 중요한 산업도시 역할을

한다. 나중에 가장 큰 도시이던 버가모가 로마제국에 예속됨에 따라 BC 133년경에 이 지역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이 지역이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주신인 디오니소스 즉 로마

신화의 박카스 신을 크게 숭배했다. BC 17년과 BC 23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 이 도시는 대파되었고

이 도시에는 고대 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 (*) (*)

주 예수님(3:7)

1. 거룩한 자(행2:27; 3:14,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진실한 자(요1:17; 14:6; 계6:10)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권능, 권세, 능력을 가진 분, 그러나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 행1:8

그래서 성령의 불, 불 침례 강조,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광란의 도가니

대다수 성도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소유를 원한다. 삼손의 능력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신 소개

가장 크게 칭찬받은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이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 Holy One(52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계4:8, 사6:3의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교회가 더는 교회가 아니다.

진실하다. 계6:10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요8:32, 14:6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요4:24).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3:8 적은 힘을 가짐,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신다.

즉 외적으로는 힘이 적은 것 같았지만 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다수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10).

에루살렘 교회 일곱 명 선출(행6:3),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 2.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쇠는 소유, 권세, 관리 등을 뜻한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계1:18), 무저갱의 열쇠(계9:1, 20:1), 하늘의 왕국의 열쇠(마16:19), 다윗의 집 열쇠 모두 예수님이 소유자,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쥐신 분 사22:20-24, 특히 22절, 국고를 맡은 썬나를 쫓아내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긴다는 의미, 시대적 상황, 즉 열쇠를 가진 그를 통해서 군주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 소유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3:8-9)

- 1.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행위,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도다(삼상2:3). 다 알고 계신다.
- 2.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행14:27; 고전16:9; 고후2:12).

버가모 외곽 지대에 있던 필라델피아는 전초 기지 성격의 도시였다. 즉 그리스시대에는 루디아 동부 지역(비두니아, 브루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등 (*))을 상대로 한 그리스 문화 및 언어의 전파를 담당했고 기독교 시대에는 비두니아, 브루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의 이교도들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 사도 요한은 필라델피아의 이러한 성격을 간파하여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3:8)라고 했다. 즉 여기서 열린 문이란 브루기아 등을 향한 선교사업의 기회를 암시한 말로 기독교 사회의 끊임없는 도전과 기회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을 말한 것이다.

그분이 열쇠로 그 문을 열었으므로(3:7) 아무도 닫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재미있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 교회이다(3:20)

- 3. 적은 힘: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끌려가서 배반하지 않았다. 외적인 힘은 약하게 보였다: 수가 적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눅12:31-32, 하나님의 왕국은 적은 수의 무리가 받는다. 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거룩하고 진실한 것, 열린 문 교회
- 4. 여기에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9). 서머나 교회에도 이런 자들(2:9) 즉 지상 외형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 신부가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자들이 있음.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등등

지금 안식일, 유월절 준수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함,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자들

사탄의 회당,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대적하는 일을 함

마16:21-23,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처형, 매장, 부활, 베드로의 부인 좋은 의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실제로 이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주님께서서는 그자들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굴복하게 한다.

시험의 시간과 교회의 면제(3:10)

계3:8, 10 나의 인내의 말(살전1:3)을 지켰다.

말을 지킨다. 성경 보존과도 상관이 있다. 유일한 교회(요14:23, 24)

우리 교회의 책무

특별히 이 교회는 인내의 말을 지켰다. 인내,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요한1:19)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I kept him from going(그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시간 속에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다. 즉 시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닥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 고전10:13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7년 환난기, 온 세상의 환난(계6-19장; 계6:10; 8:13; 13:8 등)
다니엘의 70이레, 마지막 한 이레, 7년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난 전 휴거의 예표가 되는 교회

누가 휴거되는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구원받은 자들,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혼인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부분 휴거, 이겨야 한다 등으로 행위를 첨가하면 그것은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이다.

교회는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살전5:9). 3:11과 연결됨(내가 속히 간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있다.

권고(3:11)

계3:11 네 왕관(딤후4:8)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여러 종류의 왕관, 보상으로 주어진다.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등

이 교회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라는 말씀

이기는 자(3:12)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 나가지 않는다: 항상 거기 있다. 하늘에 항상 있다.

기둥: 지구력, 버팀목, 영원성, 영광 혹은 영예, 권능 불기둥, 구름기둥

기둥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름: 소유물이 된다.

도시의 이름: 새 예루살렘, 계21:2, 10

이름: 살 수 있는 자격

나의 새 이름: 아직 계시되지 않은 주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게 될 그분의 이름

성령님의 권고(3:13)

계3:13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구원받았는가? 환난 전 휴거를 받는다, 걱정하지 말라.

2.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라.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라.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구원

14 요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재림 전 말세의 배도하는 교회
계3:14-22

올해 계시록 강해, 나도 많이 배운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당시의 대표 교회들, 교회 시대 대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은 < >, 이 교회는 재림 전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여 준다. 교회가 거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건물이 교회인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3:22),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 동남쪽 72km, 에베소 동쪽으로 160km, 브루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안티오쿠스 2세(BC 262-246년)가 자기의 부인인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다. 당시 여러 개의 라오디게아가 있었는데 이것은 브루기아와 루디아 사이에 있던 도시이다. 이곳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으나 로마가 BC 190년경에 아시아(Asia) 지방을 만들면서부터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고급 검은 양털과 브루기아 산 안약 가루 등으로 유명했다. (*) (*) (*)

지역적인 특성

이곳에는 물이 귀하여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통해 온천물을 끌어들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많은 양의 석회가 오랫동안 물속에 침전돼 비경을 이루고 있다. 석회성분을 품은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 침전이 계속되어 형성된 새하얀 대규모 석회층인 파묵칼레(*)가 유명하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도관을 통해 흘러온 온천물은 이곳에 도착하면 식어서 덤지도 차지도 않는 물이 되었다. 또한 이 물은 광물질이 섞여 있어 마시기에 부적당함으로 입에서 토하여 내졌다(16절)는 선언과 일치하고 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특징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와 ‘정의, 공의’를 의미하는 디케의 합성어로서, ‘백성의 정의’,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의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교회 신자들의 의견과 판단을 따르는 교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로 인간의 방식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세상의 법을 따랐다. 즉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믿음과 행실의 기준인 성경을 버리고 신자들의 다수결로 대체하였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결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다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데 교회보다 더 나쁜 상태

구약시대 유다, 심각한 배도, 바빌론 포로 생활의 심판

예수님 거부 AD 70년 전 시기로 흩어짐

신약시대, 말세의 극심한 배도, 성도가 아닌 자들이 대다수, 결국 환난기 심판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

골로새와 인접한 도시(17km), (*) 골로새사에 몇 차례 언급된다. 골2:1, 4:13, 4:15-16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제를 하였다.

주 예수님(3:14)

주님은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곱 교회에 각각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1. 아멘이신 분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말씀한다. .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은 "굳건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계22:20-21 참조

주님이 '아멘인 자'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 대하여 '굳건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1:19-20,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에 대하여 '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도 '아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적이고 '제일 좋은 교회'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아멘이 되신 주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대체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멘이다라고 하신다.

2.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주님: 계1:5에서도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라 불리신다.

아멘이신 주님, 즉 굳건하고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안다면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도, 신실함도 찾을 수 없었다. 진실함과 진리가 없기에 진실한 분이라고 하신다.

왜 증인인가? 공생애 기간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신실하게 증언하심.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게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함(행1:8).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3.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골1:15-16), of의 용례

여호와와 증인들: 창조의 시작, 공동번역 등

골로새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 분명히 골로새서를 읽었을 것이다.

골1:15-17, 창조를 시작하신 그리스도, 창조물의 주인, 왜? 영지주의로 인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영지주의,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를 버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속죄하심을 부인함

라오디게아 교회(3:15-17)

1.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15-16). 히에라폴리스의 물

신자는 뜨거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모든 성경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그들의 말을 보라. 눅24:32

뜨겁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위치에 있다는 표시이다.

반면에 차갑다는 것은 완악한 불신자들을 말한다. 공개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다른 부류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보인다.

예배에 온다. 주님을 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선자 마7:21-23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어렵다. 다 안다고 한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교회 직분, 세례, 그래서 다가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대다수이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일: 토한다(16). 역겨워서

구원과 성화 두 측면: 1. 구원 안 받고 받은 척 하는 것, 2. 성화, 우리의 행위가 역겹다.

2. 영적 교만(17)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은 17절에서 잘 드러난다. '네가 이르기를'; 자기 자랄, 과대평가, 주님의 평가가 아니다.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성경 신자, 걸맞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나는 부자다. 재산을 불렸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했다.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 아마도 그들도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며, 그런데 착각함, '물질적으로 부유하니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지금 많은 대규모 교회들의 문제, 조엘 오스틴 세계 최대 교회, 특새 등 북새통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다.

조심해야 한다. '물질적인 부'는 '영적인 부'와 관계가 없다.

말세 교회의 특징: 기복 신앙, 변영 신학, 특새, QT 등 대개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3. 영적 실상, 17절 후반부 주님의 말씀,

'외적인 것'과 '영적인 실상'이 일치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였다. 외적인 부요는 '반드시' 내적인 부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한다. 여기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은 가련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였다.

또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상태였다. 육신의 몸도 벌거벗게 되면 그 수치를 당하는데 영적인 벌거벗음은 더 심각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말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방언, 입신, 신사도, 귀신을 쫓는다 등등, 성경 말씀 자체를 모른다. QT 식 성경 해석 물질적 변영 신학, 영적 변영 신학이 말세 교회들의 특징

그런데 대다수 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록음악, 경배와 찬양, 겉으로는 화려한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주님의 권고(18)

18절, 주님은 17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디게아 교회, 불신자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한다. 첫째는 불로 정제한 금, 둘째는 흰 옷, 셋째는 안약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내게서' 즉 주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엡2:7-8, 사64:5-6)).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사라고도 하신다(사55:1-3). 이럴 때 산다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이다.

무엇을 주고 사는가? 나의 더러운 죄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사야 한다. 이런 의미이다.

1.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정제한 금(gold)'을 살 것을 권하신다. 금은 매우 특별한 광물이다. 수많은 광물 가운데 유독 변하지 않으면서 고귀한 빛을 가진 것이 금이다. 물론 여기의 금은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이다.

벧전1:6-7, 불로 단련하여 얻는 고귀한 금을 '너희의 믿음(your faith)'에 비유했다.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얻는 금과 같다.

구원에 관한 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2.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이 흰 옷 역시 영적인 옷이다. 계3:5, 계16:15

네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4.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기의 눈멀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소경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진리와 교리를 모른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마15:14) 성경에 눈이 멀었다. 목사가 성경 정체를 모르치지 않는다.

감성팔이 설교, 복받는 설교, 도덕 윤리 설교, 이러니 잘 볼 수가 없다.

주님의 책망과 경고(19)

1. 참으로 중요한 말씀, 19절, 구원받은 자들로 볼 가능성이 있다.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8, 20을 보면 이들이 거의 확실히 불신자들임을 알 수 있다.

19절은 주님의 구원 초청으로 이해하면 좋다.

책망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이다.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책망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다. 성화된다.

징계는 “훈련하다, 징계하다, 아이를 훈련하다”라는 의미이다.

왜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가? 편지를 보내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아서

2.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좋은 처방은 '회개하고'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불신자: 회개, 열심을 내라는 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매일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읽고 합당하게 살며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이다.

주님의 요청(20)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밖에 서 계신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없다는 말이다. 즉 그 교회 다수의 회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또 구원받았어도 삶 속에서 “주님이 거의 없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뒤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다수가 하는 대로 의사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예화, 어떤 교회의 문에 Only Jesus,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앞의 3글자가 떨어졌다.

교인들이 보니 “Only Jesus”는 보이지 않고 “Only us”만 보인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는 예이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우리만의 리그가 된다. 구원 없다. 성화 없다. 보상 없다.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만찬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21)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마19:28; 계2:26-27; 롬8:17).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 치리자. 주님의 이김과 왕좌에 앉음(빌2:6-11)

결론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시 주님이 문 밖에 계시지는 않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 열심

구원받은 사람, 회개 열심

목사나 교회가 먼저가 아니다, 나, 가정이 먼저다.

15 교회의 휴거와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4:1-4

계1-22장, 구조 1:19(*)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계시록 1-3장 강해, 요한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이제 남은 것은 '이후에 있을 것들', 계4-22장, 특히 4-20장까지는 무서운 심판,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천주교, 개신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일들이 AD70년에 일어났다고 가르친다. 네로가 적그리스도 이것은 난센스, 거짓말이다.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것들이다.

오늘 4장, < > ,

성경은 성경으로 본다. 교회 단수로 2-3장에 총 7번, 복수로 1-3장에 총 13번

맨 마지막으로 22:16에 나온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요약: 총 22장 1-3장에만 나오며 3:22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21장까지 나오지 않음.

마지막(계22:16), 22장 끝에 결론을 쓰면서 1번 나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4-21장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을까?

4장 이후에는 땅에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 상태로 지내다가 휴거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환난기 성도들이다. 예수님의 몸, 신부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4-20장은 7년 환난기, 21장은 7년 환난기 이후의 1000년 왕국

계시록 4장은 환난 전 휴거를 보여 준다.

4장 강해

계4:1 이 일 뒤에, 여러 개의 환상 계시, 2-3장의 환상 계시 대언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미래 일을 본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은 야곱이 베냐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열렸다(창28:17). 두려워서 이르되,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서도 요한에게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의 하늘은 당연히 셋째 하늘이다. 조금 뒤 설명한다.

계시록에서 하늘은 두 번 열린다(4:1; 19:11), 즉 주님이 오실 때만 열린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계1:10), 휴거의 상징(살전4:16-18), (고전15:49-52)

계4:2 내가 영 안에 있었다(in the spirit). 계1:10(in the Spirit)

성령님의 권능 하에 내 영이 있었다.

여기서는 사람이 변화되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요한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올라감(고후12:1-3)을 뜻함.

1절에 음성, 나팔소리, "이리 올라오라."고 함,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함: 휴거의 모든 요소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다.

요한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이다(21:20).

요21:21-24 설명, John(beloved)

요한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은 휴거의 예표이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휴거가 생기는 때를 보여 준다. 계시록은 앞의 일을 표적으로(즉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 주었다(1:1).

계4-19장은 환난기에 대한 것이다.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가장 먼저 본 것: 하늘의 왕좌, "내가 통치한다.", 밧모섬의 유배, 로마 제국 탄압과 핍박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계4:3 왕좌에 앉으신 분, 왕좌만 보면 안 된다. 그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앉아 있다. 통치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이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요한은 바울이 보고 쓰는 것이 금지된 것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후12:2-4).

계4:4 왕좌 둘레에 24자리, 24장로: 누구인가? (4:4; 10; 5:5; 11:16, 19:4 등)

1.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5:9-10). 천사는 절대로 장로로 불린 적이 없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땅에서 통치한다(계5:10).

2. 그들은 흰옷을 입고(3:4; 3:18; 19:8), 성도의 표징

3. 왕관을 쓰고 있다(보상의 왕관; 계2:10)

딤후4:8(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계2:10), 썩지 않는 왕관(고전9:25-27), 영광의 왕관(벧전 5:2, 4), 환희의 왕관(살전2:19-20)

3.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왕관을 받는다.

딤후4:8; 벧전5:4

4. 그러면 4장에서 이 24명이 왕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 뒤 4장 중반 이후부터 7년 환난기

그래서 이들은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환난기 이후에 부활하기 때문이다(단12:1-2, 13; 사26:19-21, 27:1). 시110편(특히 3절)

부활 설명(*)

5. 휴거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본다.

6. 왜 24인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24개의 계열로 나뉘었다(대상24:1-19).

우리 즉 신약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벧전2:9; 계:1:6).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실제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의 현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heaven, 하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첫째 하늘 —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마6:26)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닙니다.

(2) 둘째 하늘 —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닙니다.

(3) 셋째 하늘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12:2)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의 셋째 하늘입니다. 수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

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주 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행은 ‘뇌’(brain)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피’(blood)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6:9에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늘로 가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갑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셋째 하늘의 위치

욥26:7, 북쪽(the north)을 빈 곳에 펼치신다.

욥26:9-10

여기는 낮과 밤이 끝이 나는 곳이다.

물들이 있다. 시148:3-4, 4절 설명

욥37:18,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sky= molten looking glass(얼어붙은 유리 혹은 수정,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계4:6 firmament(창1:6-7), 딱딱한 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밀도를 가진 곳

이런 하늘은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앞의 하늘

사57:15, 영원, 높고 거룩한 곳,

루시퍼의 반역: 사14:12-14, sides of the north

시48:1-2 북쪽의 옆면들, sides of the north

시75:6-7, 동서남북

그분의 처소,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서 물들(수정 같은 유리 바다)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왕좌가 있는 방

결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 일을 요한이 예표로 보여 준다.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간다. 그리고 최후에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산다.

딤후2:11-13

16 기록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찬양

계4:5-11

계1-22장, 구조 1:19(*)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2-3장 교회 시대
지난주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왕관을 쓰고 있음
신약 시대 휴거받는 자들을 대표함
성경의 부활, 성경의 세 하늘

오늘 4장 5-11, < >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

4장 5절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 천둥, 무엇이 상상되는가? 두려움 공포, 출19:16,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이대로 접근하면 죽는다.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곧 7년 환난기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의 전조로 번개, 천둥, 우렁찬 소리

계8:5, 11:18-19, 16:18

일곱 등불은 일곱 영, 물론 완전하신 성령님 표현(1:4), 역시 무언가를 깊이 살피는 것 표현, 강렬한
빛을 내신다. 역시 심판의 상황 표현함

4장 6-7절

1. 6절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상징의 바다가 아니라 진짜 바다이다.

구약 시대: 성전에는 놋 바다가 제단 다음에 있었다(왕상7:23-45). (*)

성막에는 물두멍이 제단 다음에 있었다. (*)

이것들은 하늘의 것들의 예표(히9:9),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셋째 하늘, 궁창 위의 하늘, 궁창 위의 물들, 엄청난 밀도, 수정 같은 바다(겔1:22, 26)

겔1:22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음(수정 같은 유리(새파이어) 바다)

2. 6절 네 짐승, 실제 짐승, 여섯 날개, 4짐승은 4복음 등 비유 해석 거짓이다. 진짜 짐승이다.

1. 그룹(겔1:10), 그룹은 천상의 존재 중 하나, 천사가 아니다.

에스겔의 네 짐승은 네 날개(1:6), 바퀴가 달림, 왕좌를 물고 다님(겔1:26-27) (*)

겔10:15,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이니라.

하늘의 짐승들은 그룹이다. 아담과 이브의 축출, 그룹들을 에덴의 동쪽에 두심(창3:24)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가오지 못하게 하심, 그래서 성막에도 지성소에 그룹들이 놓이고 위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짐

출37: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의 다른 끝에 만드니라. 그가 궁궐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었더라. (*)

출36:35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었더라. (*)

겔1:18: 사방으로 눈이 가득함(계4:6), 모든 것을 살핀다. 역시 심판의 표징

원래 그룹은 4이 아니라 5, 한 그룹이 타락함, 덮은 그룹, 사탄(겔28:14-15)

4:7 네 얼굴

2. 스랍(사6:2-3), 여섯 날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정지 상태 6날개, 에스겔 바퀴를 가지고 움직임(왕좌를 나르며), 4날개

원래 그룹 네 얼굴(겔1:6), 얼굴마다 2눈, 사방에 눈

(*) 그룹들의 얼굴(10:14),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10,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그룹은 소이다(*). 황소 및 염소 승배, 루시퍼 승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8)

1. 거룩하신 분

짐승들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사6:3), 세번 강조, 삼위일체 하나님 9절 영원 무궁히 하나님 찬양, 예배,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의 의미, 완전히 구분되신 분(시86:8-10)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것의 요약

악, 죄, 더러움, 실수 무지 등 없으신 분

전지전능, 무소부재, 인간과 우주 경영, 신실함, 은혜, 사랑, 진노, 오래 참음, 위엄, 권위
그분은 거룩하다(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출15:11). 시47:8,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거룩함의 왕좌에 앉으신다.

벧전1:14-16, 하나님이 거룩하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령, 거룩한 영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진노에 대한 것이다. 이제 7년 환난기 진노, 심판이 시작된다.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심판, 거룩한 심판

벤세메스 사람들 궤를 들여다봄(삼상6:19-20), 50,070명이 즉사함

웃사와 아히오 역시 궤를 만짐 즉사함(삼하6:7)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계6:16-17)

이사야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사6:5).

2. 전능하신 분

짐승들은 그분을 전능자(Almighty)라고 부른다(계4:8, 창17:1). 가장 강한 존재, 무엇이든지 하신다(사40:28, 시115:3; 사46:10; 마19:26)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얼마나 위력적인가?(시33:9),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다윗의 말(대상29:11-12)

여기서도 하나님의 파워는 7년 환난기와 상관에 있다(나1:6).

3. 영원하신 분(4:8)

네 짐승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선포한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그래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생명 소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새영 소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영원히 지옥 불속에서 고생한다(계:14:11).

24장로의 하나님 찬양(9-11)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니까 24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함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1.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2.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3. 던지며

예배의 3요소: 엎드림, 경배함, 드림

왕관을 던짐(금왕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고는 11절,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합당하다 worthy, worship

당신은 창조자,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

창조물은 반드시 창조자에게 예배해야 함, 사1:3,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탄 마귀, 마귀들,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 불신자들,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반역하고 있다.

믿음에 의심이 가면 능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생각하라.

결론

창조물이 영원무궁토록 해야 할 일, 창조자 하나님 찬양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된다.

항상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17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봉인 책

계5:1-7

계1-22장, 구조 1:19(*)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2-3장 교회 시대
지지난주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하늘 문이 열리고(1 *)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왕관을 쓰고 있음(*)
금왕관을 벗어서 던짐(*)

신약 시대 휴거받는 자들을 대표함

지난주, 왕좌 앞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4 짐승

이 짐승들은 아마도 그룹, 그룹은 소, 이집트, 인도 사람들 소 승배

짐승들과 장로들 하나님 찬양: 창조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오늘 < >, 5장 요약: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최종 사역,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1-8)

계5:1-8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어떤 책인지 알려지지 않음.

지금과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의 책

어떤 책인가? 1. 계시록, 6-7장 일곱 봉인을 뿜

2. 성경 책, 3. 다니엘서(단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 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구속의 의미(Redemm)

지난주 하나님 설명, 창조자, 오늘 구속, 구속자 어린양 개념 설명(*), 대단히 중요하다.

24장로들의 구속 감사 찬양(9절)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대신하는 것

- 구속(Redemption) 구속이란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물건) 혹은 '속량하다'(사람)로도 표현되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 1:13-14)

여기에 나오는 소유물 즉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록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은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롬8:22-24)

즉 예수님이 구속해야 할 소유물은 바울이 롬8:22-24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심의 대상인 우리 몸이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으며 그 뒤 아담의 씨가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다(눅4:6).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은 소유주의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레25:24-25, 47-48)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다. 친족이 되기

위해 먼저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그냥 무를 수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벧전 1:18-20).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영과 혼은 구속되지만 그의 몸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완전히 구속된다(빌3:20-21). 또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천년 왕국 때에 구속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

● 구속자(Redeemer)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짓값을 다 치르사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마20:28; 갈3:13; 엡1:7; 딤후2:6; 딤후2:14; 벧전1:18-19; 계5:9).

1. 이 같은 예로 룻4:1-12의 보아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산 상속자인 룻과 결혼하여 그녀의 소유 안으로 들어갔다.
2. 렘32:6-12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리려고 하던 밭을 친족 구속자 자격으로 구매했다.
3. 소유권을 찾으려면 장로들(10명) 앞에서 성문에서 그 일을 해야 했다(룻4:1-12).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Goel)이라 했고 그것을 번역하면 구속자 즉 무르는 사람이다. 여기의 일곱 봉인된 책은 그런 소유권(집의 등기 서류)을 뜻한다(땅에 대한 소유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대한 소유권).
4.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욥19:25-26).
5. 요약: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몸과 땅을 구속할 능력이 없으나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레 25:23-34). 그 친족이 바로 둘째(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이다. 성육신, 자신의 피로 구속 금액을 지불하심(벧전1:18-20).

계5:2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음. 강력한 천사는 누구지 알 수 없다(힘센, 강력한 10:1; 18:21).

계5:3 천상의 존재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봉인들을 뿔 수 없다. 우주 공간의 표현

하늘: 천사의 존재들, 성도들(천주교 성인 천사 마리아 No!), 땅(목사, 신부, 성인, 학자, 교황, 주교), 땅 아래(4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들), 온 우주 공간

왜? 합당하지 않으므로

연다는 말 Open,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는 것

눅24:45

행16:14

계5:4 요한이 크게 운다. 우는 이유 마지막 설명

계5:5 24장로들 중 하나, 유다 지파의 사자(히7:14), 사자: 왕의 통치(창49:8-10)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사11:1, 10, 마1:1), 그분이 이기시고 일곱 봉인을 열 수 있다.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갈보리에서 모든 죄를 당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계5:6 그런데 그 사자가 '죽임당한 어린양'(요1:29)으로 나타난다. (*)

어린양은 짐승이 아니다(7절 He 참조).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드디어 예수님이 구속자로 증언 받을 때가 되었다(딤후2:5-6).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양, 즉 희생물로 피를 흘리신 분

어린양 일곱 뿔(권위) 일곱 눈(모든 것을 살핌), 일곱 완전함을 뜻함

계5:7절 그 두루마리 책은 땅의 소유권, 집 등기 문서

이런 것은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겔2:9-10).

그분이 그 책을 아버지로부터 취하심(단7:13-14)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인류 역사 6,000년, 그 전 영원의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특별한 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 땅을 내 힘으로 통치해야겠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이 지구 통치

첫 번째 등장인물 사탄 마귀, 하늘에서 반역 천사들 3분의 1, 실패

그리고 이 세상의 신으로 타락하였다(고후4:4).

그 뒤에 그는 아담의 타락,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롬 황제들, 칭기즈 칸,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푸틴, 시진핑 등 모두 실패

그리고 결국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등장, 그런 인류와 지구 장악 실패
땅에 대한 권리는 우리 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다. 초리 때 메시아로 오심, 거부됨

이제 자신의 소유를 영원히 찾기 위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분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모든 자들, 사탄 마귀, 마귀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 심판 처단
계시록 5장은 바로 그 일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

천년왕국의 통치자, 철장 권세

4,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르익어 곧 땅에 진노가 퍼부어질 것을 미리 보여 줌

그 심판의 내용이 6-19장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문맥을 이해하면 어느 면에서 가장 쉬운 책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 책(계1:3).

모든 것을 기록하신 뒤 초청(계22:16, 17, 20).

요한이 운는 이유와 주님의 위로(5:4)

계5:4 요한이 울. 구속의 책을 열 수 없으므로, 소유물을 되찾을 수 없으므로

크리스웰의 주석: 요한이 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운 것이다.

아담과 이브, 아벨, 그 이후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모든 창조물들 신음하며
기다린다. 구속자를 못 찾으면 이 땅은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인다.

요한의 울음: 메시아 거부, 처형, 유대인 쫓겨남, 교회 시대의 탄압과 핍박당하고 예측함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으니 답답해서 운다.

복음서, 죽음 앞에서 운는 자들, 나인성 과부 아들(눅7:12-13), 회당의 치리자 딸(눅8:52)

우리는 울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는 능력이 풍성한 분이시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 권세를 누르신 분

바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요한의 눈물을 닦아 주신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 바란다.

10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구속의 은혜

계5:8-14

계1-22장, 세 부분(*)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하늘 문이 열리고(1)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받는 신약 성도들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 왕관을 쓰고 있다가 금 왕관을
벗어서 던짐

그룹으로 보이는 4짐승과 24장로들 하나님 찬양: 창조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9-11)

지난주 5:1-7,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이 책은 땅의 소유권 증서, 우주 공간에 이 책을 펴서
읽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6절 왕좌 옆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땅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다. 구속하려면 땅에 있는 불신자들 심판이 있어야 한다. 6장 이후 7년 환난기 심판
즉 5장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최종 사역인 땅의 구속 개시

오늘 < >,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니(8) 4짐승과 24장로들 어린양 그리스도 찬양: 구속하신
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을 구속하시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어린양이 나오셔서 책을 취하시매 하늘에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짐(8)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클라이맥스

계5:8 8-10절은 구속의 노래이다.

네 짐승과 24 장로: 천상의 존재들 대표, 구원받은 자들 대표

4장의 예배와 5장의 예배의 차이: 4장 창조자 찬양(아버지 하나님), 5장: 구속자 찬양(어린양 그리스도)
찬양이 쏟아지는 이유: 이제 드디어 죄를 심판하고 의를 집행할 때가 되었다.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뒤 1000년 왕국, 창조물의 해방
이들의 경배 모습: 엎드린다(8), 4:10 24장로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과 같다.

즉 어린양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완성 후 승천,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취하심,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승천 뒤에 일어난 일(엡1:20-22)

24장로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 향은 성도들의 기도(8)

구약을 보면 하프는 예배 때 늘 사용하는 악기(시33:2; 71:22, 92:1-4 등)

그런데 대언할 때도 하프가 사용되었다(삼상10:5; 왕하3:15)

그러므로 이들이 하프를 든 것은 성경의 대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 왕국, 주의 날, 천년왕국

금병은 성전과 성막에서 쓰이던 기구, 집중해서 부을 때 쓰는 병(금 향로)

제사장들의 증보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

즉 모든 대언과 성도들의 기도가 곧 성취될 것이다.

계5: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성경 전체를 보면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다(시33:3; 40:3; 96:1; 98:1; 144:9; 149:1; 사42:10;

계5:9; 14:3). 총 9회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9절 상반절). 왕의 왕, 주의 주, 유다 지파의
사자

봉인들을 연다는 의미: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안의 심판들을 집행하신다.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 주님께서 죽음과 피로 우리를 구속함(벧전1:18-19)

구속받은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인종, 피부색

요한의 염려: 2-3장, 교회의 핍박, 순교

그런데 휴거가 되어 나중 세상을 보니 자기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넘쳐남

구속의 도구: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속하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장 중요한 것 피, 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야 한다.

히9: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마제스티 133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찬양 제목은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피의 중요성(레17:11,14)

1. 죄가 없는 피; 가룟 유다의 고백(마27:4; 히4:14-15; 고후5:21). 하나님의 피(행20:28).
2. 깨끗하게 하는 피(요일1:7)
3. 보배롭고 귀중한 피(벧전1:18-19), 유일한 피
4. 썩지 않는 피(시16:10; 행2:27)
5. 필수불가결한 피(히9:22),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 칭의, 화평, 천국이 없다.

계5:10 다른 성경들은 우리를 그들로 바꾸어 버림(계1:6). 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천년왕국 시절에 왕과 제사장으로 땅을 다스린다(계20:6).

계5:11 천사들의 수, 셀 수 없음(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히12:22, 단7:10)

계5:12 천사들의 메시아 찬양,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죽음 찬양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속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구속 노래의 주제

계5:13 모든 창조물 하나님과 어린양 찬양(시150:6)

창조 세상이 모두 주님 찬양(롬8:19-22)

심지어 짐승들도 찬양 발람의 나귀를 보라(민22)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계5:14 네 짐승의 아멘, 장로들의 경배

이제 드디어 땅을 구속할 시간이 되었다.

이 구속의 주인공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일을 위해 6장부터 그분이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된 책에서 봉인들을 떼기 시작하신다.

온 땅에 심판이 부어진다.

환난 전 휴거의 중요성

7년 환난기는 준 지옥, 그때 피하러 하지 말고 지금 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된다. 살전4:16-17

19 일곱 봉인 심판 시작: 7년 환난기와 다니엘의 700이레

계6:1-17

계1-22장, 세 부분(*), 과거 현재, 미래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신약 시대 교회 모형, 영 안에서 휴거받아 하늘로 올라간다.(*)

왕좌, 거기에 앉으신 분, 네 짐승, 24장로(신약시대 교회)(*)

이들이 창조자 하나님 찬양,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 전능자, 영원하신 분 찬양 5장, 일곱 봉인 책(*), 우주 공간에 이 책의 봉인들을 뭇 존재가 없다. 요한이 운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양께서 이 책을 취하신다.(*)

이 책은 땅의 소유권,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마귀에게 넘겨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기시고 소유권을 구속할 때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몸, 땅과 그 안의 모든 창조물

네 짐승, 24장로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 우리의 예상: 이제부터 구속자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하셨으므로 사악한 자들을 땅에서 제거하는 심판을 행하고 땅의 의를 가져와야 함, 바로 그 일이 6장부터 20장까지 진행된다.

오늘 < >, 소유권을 받자마자 친족 구속자이신 그분께서는 봉인들을 떼심으로써 마귀에게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취하기 시작하신다(6장부터).

오늘 교육 설교

계시록의 7년 환난기 구조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릇된 이해: 환난 통과

올바른 이해의 핵심: 계시록은 유대교의 요소가 많다는 것 발견하는 것(404절 중 278절). 3분의 2 예: 간단하게 특히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1. 일곱 교회

2. 일곱 봉인

3. 일곱 나팔

4. 일곱 금병

5. 일곱 인물: 해(sun)를 입은 여인, 용, 사내아이, 천사장,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6. 일곱 심판: 종교적 바빌론, 상업적 바빌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반기독교적인 민족들, 곡과 마곡, 사탄, 이미 죽은 사악한 자들

7. 일곱 개의 새 것: 새 하늘, 새 땅, 새 도시, 새 민족들, 새 강, 새 나무, 새 왕좌
영감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시록 전체에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일곱 날의 창조, 일곱째 날 안식(창조 사역 완성)

창4:24, 라멕의 저주

레23장, 일곱 명절(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마18:21-22

일곱은 완전, 완벽을 가리키는 수, 계시록은 이 수로 가득 차 있다.

이 수 일곱은 진짜 일곱일 때도 있고 상징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성전, 봉인된 두루마리 책, 봉인, 나팔, 금병, 왕좌, 왕과 제사장, 주의 날(1:10) 등 거의 다 유대교 요소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6-7장, 일곱 봉인

8-9장, 일곱 나팔

15-16장: 일곱 금병

순서대로 7년간에 걸쳐 봉인, 나팔,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한다.

봉인 1 2 3 4 5 6 7 → 나팔 1 2 3 4 5 6 7 → 병(대접) 1 2 3 4 5 6 7 (*)

심지어 미국의 대다수 근본주의 신학교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는 성경 신자.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계시록은 유대교 요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형태(*)

봉인	1	2	3	4	5	6	6-7장						
나팔(7번째 봉인)			1	2	3	4	5	6	7	8-9장			
병(대접)						1	2	3	4	5	6	7	15-16장

여섯째 봉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계6:12-13), 환난기 끝

환난기 바로 이후에 비교: 마24:29, 사2:10-12: 주의 날, 율2:30-31

일곱째 나팔(계11:15-19, 비교 10:7)

18절: 시편 2편, 계19:11-21

18절: 보상(마25:31-46)

계10:11, 매우 중요함

두 증인들의 사역의 끝(11:14), 1260일 동안 사역함, 환난기 중간에 사역을 시작함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환난기 중반부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소리는 7년의 끝에 울린다.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즉 계시록에서는 7년 동안의 일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기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6장 적그리스도, 7장 144,000명, 다시 13장 적그리스도, 14장 144,000명,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유연한 자세로 그대로 순서를 따라 가면 된다.

7년 환난기

휴거(살전4:16-18; 고전15:51-53)

환난 전, 환난 후 휴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성도는 환난기를 통과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특히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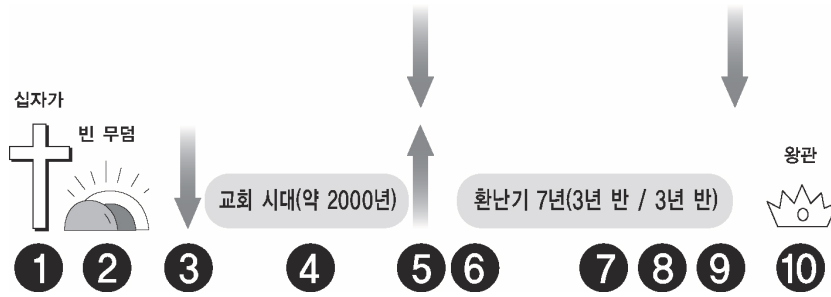
I. 환난기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 C. 환난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9장
- D.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II. 특별한 고통의 때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D.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 E.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
- F.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슌13:8-9).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 G.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I. 이때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펴부어진다.

III. 환난기간: 70째 이레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B.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 + 7일=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6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겔4:6).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들이 이에 동의한다.
- C.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D.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리스도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 E.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 F.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 환난기는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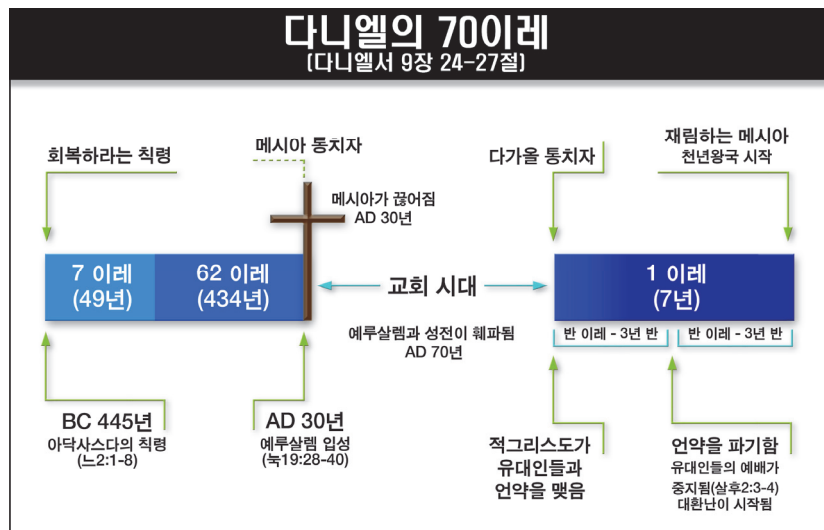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 (단12:4),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2.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H.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요약 결론

우리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벤후3장의 충고



20 일곱 봉인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기

계6:1-17

계시록은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 책이다(1:3). 많은 교회, 목사들 계시록 강해 터부시, 성도들 무지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강해할 사람은 없다.

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편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므로 주어진 배경과 문맥을 보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 성경의 계시는 16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주어짐

성경의 해석 중 재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류 경영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1948년 이전까지, 사실 계시록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 거의 불가능

예를 들어 1. 두 대언자의 죽음, 온 땅 사람들이 기뻐함(계11:10), 2. 계13장의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13:16-17),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 없이 불가능

그러나 지난 74년 동안 큰 변화

1. 이스라엘의 귀환: 1948년 5월, 가장 큰 증거(올리브 산에 오신다, 행1:11)
2. 세상의 지식 급격히 발달(단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3. 그 결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제 정치 가능함
4. 드디어 계시록의 해석 역시 절정에 다다름
5. 어거스틴, 칼빈, 루터,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이들의 후예들, 계시록 해석에 관한 한 무지한 자들, 네로가 적그리스도 주장, 존 맥아더처럼 정직해야 한다(환난 전 휴거, 천년왕국).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글의 형식과 문맥에 따라 문자 그대로

지난주, 계6-19장 전체 구조, 계시록은 3분의 2가 구약 성경과 연관됨, 히브리 묵시 문학 이런 차원에서 7봉인, 나팔, 금병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 (*).

맥아더 주석을 보니 역시 그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오늘 < >, 일곱 봉인 심판, 내용, 전반적인 개요, 성경이 심히 논리적임을 보고 믿으라.

복습, 4장, 하늘로 채여 올라감,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4짐승과 24장로의 찬양(*)

5장, 일곱 봉인으로 봉인 된 두루마리 책(*)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심(*), 땅의 소유권

드디어 6장부터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고 땅에 의를 세우시면서 천년왕국 설립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으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의 7년, 왜 7년인가?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 예언, 마지막 한 이레의 7년(*), 다니엘서와 같이 보아야 한다. 특히 단12:1, 이것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재난들이 닥치는데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다.

6장 전체 구조 및 강해

계6:1 어린양께서 드디어 봉인을 떼기 시작함, 천둥소리 같은 음성, 네 짐승 중 하나(계4:7)

첫째 짐승, 사자

‘와서 보라’(come and see)의 보라가 다른 역본에는 삭제됨(3, 5, 7절도),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니’(I saw)가 나온다.

계6:2 흰 말 탄 자(*), 성경 주석가들이 크게 논쟁을 벌이는 인물,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다니엘의 70이레 중 마지막 이레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천주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리스도로 가르침)

박윤선 박사 등 장로교 주석서, 거의 다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해야 환난 통과 교리 가능해짐 봉인을 떼는 장본인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흰말을 탄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1. 그는 이미 왕이다. 2.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왕국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 등이

가르쳐 온 후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의 핵심

3. 앞으로 일이 점점 더 잘될 것이다(진화론, 인본주의). 4. 우리 힘으로 왕국을 확장해야 한다.
5. 교회가 그리스의 왕국으로서 세력을 확산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 칼빈 등 개혁자들의 주장
6. 이를 위해 WCC 종교통합, UN 등

성경의 판결: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 예수님의 말씀, 노아와 때와 롯의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오래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하신다.

7년 환난기, 세상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심판과 재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극도의 타락

왜 해석들이 다양한가? 주석가들이 혼동하는가? 흰 말을 탄 존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계19:11, 13, 16, 이분은 적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분이 온 이후에 땅에는 1000년 왕국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후로 전쟁, 기근, 사망, 믿는 자들의 순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닥친다.

6:2의 적그리스도, 19:11의 그리스도 차이

1. 19:11의 흰말은 하늘에서 나온다. 6:2는 출처를 모름
2. 19:11의 흰말 탄 자는 많은 왕관. 6:2의 흰말 탄 자는 한 왕관
3. 19:11의 흰말 탄 자는 에리한 겹(19:15), 6:2의 흰말 탄 자는 활
4. 19:11의 흰말 탄 자의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라옴, 6:2의 흰말 탄 자의 뒤에는 사망, 지옥, 기근이 따라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런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일을 한다. 능력도 있다. 모바의 명수, 사람들을 속인다.

1. 예수님의 신부, 도시, 새 예루살렘(계21), 사탄의 신부, 도시, 바빌론(17)
2.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사탄은 빛의 천사(고후11:14)
3. 유다 지파의 사자(계5:5), 울부짖는 사자(벧전5:8)
4. 평화의 통치자(사9:6), 이 세상의 통치자(요14:30)
5. 왕들의 왕(계19:16), 사탄,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욥41:34)
6.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20:28), 이 세상의 신(고후4:4)
6. 둘 다 성경 인용(눅4:), 기록된 바(마귀, 눅4:10)

즉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자이다.

계6:3-4 둘째 봉인, 둘째 짐승은 소(계4:7)(*) 전쟁, 붉은 색(피), 칼(전쟁), 마24:6-7, 살전5:3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함(*)

그래서 2절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세상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계6:5-6 셋째 봉인, 셋째 짐승은 사람(계4:7)(*), 저울, 음식을 다는 기구, 기근, 배급제 시행 일 데나리온(하루치 품삯)에 밀 한 되(노예에게 배급되는 최소한의 양)

보리 석 되, 3인 가족

이것은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 착취, 극도의 빈부 격차, 양극화

기름과 포도즙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 배급,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 착취, 극도의 빈부 격차, 양극화

계6:7-8 넷째 봉인, 셋째 짐승은 독수리(계4:7)(*), 사망과 지옥, 사망과 지옥이 대문자로 의인화 되어 있다. 즉 의인화된 존재, 파멸(죽이는 일)을 전담하는 천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집트의 파멸시키는 천사처럼

9장의 다섯째 천사의 나팔(9:1),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옴(9:3). 10절 사람들을 해침, 무저갱의 천사(9:11)

이 둘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림, 다시 말해 인류의 4분의 1정도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의 재앙은 겔14:21의 재앙과 비슷하다. 이것은 아직 고통의 시작이다(마24:6-8).
지옥도 의인화 되어 있다. 계9:1-13, 무저갱에 있던 존재들이 땅 위로 올라온다(반인반수).
말 그대로 준 지옥 상태

계6:9-11 다섯째 봉인(*), 제단 아래 있는 죽임 당한 자들의 혼(*), 아마도 후반부 3년 반 기간에
순교당해 제물이 된 사람들

혼들이 말을 하고 옷을 입음(눅16장의 부자와 나사로), soulish body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soul(창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안식교 등의 soul sleep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몸이 잠잔다. 혼은 깨어 있고,

이 사람들: 계20:4을 보면 참수형을 당한다. 이슬람 세력의 확장

로마 시대 바울의 증언(롬16:4), 참수형, 아마 바울도 참수형

여기의 제단, 아마도 실제적인 제단, 살후2:3-8, 마24:15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된다(마3:1-2; 마24:9-14). 그 뒤에 끝이 온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특히 유대인들)

계6:12-13 여섯째 봉인(*) 천체들의 변화(마24:29; 행2:17-21; 율2:30-31; 사13:9-10; 사
34:4), 숙14:1-14 참조

계6:14-17 주의 날의 심판(사2:21; 눅23:29, 30) 요엘서 2장

이로써 7년이 다 지나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요19장) (*)

계시록에서는 적어도 네 번 환난기를 보여 준다.

일곱 봉인(6장)

일곱 나팔(8-11장), 11장 15절에서 끝남

여자와 적그리스도(12-14장), 14장 20절에서 끝남

일곱 금병(대접, 15-19장)

요약 결론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우리는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원 받았는가?

벧후3:9-12의 충고

리 계시록의 일곱 봉인 심판과 마태복음 24장 비교 분석

계6:1-17

계시록은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 책이다(1:3). 복이 넘치는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 예언 유무

기독교의 하나님: 역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 History

그래서 성경은 수천 개의 예언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 계시록은 전체가 예언

앞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성경 연구, 계시록 연구,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지난 2주

1. 계6-19장 전체 구조, 계시록은 3분의 2가 구약 성경과 연관됨, 히브리 묵시 문학
이런 차원에서 7봉인, 나팔, 금병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

6장의 일곱 봉인 심판, 내용, 전반적인 개요,

일곱 봉인 책(*)의 봉인을 떼신다.

1. 첫째 봉인(6:1-2), (*) 흰 말과 거기에 탄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 19장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2. 둘째 봉인(6:3-4), 붉은 말 전쟁, 붉은 색(피), 칼(전쟁), 마24:6-7, 살전5:3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함
3. 셋째 봉인(6:5-6), 검은색 말, 저울, 음식 다는 기구, 기근, 배급제 시행
4. 넷째 봉인(6:7-8), 창백한 말, 사망과 지옥
5. 다섯째 봉인(계6:9-11), (*) 제단 아래 있는 죽임 당한 자들의 혼, 아마도 후반부 3년 반 기간에
순교당해 제물이 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특히 유대인들)
6. 여섯째 봉인(6:12-13) (*) 천체들의 변화
7. 주의 날의 심판(6:14-17).

이로써 7년이 다 지나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요19장) (*)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 내가 다시 온다, 친히 재림에 대하여 재림의 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심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장 전체가 재림의 때, 징조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인 계시록이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 >, 마태복음 24장 설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걸려 넘어진다. 마24:29-30(*) 환난 통과 후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성경도 전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후반부 설명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려면 23장까지의 일과 24장이 나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

1.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오셨는가? 당연히 우리, 신약시대 성도, 과연 그럴까?
2.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셨는가, 신약 시대에 사셨는가?
3.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과 성경의 예언을 풀 수 없다.

성경대로 답하기

1. 사도 바울의 말(롬15:8-9) (*)
2. 사도 바울의 말(갈4:4-5) (*)
3. New Testament 마26:28

결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심(히9:16-17) (*)
(*)

예수님 사역의 대상: 거의 100% 구약 시대 유대인

오신 목적: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선포 내용, 사도들의 선포 내용(마 10:5-7) (*)

누구에게만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집에게만, 왕국의 복음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경륜이 바뀌면서 모든 창조물에게(마28, 막16)

이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3년 반 동안 일하셨으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 백성의 무지

종교인들에 대한 매서운 정죄의 말씀(마23 초반부),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8번, 13-16, 23, 25, 27, 29)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37-39절)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거의 우실 상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눅19:41-44)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37). 우리는 어떤가? ★★★

너희 집의 '집'(38): 이스라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존중히 여기는 이 성전도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황폐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떠나신다(24:1).

3년 반의 공생애 마감, 재림하실 것 예고, 다니엘의 70이레(*)

다니엘의 70이레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단12:1; 렘30:7)를 당할 때에야 비로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사 26:12-21)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롬11:26-27; 히8:8-12).

스가라서 13장 8-9,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시118:26)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한다.

그분의 재림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AD 70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전(집)은 지어지지 못한다.

1948년 5월 독립, 1967년 6월 예루살렘 탈환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다.

어느 정도로 불신과 무지가 큰가?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난이 예고되어 있다.

주변국들의 질투, 도와주던 국가들의 기권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슥12:10-13:1).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멈추어짐(롬11:1, 25-27) (*)

마24:1-3 매우 중요함:

1-2절, 성전의 황폐함

제자들의 질문

1.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2. 주님의 재림의 표적은 무엇인가?, 3.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인가?

천주교 어거스틴, 칼빈주의자들,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 마24의 모든 일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일부는 맞는다. 성전의 황폐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셨는가? 세상의 끝이 왔는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것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매우 쉬운 문제이다. 그러나 칼빈주의 등의 틀이 눈을 가로막아 보지 못한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첫째 봉인: 적그리스도, 마24:4-5, 계6:1-2, 이 중에 하나 전 세상을 다스리는 자 등장함
그런데 그는 활만 들고 있지 화살은 없다(6:2). 즉 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세상을 손아귀에
넣는다. 이스라엘과도 7년 평화 조약, 세상과도 평화 조약, 평화 무드(단8:25)
그런데 평화가 깨진다. 3년 반 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행세(살전5:3)

둘째 봉인: 전쟁, 마24:6-7, 계6:3-4

셋째 봉인: 기근, 마24:7, 계6:5-6

넷째 봉인: 사망과 역병, 마24:7-8, 계6:7-8

다섯째 봉인: 순교, 마24:9-13, 계6:9-11

마태복음 24장의 대상은 100% 유대인들이다. 24:9, 15의 너희는 100% 유대인
13절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라 환난기 끝이다.

이때에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됨(마24:14): 은혜의 복음(교회의 복음)이 아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 주님의 재림의 표적은 무엇인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마24:15, 단9:27

대환난: 마24:16-22, 단12:1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인가?

여섯째 봉인: 천체들의 변화, 마24:29-30, 계6:12-17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설립, 들어갈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는 구분(마25:31-46)

이로써 왕국이 1000년 동안 세워짐(계20장, 6번의 천 년, 2-7절)

요약 결론

마24:29-30, 환난 통과 후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은 휴거가 아니라 지상 강림(*)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7년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휴거와 지상 강림은 완전히 다르다.

계시록과 마태복음 정확히 일치한다.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계1:3).

우리는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았는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예언의 하나님을 믿는가?

22 144,000명의 정체와 환난기 성도들

계7:1-17

계시록은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 책이다(1:3).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다. 복이 넘치는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목사의 직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행20:27).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겔2).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오늘도 이런 명령에 따라 묵묵히 연이어서 계시록 7장을 강해하려 한다.

지난주,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비교, 거의 동일한 순서

1. 첫째 봉인(6:1-2), (*) 흰 말과 거기에 탄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 19장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2. 둘째 봉인(6:3-4), 붉은 말 전쟁, 붉은 색(피), 칼(전쟁), 마24:6-7, 살전5:3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함

3. 셋째 봉인(6:5-6), 검은색 말, 저울, 음식 다는 기구, 기근, 배급제 시행

4. 넷째 봉인(6:7-8), 창백한 말, 사망과 지옥

5. 다섯째 봉인(계6:9-11), (*) 제단 아래 있는 죽임 당한 자들의 혼, 아마도 후반부 3년 반 기간에 순교당해 제물이 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특히 유대인들)

6. 여섯째 봉인(6:12-13) (*) 천체들의 변화

7. 주의 날의 심판(6:14-17). 16017 드디어 주님의 진노 인정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

이로써 7년이 다 지나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요19장) (*)

계시록은 구조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오늘 < >, 7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4,000명(4), 2. 큰 환난에서 나오는 무수한 성도들(9, 14절), 이들은 누구인가? 오늘도 교육 설교

144,000명의 유대인들

계시록 7장은 괄호 부분이다. 봉인이 없다. 원래는 6장의 6개 봉인 심판이 끝나고 12-17절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 7년 환난기가 끝난다. 그 뒤에 8장 1절의 일곱 번째 봉인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면서 7개 나팔 심판이 진행된다. 그래서 7장은 6-8장 사이의 괄호 즉 7장은 6개의 봉인이 열릴 때, 특히 후반부 3년 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어떤 일을 수록한다.

계7:1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2000년 전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됨, 네 바람도 마찬가지로 네 바람은 종종 심판의 표징(렘49:36, 단7:2)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 잠시 유예, 엄청난 힘을 보여 준다.

계7:2-3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짐, 인은 도장을 찍는 반지 같은 것

과거에 왕이나 직무 수행자들 이런 도장 소유, 직인, 소유권, 안전 보호 등 표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 죽어 있는 우상들이 아니다.

다른 천사,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을 것이다. 봉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땅, 바다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봉인하다: 밀봉(密封)한 자리에 도장을 찍다.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봉투에 넣어 감독자가 봉인한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4-8절까지 나오는 144,000명,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계7: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읽어야 한다. 정상적인 해석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10지파), 남왕국 유다, 10지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12지파는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존재하였다(행26: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성경을 영해하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파멸한다.

144,000명: 안식교, 몰몬,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들의 애용 구절

이사야서 동방의 독수리: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사46:11), 하나님의 교회

이 일은 언제 생기는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 7년 환난기 어느 시점

이런 것을 왜곡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특징: 행위 구원, 교단이나 교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끝없는 행위 요구, 구약의 절기, 날 등 준수 요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음(겔9:1-8). 9:4, 6절 매우 중요함, 보호, 안전, 구별을 뜻함

144,000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여호와)으로 마크를 받음(계14:1)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말이 나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사43:10, 12 44:8 등)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말의 의미: 우리는 유대인이다. 구약 유대인들의 절기, 날 등을 지킴, 안식교,

신천지: 성도들을 12지파로 분류한다. 정말로 가증한 일이다.

144,000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남은 자들(하나님이

남겨 두신 자들)이다(왕상19:18; 롬11:4-5).

크리스천 아니다. 여중, 아니다, 안식교 아니다, 신천지 아니다.

여기의 144,000명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의 봉인은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고 천사들의 봉인이다. 엡1: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봉인은 구분하기 위한 표식

이와 비슷하게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도 이마에 666 표를 받는다(계13:16-18). 16절

계7:5-8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유다에게서 메시아, 가장 먼저 언급됨(대상5:1)

요셉: 므낫세(6절)와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 대신 요셉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우상숭배의 온상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 지파 에브라임은 극도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호4:17).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단 지파 대신 레위가 들어감. 원래 레위는 12 지파 분류에 속하지 않고 13번째 지파이다.

단도 극도의 우상 숭배에 빠짐.

신29:17-21: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늘에서 이름이 지워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마리 중 하나는 단에(단 지파), 하나는 벧엘에(에브라임 지파) 세움(왕상

12:25-30). 29절

에브라임의 아비 종교

삿17:1, 미가, 우상 숭배, 아비 종교(삿17:7, 10), 제사장, 아버지 천주교 시스템, 마23:9

아합 시대, 온 이스라엘 바알 숭배, 에브라임과 단

삿18:30-31, 단 지파 제사장들의 악행

겔48:1-7(2절 단, 6절 에브라임), 23-29에서는 천년왕국(땅에서)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상속을

가짐을 보여 줌.

결론: 이 두 지파는 환난기 때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두 지파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환난을 통과함.

144,000명이 하는 일, 마24:9, 13-14, 왕국의 복음 선포, 계12:17

이들은 환난기 통과, 끝까지 견디는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우상 숭배자로 낙인찍힌 단과 에브라임은 환난기 중에 복음 선포 불가

환난기 성도들

계7:9 요한은 환난기 성도들을 셋째 하늘에서 봄, 이들은 144,00명과 다른 둘째 그룹, 이방인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

초대 교회 이후로 곳곳에 복음 선포, 종교 개혁 수많은 사람들 구원

여기의 표현에 따르면 어쩌면 환난기에 구원받는 자들이 가장 많을지도 모름

이들은 순교당한 자들(계6:9, 11), 다섯째 봉인, 죽임 당한 혼들

아마도 이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역할(사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계7:10-12 이들이 셋째 하늘에서 어린양을 찬양함. 또 장로들, 네 짐승, 왕좌, 천사들(계4:1-7)

계7:13-14 장로 중 하나 질문, 대답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환난이 아니다(행14:22)

특별한 환난, 마24:21, 단12:1의 큰 환난

큰 환난은 AD70년의 환난이 아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표시, 어린양의 피로 희게 됨,

이 환난이 끝나면 주님의 지상 재림(마24:29)

계7:15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하늘의, 계11:19, 15:5-8, 16:1)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현재 성령님의 전(temple)이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하늘에서 내려온다; 계21:2)에 가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계21:22).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고후 11:1-4, 엡5)는 새 예루살렘이라 불린다(계21). 그러므로 여기의 환난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될 수 없다.

계7:16 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이들은 순교한다.

계7:17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 주신다. 나중에 계21:4에서도 닦아 주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백보좌 심판)이 있는 뒤에 생긴다(계20:12-15).

기억해야. 환난기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구분, 심판, 이들에 대한 심판 마25, 양과 염소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적어도 인구의 3분의 1(슥13:8-9), 롬11:26 완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장 참혹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3:16-4, 2, 5-6

노아, 롯, 라합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아이들이 살 세상은 험악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살전1:9-10

그리고 환난 전에 데려가신다.

23 크고 두려운 주의 날과 일곱 나팔 심판

계8:1-13

계시록은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 책이다(1:3).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다. 읽으면 복이 되는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나도 강해하게 돼서 기쁘다.

지난주, 계시록 7장, 144,000명,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7:4). 유대인 신천지 등의 영해에 빠지면 안 된다.

지난 몇 주에 걸쳐 7년 환난기, 환난기의 구조, 일곱 봉인 심판

오늘 < > 주의 날, 일곱 나팔 심판 중 8장의 네 나팔

계시록의 7년 환난기 구조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릇된 이해: 환난 통과

올바른 이해의 핵심: 계시록에 유대교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404절 중 278절). 3분의 2 계시록에는 성전, 봉인된 두루마리 책, 봉인, 나팔, 금병, 왕좌, 왕과 제사장, 주의 날(1:10) 등 거의 다 유대교 요소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6-7장, 일곱 봉인

8-9장, 일곱 나팔

15-16장: 일곱 금병

순서대로 7년만에 걸쳐 봉인, 나팔,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한다.

봉인 1 2 3 4 5 6 7 → 나팔 1 2 3 4 5 6 7 → 병(대접) 1 2 3 4 5 6 7 (*)

심지어 미국의 대다수 근본주의 신학교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는 성경 신자.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계시록은 유대교 요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형태(*)

봉인	1	2	3	4	5	6	6-7장				
나팔(7번째 봉인)				1	2	3	4	5	6	7	8-9장
금병										1234567	15-16장

여섯째 봉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계6:12-13), 환난기 끝

일곱째 나팔(계11:15-19, 비교 10:7)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

7년 환난기 맨 끝 부분의 일곱 금병의 집중적인 심판

즉 계시록에서는 7년 동안의 일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기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6장 적그리스도, 7장 144,000명, 다시 13장 적그리스도, 14장 144,000명,

일곱 나팔 심판

계8:1 이제 다시 환난기로 돌아간다. 나팔 심판(8-11장), 후반부 3년 반

반시간쯤 고요함. 큰 진노의 준비, 후반부 3년 반 큰 환난 시작 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지금까지 다양한 소리들(4:5, 8, 11), 합2:20, 습2:13

계8:2-3 하늘에서의 광경, 금향로, 제단, 왕좌, 성전(7:15), 하늘의 성전(계11:19)

이것들은 하늘의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킨다(히8:5), (*), (*)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계21:22).

금 제단: 향을 드리는 제단, 분향 제단 (출37:25-28) (*) 1, 1, 2 큐빗(45 45 90)

눅으로 된 번제단과 다르다(출38:1-7, 히9:4). 5, 5, 3 큐빗

나팔

나팔: 전쟁과 예배를 위해 백성을 모으는 일에 사용됨(민10:2, 9), 양각 나팔이 아니라 은나팔, (*)

명절(민10:10), 희년, 장막절과 같은 명절을 알리는 데 사용됨, 습1:14-16 주의 날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나팔(마24:29-31), 일단 나팔은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일곱 나팔 중 처음 네 나팔, 지구의 생태계 변화

다음 2개 나팔; 인류의 파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7년 환난기 종결(계10:7),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계11:15-19)

바로 전에 7개 금병 심판(15-16장)

금향로, 구약 시대 제사장들, 하루에 두 번 늦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 제단으로 옮김(출30:7-8, 레10:1, 16:12; 대하26:19) (*)

눅1:8-10,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향을 드림, 백성들 밖에서 기도

계8:4-5 (환난기) 성도들의 기도(계6:9-10), 그 기도가 응답됨.

성도들의 기도는 향과 같다. 기도는 기억된다(행10:2-4)

응답: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4:5; 8:5; 11:19; 16:18)

지구 생태계의 황폐화와 주의 날

현시대 사람들 환경 보호, 오존층, 지구 온난화, 아마존 정글 보호,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자기 건강보다도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이 많다.

우상 숭배, 어머니 지구 보호 (*)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다(창2:15).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그런데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멸하시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지구 생태계 전체가 순식간에 망가진다.

사실 천년왕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땅과 하늘을 불태우신다(벧후3:10).

물론 땅은 영원하므로 없어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난다(계21:1 이하).

이러 일이 일어나는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한다.

이런데 나오는 '날'은 하루를 말하지 않고 기간을 뜻한다.

주의 날, 주님이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날

지금은 사람의 날이라 할 수 있다. 혹은 사탄의 날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총 주제 중 하나인 주의 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총 24), 말4:1,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수가 말하노라.

4:5,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인간의 뜻, 사탄의 뜻을 전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심판을 집행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때

주의 날: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8:1의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

사람들의 안도, 그런데 갑자기 4절의 재앙, 아마도 이 반 시간에 144,000명의 봉인(7:2-3) 이제부터 나오는 나팔 심판들은 인류 역사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중 4개의 심판

계8:6-7 첫째 천사, 나무의 1/3과 모든 푸른 풀이 탄다. 그 당시 존재하는 푸른 풀, 9:4, 다섯째 천사, 풀, 다시 생긴 풀

1. 우박은 대개 심판의 상징(출9:13-25; 욥38:22-23 등)

2. 불에 피가 섞인 것,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여기도 주의 날(을2:30-31)

엄청난 재앙, 함당한 재앙(롬1:18, 21, 25),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은 죄의 결과

계8:8-9 둘째 천사의 나팔

첫째 천사, 땅 심판, 둘째 천사 바다 심판

바다: 각종 양식거리, 산소 제공, 사람들의 무감사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함
큰 산이 아니라 산 같은 큰 것이다. 아마도 커다란 유성, 바다는 온 세상 바다 혹은 지중해. 바다의
1/3이 피가 됨,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지더라. 쓰나미로 인한 배들의 피해, 해안가 사람들의 피해

계8:10-11 셋째 천사, 썩(신약 1번, 구약 7번), 독, 죽음 등 상징, 물의 1/3

강과 강의 물

마라의 기적, 쓴 물을 단물로(출15:25), 여기 단물을 쓴물로
계속해서 3분의 1,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것이다.

계8:12 넷째 천사

이미 이 세 가지 심판으로 지구 생태계는 전적으로 황폐하게 됨

넷째 심판: 땅에서 하늘로 초점이 바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분주함.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남

출2:30-31,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2:31)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계6:12, 환난기의 마지막 부분, 눅21:25-28, 해, 달, 별들의 1/3

타격을 받는다는 말은 재앙으로 타격을 받아 재앙이 되었다는 말이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이집트에서의 9번째 재앙과 비슷하다(출10:21).

그 결과 온도의 하강, 기후 변화, 파도의 변화, 농작물 재배 타격

일월성신의 변화, 하나님의 재앙(사13:9-10, 겔32:7-8; 출2:10, 31, 눅21:25))

계8:13 세 가지 화,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이다.

화라는 말,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있을 세 개의 나팔 심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한다(13:8, 12, 14; 17:2, 8).

결론

이런 놀라운 현상들, 무서운 일들, 144,000명의 온 세상 복음 전도

대다수 사람들 거부(계9:20-21; 16:9, 11)

이것은 인간사에서 지속되는 현상이다.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환난기

요3:18-20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요1:9-13

회개해야 한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된다.

히3:7-8,

지금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이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아야 할 때이다.

계24 마지막 나팔 소리와 환난 전 휴거:
왜 7년 환난 통과는 말이 안 되는가?

고전15:51-52

지금까지 23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특히 지난 몇 시간, 계시록의 7년 환난기 구조

계시록의 7년 환난기 구조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릇된 이해: 환난 통과
올바른 이해의 핵심: 계시록에 유대교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404절 중 278절). 3분의 2
계시록에는 성전, 봉인된 두루마리 책, 봉인, 나팔, 금병, 왕좌, 왕과 제사장, 주의 날(1:10) 등 거의
다가 유대교 요소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6-7장, 일곱 봉인

8-9장, 일곱 나팔

15-16장: 일곱 금병

순서대로 7년간에 걸쳐 봉인, 나팔,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한다.

봉인 1 2 3 4 5 6 7 → 나팔 1 2 3 4 5 6 7 → 병(대접) 1 2 3 4 5 6 7 (*)

심지어 미국의 대다수 근본주의 신학교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는 성경 신자.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계시록은 유대교 요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형태 (*)

봉인 1 2 3 4 5 6 6-7장

나팔(7번째 봉인) 1 2 3 4 5 6 7 8-9장

금병 1234567 15-16장

여섯째 봉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계6:12-13), 환난기 끝

일곱째 나팔(계11:15-19, 비교 10:7)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

7년 환난기 맨 끝 부분의 일곱 금병의 집중적인 심판

즉 계시록에서는 7년 동안의 일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기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6장 적그리스도, 7장 144,000명, 다시 13장 적그리스도, 14장 144,000명

가장 중요한 것 2중 하나, 환난 전 휴거 오늘 < > 마지막 나팔 소리의 의미

환난 전 휴거에 대한 확신

성경대로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7년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3장 10절은 분명하게 이를 약속한다.

1.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계3:10).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5:9).

3.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관해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10)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살전1:9-10).

7년 환난기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무서운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며 통과할 사람도 단 하나도 없다. 초대 교회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대로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를 믿었다.

마지막 나팔 소리(고전15:51-52)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에는 환난전 휴거와 상치되는 듯한 말씀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전15:51-52).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소리는 7년 환난기의 끝에 울린다. 이러면 환난 통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의 몸이 변하는 때에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가르쳤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성도들이 함께 땅에서 들려서 - 휴거되어 -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가르쳤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며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 역시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므로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결론지을 수 있으며 아마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휴거와 관련한 살전4:16-17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당연히 고전15:52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점

교회의 휴거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사실은 '환난전 휴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환난전 휴거관은 교회의 휴거가 7년 환난기 전에 일어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반드시 환난기 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계시록 8-11장은 7년 환난기 후반부 3년 반에 일곱 나팔이 울린다고 말하며(사실임) 또 예수님께서도 7년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에 - 즉 일곱 나팔이 다 울린 이후에 - 친히 땅에 강림하실 때에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9-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마24:29-31).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7년 환난기 전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가 의도한 것과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단순히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한 점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명히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들이 이미 소유한 성경 기록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것이거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에서 가르친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혹은 그것이 그 당시의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것이거나 로마 제국에서 흔히 행하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들 주변의 유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유대교의 믿음이나 실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것

만일 누군가가 ‘마지막 나팔 소리’의 ‘마지막’(last)이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면 - 다시 말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나팔 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이나 혹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 전체가 ‘마지막 나팔’임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에 분명히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마24:29-31). 그런데 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분명히 일곱 나팔이 다 울린 뒤에 그분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울릴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이후의 나팔이다. 즉 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둘째로, 스가랴서 14장 16-19절은 천년왕국 내내 장막절이 매해 지켜질 것을 보여 준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 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슌14:16).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알 수 있듯이 장막절을 지키는 때는 항상 나팔 소리가 울린다. (*) 명절(민 10:10), 희년, 장막절과 같은 명절을 알리는 데 사용됨, 천년왕국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이후에 시작되며 따라서 장막절의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이후에 있을 것이다. 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을 언급한 뒤 30-40년이 지나서야 요한의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았을 때에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 혹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그가 말한 ‘마지막 나팔소리’가 자기들이 아직 들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를 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전15:52에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지 못한 계시록의 일곱 나팔 혹은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결코 그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일곱 나팔 모두(즉 복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전15:51과 살전4:16에서 그는 단 하나의 나팔만을(즉 단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나팔 소리 - 즉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있을 수 없는 - 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다른 의미의 나팔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고대의 나팔 소리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나팔 소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사용하셨다. 출19:10-20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뵈 때 나팔 소리가 울렸음을 알 수 있다.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갔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셨더라. 주께서 시내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므로 모세가 올라가매(출 19:18-20)

한편 로마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용도로 나팔을 사용했다. 그들은 황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모을 때 나팔 소리를 사용했다. 이것은 보통 ‘클래시킴’(Classicum)이라 하는데 그 기능으로 인해 이것은 ‘황제의 나팔 소리’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고대에는 적들을 놀라게 하거나 다가오는 심판 혹은 위협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사용했다. 성경에도 이런 용례들이 여러 번 나온다(렘4:19-21; 6:1;

겔33:3-6; 암3:6 등).

고린도후서의 문맥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이다(15:53-55).

둘째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마지막' 것에 대해 언급한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사망 26절), 마지막 아담(그리스도 45절), 마지막 나팔 소리(52절).

셋째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가 대비되어 있다. 바울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42), 수치와 영광(43), 약한 것과 강한 권능(43),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44),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하신 분(47),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등을 대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키면서 첫 아담을 통해 육체의 죽음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몸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을 것을 보여 준다(20-22절, 45, 54, 57절).

넷째로 사도 바울은 고전15:56에서 죄로 인해 사망이 생겼으며(롬5:12-19) 사망을 일으키는 죄의 힘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임을 보여 주고 있다(롬4:15; 5:13, 20; 7:7-13).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있을 때 울리는 살전4:16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고전15:52의 '마지막 나팔 소리'임을 살펴보았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살전4:16) 이것은 곧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 당시 황제들이 백성을 모을 때 사용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다. 황제의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이 황제가 있는 곳으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성도들이 휴거되어 그리스도(하나님)가 계시는 공중으로 함께 모일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을까?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가지가 대비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 예를 들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등 - 그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대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대비는 대부분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역시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 그리고 사망의 패배를 대비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이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대비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용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나팔 소리의 용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나팔 혹은 나팔 소리가 가장 처음 언급되는 곳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10-20절이다.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갔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셨더라. 주께서 시내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므로 모세가 올라가매(출 19:18-20)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 하시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린 것이다. 이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의 율법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출 19:3-8; 20:1-18).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나팔 소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났으며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와 고린도전서 15장의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죄가 사망을 불러왔고 사망을 불러일으킨 죄의 힘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임을 살펴보았다(55-5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산에 다가와 그 산에 닿기만 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출19:12-13, 21-25). 바울은 율법이 진노를 이루며(롬4:15) 또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이루고(롬7:5, 13) 또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고(고후3:6) 분명히 말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참으로 율법은 죽음과 정죄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고후 3:7-9).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하였으며 또 그 율법이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힘이 되면서 사망의 직무를 감당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의 목적이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로써 사망의 직무를 시작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 12:18-21).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의 목적이 백성을 공중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불러 모으고 이로써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의 부활과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와는 전혀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 울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사망)이 끝나고 그 직무가 폐지된다. 또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고대의 나팔 소리의 또 다른 목적 즉 적을 두렵게 하거나 혹은 다가오는 위협이나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는 것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망의 직무의 시작을 알렸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한 것이다. 그가 이것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한 것은 그 나팔 소리 이후에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이 '첫 번째'의 반대가 되므로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 한 것이다. 이 나팔 소리는 교회의 휴거 때에 울릴 것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공중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칼드웰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준다.

우리는 고전15장에서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에 대해 읽는다. 그러므로 여기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즉 정죄와 사망의 직무가 시작되었을 때에 울렸던 나팔 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그것은 한 마디로 정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부활과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저주를 선포했고

그 무섭고 큰 소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복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그 소리가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죽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일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다.

레날드 샤우어스(Renald Showers, 1935-2019)의 「마라나타」(Maranatha: Our Lord Come!)에서 (*), 델러스 신학교 Friends of Israel

왜 휴거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면 안 되는가?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 7년을 다 통과하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들을 휴거시키시고는 바로 그 순간 그들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땅에는 누구만 남는가? 불신자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셔야 할 일, 악한 자들 심판해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마25장 41절의 염소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악한 자들은 100% 죽는다.

그러면 누구만 땅에 남는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몸이 변화기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할 자들, 즉 육신을 입은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게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시록 20장, 1000년 왕국, 마귀가 무저갱이 갇힘, 사람들이 번성하여 나중에 1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풀려나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대적해야 함(계20:7-9)

그런데 7년 환난기 끝에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악인들을 모두 죽으면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한 명도 없음

그래서 7년 환난기 통과는 말이 안 된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결론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시간 면에서 최종적인 나팔을 뜻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이후 30-40년 뒤에 계시록이 기록됨

15장은 전체가 처음과 마지막을 대비해서 보여 준다.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원수는 사망

그러면 여기의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과 대비되는 의미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다.

첫 번째 나팔: 율법과 사망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용함

마지막 나팔: 율법과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용함

7년 환난기 통과 후 휴거: 천년왕국 거주자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계25 대환난기에는 지옥문이 열리고 마귀들이 쏟아져 나온다

계9:1-21

지금까지 24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4장부터 19장, 7년 환난기,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교회는 환난 전 휴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순서대로가 아니다.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일들이 여러 각도에서 반복된다.

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는가?

1. 복이 되는 말씀이다(계1:3).
2.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주시는 경고를 듣기 위함이다(계2:7).
3.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마24:42). 모르면 깨어 있을 수 없다.
4.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함이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

지난주부터 8-9장의 일곱 나팔 심판, 후반부 3년 반

8장, 처음 4개 나팔, 지구 생태계의 파멸, 3분의 1이 파멸되는 심판

1. 계8:6-7 첫째 천사의 나팔, 땅 심판, 나무의 1/3과 모든 푸른 풀이 탄다. 땅 심판
2. 계8:8-9 둘째 천사의 나팔, 바다 심판, 엄청난 규모의 유성이 바다에 떨어짐
3. 계8:10-11 셋째 천사의 나팔, 죽음의 상징인 썩, 강과 물의 1/3이 황폐화됨
4. 계8:12 넷째 천사의 나팔, 땅에서 하늘로 초점이 바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온도의 하강, 기후 변화, 파도의 변화, 농작물 재배 타격
5. 계8:13 세 가지 화가 더 온다,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의 나팔 심판, < >, 대규모의 인류 파멸 심판, 지금까지 이 땅에 한 번도 없던 규모로 지옥의 마귀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고 파멸한다. 이럼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회개해야 한다. 계2-3장의 성령님의 증언, 회개하라.

다섯째 나팔: 지옥에서 마귀들이 쏟아져 나옴

9:1 다섯째 천사, 성경에서 별은 인격체 특히 천사를 가리키기도 한다(계12:4). 여기서는 이런 의미

지하 세계 지옥 설명

1. 바닥없는 구덩이,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5)
땅의 중심부에 옆면만 있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다.
2. 눅8:26-36,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 군대 마귀,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31절). 아부쓰스

지하 세계 그림 설명, 지옥, 낙원

지옥(Hell)은 '스올'이라는 히브리말과 '하데스'라는 그 리스말을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
16:10; 사14:9; 겔31:16; 눅16:23).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 땅 속에 있었다. 누가복음 16장 20-31,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의 의미로서의 지옥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지옥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 1. 넓은 의미: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지하 세계(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행2:27, 31, 행16:10), 2. 좁은 의미: 지하 세계 그 부분의
뜨거운 불꽃이 있는 장소, 대두분이 이런 의미의 지옥

누가복음 16장의 낙원과 지옥(좁은 의미의 지옥), 구렁텅이 설명(*)

1. 부자는 지하 세계의 지옥 부분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23-24).
말도 하고 보고 느끼고 다한다.
2.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안식하고 있다(22).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3). 이곳은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한다(마

12:38-40). 즉 땅 속의 한가운데 있다.

3.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gulf)가 고정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26).
4. 다른 장소가 하나 더 있다. 타르타로스(벤허2:4, 유6), 창세기 6장의 천사들이 가서 갇혀 있는 곳
5. 지학 시간: 지구의 구조, (*)
0 km — 지표. 0 ~ 30-35 km — 지각. 6-35 ~ 2,891 km — 맨틀. 2,891 ~ 6,371 km — 핵(외핵, 내핵). 추측 온도(溫度)는 5,100~5,400℃ 정도이고 압력(壓力)은 330~360Gpa이다. 맨틀, 땅의 맨틀, 그 밑의 뜨거운 용암 최하단의 온도는 4,400℃, 용암의 분출 (*)
6.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엡4:8-10). 이것은 구약성도들의 부활이 아니라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들의 부활은 7년 환난기가 끝나는 때에 이루어진다(사26:18-27:1).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등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셋째 하늘의 낙원에 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낙원에 대해 기록했다(고후12:2-4).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끌려 올라갔다.
7. 요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신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가지만(빌1:23; 고후5:8)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으며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 불린 지하 세계에서 큰 구렁텅이(혹은 무저갱)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거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눅16:19-31). 삼상28:14,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온다.
8. 땅속의 저 지옥은 1000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크고 흰 왕좌 심판 이후에 궁극적으로 불 호수에 던져진다(계20:14-15).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살 불 호수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의 위치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계19:20; 20:14).
9. 눅8장에서 마귀들이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곳은 깊음이다(아브소스). 이 깊음은 땅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바닥없는 구렁텅이(무저갱). 오늘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마귀들이 땅으로 쏟아져 나온다.
- 11 우리말 성경들은 54회의 지옥 중 반 이상을 '스올'로 음역해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개역성경 잠15:11; 27:20 참조). 샬머니즘

메뚜기들이 쏟아져 나옴

- 계9:2-3 이상한 메뚜기들(초자연적인 존재들), 왕이 있다(11절).
계9:4, 계7:3-4 이후에 인이 없는 자들을 해침
계9:5 5달 동안 고통을 줌. 전갈이 쏘는 고통
계9:6-10 괴물들, 여러 가지가 혼합된 존재들: 말, 사람, 여자, 사자, 흉갑, 날개(9절), 꼬리(10절), 꼬리의 침,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침 (*)
을2:4-10(4절, 영적 존재들, 주의 날), 을2:31 참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계9:11 왕은 무저갱의 천사이다. 계6:8의 사망의 천사, 사탄이 아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여섯째 나팔: 인간의 3분의 1이 죽음

- 계9:12 한 가지 화가 지나가고 이제 2개가 더 온다.
계9:12-16 이제 환난기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계9:13,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

계9:14, 여섯째 천사,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 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계9:15, 네 천사가 어느 시점에 인간의 3분의 1을 죽임, 이미 인간의 4분의 1이 죽음, 넷째 봉인,
창백한 말(계6:8), 4분의 3, 3분의 1=4분의 1, 합계 총 환난기에 적어도 인류의 2분의 1이 죽음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계16:12).

왕들이 2억 명의 기병들을 이끌고 동쪽에서 온다(계16:12).

유프라테스(14절): (*) 과거에 사탄의 자리가 있던 곳, 니므롯(창10:8-11), 바벨탑, 바빌론
계시록의 끝에 다시 바빌론이 등장한다(17-18장).

15절: 정해진 날이 있다.

계9:17-19 기병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보인다.

왜 마귀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6-39). 여기의 날은 시대나 기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1-4,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종족인 거인들을 생산함
주님의 말씀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

단2:40-44, 마지막 세상 왕국 넷째 왕국의 끝에 사람들의 씨와 자신을 섞는 자들 등장, 하이브리드
생산(43), 그 뒤에 천년 왕국(44) (*)

이 일은 계시록 12장 7-9, 13,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 마귀와 그의 천사들 3분의 1일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서 발생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종합 정리

1.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악한 천사들, 여인들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생산
2. 무저갱에서 풀려난 메뚜기 같은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힘
3. 유프라테스에서 2억이나 되는 기병들, 이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이때에 땅은 북마전이 된다. 북마전: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Pandemonium. 존 밀턴의 서사시 《실낙원》에 등장하는 마귀 소굴로 지옥의 수도이다. (*)

사람들의 반응

계9:20-21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 120년 선포,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환난전 휴거의 소망

우리 아이들, 손자손녀들이 살 세상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마6:13).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 전 휴거의 소망이 있다.

이런 북마전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이들도 손자 손녀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26 하나님의 신비를 완성하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

계10:1-11

지금까지 25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4장부터 19장, 7년 환난기,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교회는 환난 전 휴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순서대로가 아니다.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일들이 여러 각도에서 반복된다.

지난 두 주, 8-9장의 일곱 나팔 심판, 후반부 3년 반

8장: 1, 2, 3, 4 나팔(지구 생태계의 변화), 특징 3분의 1이 파괴됨

9장: 5, 6 나팔(지옥문이 열리고 메뚜기들 등장, 남아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 이로써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죽음)

그럼에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9:20)

이제 한 가지 화가 남았다. 일곱 번째 나팔(11:15)

오늘 < >, 하나님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간(Interlude)을 이용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의 딜레마

왜 하나님이 세상 속에 악을 허용하셨을까? 종종 사악한 자들이 잘된다. 극악무도한 죄가 세상에서 난무한
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공산주의 같은 죄

왜 하나님은 이런 부패와 혼돈과 혼동을 방치하실까? 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그냥 두실까?
언제나 사악한 일들, 사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까?

1. 욥의 표현(12:6), 강도들의 장막들은 변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주시는도다. 21:7,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2. 시10:1-5

3. 시74편 아삽의 시, 10-11, 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어느 때까지 모욕하리이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4. 예레미야의 탄식(렘12:1-2),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판단들의 공의에 대해 주께 말씀드리려 하나이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순탄하니이
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이 있으나 그들의 속 중심은
멀리 있나이다.

5. 환난기 성도들(계6:10)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공의를 세우실 날이 온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이루어지는 날(10:7)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고 쇠막대기(철장)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날(시2:9)

이로써 온 세상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 한 날(사11:9)

하나님을 반대하며 조롱하는 모든 자들이 침묵하는 날(벧후3:3-4)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되는 날(계20:1-3)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이 멈추는 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날(사65:20)

모든 짐승들이 초식을 하는 날(사65:25)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바로 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계11:15).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일곱 개 금병이 쏟아질 것이다(계16:1-21).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막간 괘호가 있다(10:1-11:14)

후반부 3년 반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 주는 부분

6장, 여섯 봉인, 그리고 8장 1절로 가야 한다. 그런데 7장이 괄호(막간)로 들어 있다. 7장에는 봉인이 없다.

7장과 마찬가지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괄호(막간)이다.

일곱 번째 나팔: 11장 15절-19절

8-9장 나팔 소리, 그러나 10장에는 나팔 소리가 없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이 비슷하게 진행된다. 1-6, 브레이크, 7

차이: 일곱 봉인 7년, 일곱 나팔 후반부 3년 반

재미있게도 여섯 번째 금병과 일곱 번째 금병 사이에도 잠시 막간이 있다(계16:15).

중간 괄호 막간 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 준다.

일곱 나팔 심판의 괄호 막간, 10장에는 특이한 천사가 나타나서 특이한 일들을 이룬다.

특히 11장 유대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

계시록 10장 특이한 천사의 특이한 일들

계10:1 다른 강력한 천사, 이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는 다르다.

머리 무지개, 얼굴 해, 발 불기둥(*)

무지개: 원래 무지개는 4:3에 있다. 하나님의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휴,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휴, 노아의 홍수 이후

천사의 왕관, 여하튼 하나님의 왕좌의 권위를 소유한 존재

그의 얼굴이 해와 같다(계1:16); 말4:2

그의 발은 불기둥, 악한 것을 태우는 불(계1:15; 말4:1)

전체적으로 이 특이한 천사가 강력한 천사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천사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

그중 하나: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출현 시 대개 구름이 동반됨(시내산 사건), 예수님도 구름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계1:7, 행1:9 등). 계1:13-15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과 유사함, 계11:1, 3는 확정적이다.

더욱이 그 천사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담은 책

계시록의 책 5:1-2,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예수님만이 여신다(5:7).

따라서 여기의 작은 책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천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 정리

그리스말 앙겔로스, 소식을 가져오는 자, 사자, 메신저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상의 존재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한 곳도 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갈4:14).

계10:2 작은 책?

여기의 땅과 바다는 팔레스타인과 지중해일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크기의 특이한 천사(*)

계10:3,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계5:5)

10장은 환난기 후반부에 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7년 환난기 중반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회심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스가랴서 12-13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광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10).

사66:7-8,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닳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 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이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나라로 탄생되는 것

미5:2-3

계10:4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단 사이비가 된다.

계10:5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맹세함, 진실을 말할 것이다.

계10:6 자존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무에서 유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다: 지체할 일이 없다. 순교자들의 탄원(계6:10)

시간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은 1,000년 왕국까지 지속된다.

계10:7 일곱 번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신비는 구약 시대에는 숨겨졌으나 신약 시대에 드러난 진리

이스라엘이 눈머는 신비(롬11:25)

휴거의 신비(고전15:51)

불법의 신비(살후2:7)

그리스도의 신비(엡3:4),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엡5:32)

하나님의 신비: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일

왜 사탄이 이렇게 일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인간 세사의 악 허용 등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것

물론 이때에 불법의 신비도 드러난다(살후2:6-10).

왕국이 이루어진다(11:15). 즉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7년 환난기가 끝이 난다.

여기의 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왕국이다.

이 일은 초림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기도문 마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왕국들은 사탄에게 속한다(눅4: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되는가, 계11:15 이전까지, (*) 느부갓네살의 형상

계11:15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세상 뉴스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신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 특별히 카톨릭 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어거스틴의 이런 교리, 루터, 칼빈 등 그대로 답습함

아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신 적이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치리하신다.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신다. 시편 2편이 성취된다.

계10:8 가서 작은 책을 취하라는 소리는 하늘에서 남

계10:9, 요한의 부탁과 천사의 허락

계10:10, 요한이 작은 책을 먹음. 작은 책은 무엇일까? 무엇인지 모른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겔2:9, 3:3),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네 배가 먹게 하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어찌면 단12:4-9,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된 책, 다니엘의 백성에게 임할 일들을 보여 주는 책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 달았다: 어린양의 승리, 그리스도의 왕국
 먹은 뒤에 썼다: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이 당할 진노, 적그리스도의 통치 등
 하나님의 말씀, 젖(고전3:2), 단단한 음식(히5:12), 빵(눅4:4), 꿀(시119:103), 사과(잠25:11)
 먹기에 좋다. 달다.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말씀이 달아서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말씀을 소화하면 쓰게 된다. 핍박 세상과의 분리, 세사 침구들과의 분리

계10:11 다시 대언한다. (*) 그래서 11장 이후에 다시 후반부 3년 반이 반복된다.

암3:8,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
 지 아니할 수 있느냐?

결론

1.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 온다.
2. 사악한 자들의 심판과 징벌의 날
3.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날
4. 기도하며 깨어 있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붙들고

계11:1-19

계11:1-19

지금까지 26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지난 세 주, 8-10장의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은 후반부 3년 반

8장: 1, 2, 3, 4 나팔(지구 생태계의 변화), 특징 3분의 1이 파괴됨

9장: 5, 6 나팔(지옥문이 열리고 메뚜기 마귀들 등장, 남아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

그럼에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9:20)

이제 한 가지 화가 남았다. 그것은 일곱 번째 나팔(11:15)

이 사건 전에 10장과 11장 1-14절이 막간으로 들어 있다. 괄호 부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후반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표 설명

10:7,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신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드디어 온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됨
오늘 < >,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공훈, 두 증인의 사역, 유대인들 보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공훈 사역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사악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 멸망당함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일(왕하17:13-15),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패망의 길을 택한다.

반복되는 역사: 왕하17:14-15. 대하36:15-16, 렘44:4-6

남왕국 유다의 멸망(렘25:4-6)

그럼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믿음을 유지한다(롬9:27).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선포를 통해서(롬10:13-15)

신약 성경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 준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 열두 제자, 스테반, 빌립, 사도 바울
그 다음 세대 복음 선포 전수(딤후2:2)

그 이후로 수많은 복음 선포자들, 중세 위클리프, 틴데일, 루터, 웨슬리, 횃필드, 스펄전 등
7년 환난기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 특히 후반부 3년 반,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의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명의 복음 선포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때의 특징: 무저갱에서 메뚜기 마귀들 등장

계12장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계12:9)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거인 탄생

이런 흉악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두 증인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보내신다.

또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나온 144,000명도 이 일을 수행한다(계7:1-10).

이 두 증인은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보여 줌

이들의 3년 반 사역(주님의 공생애 3년 반과 비슷함)

이들과 144,000명이 하는 일, 왕국의 복음 땅끝까지 선포(마24:14)

그러나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음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동시에 7개의 금병 심판, 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 11장의 의미

계시록 11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이다.

계11:1-2 환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됨, 42달 동안 존재한다. 예루살렘 회복(8절)

계11:3-14 두 증인의 환난기 사역과 핍박 당함과 순교와 휴거, 짐승(적그리스도)의 등장(7)

계11:15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

계시록 11장 강해

계11:1 여기의 천사는 10장의 강력한 천사이다(1-2절), (*). 요한이 직접 11장 계시에 참여한다.

그에게 막대기 같은 측량 갈대가 주어진다. 갈대 막대기

에스겔서40:3-43:17에도 천년왕국 성전을 쟀 때 이런 막대기가 사용됨

계시록에는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있다.

땅의 성전(계11:1), 이 성전은 천년 왕국의 성전이 아니라(겔48:8, 21) 환난기 성전이다(살후 2:3-4; 단9:27; 마24:15).

하늘의 성전(계8:3-5와 11:19)

측량하는 이유: 크기가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과 보호를 뜻한다. 측량 치수가 없다.

측량된 것은 좋은 것이고 측량되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다(2).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1)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보존하려는 것

성전(*)은 내부 성전(성소와 지성소), 제단은 뜰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 이 뜰에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 아마도 환난기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밖으로 이방인들의 뜰

환난기 성전의 존재: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70번째 이레, 적그리스도의 언약, 아마도 언약 이후 처음 3년 반 기간에 속히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유대인들 모든 재료 준비하고 기다림

성전의 존재, 유대인들의 메시아 갈망(히10:4),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배반, 성전 황폐화, 유대인 탄압(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슥13:8-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재림하심(슥12-14)

계11:2 성전 밖의 뜰,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밟로 밟는다. 후반부 42달

거룩한 도시(느11:1; 단9:24; 마4:5; 27:5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환난기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본다.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음

그러나 환난기 바로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환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11:3 두 증인, 42달(2절)=1260일=3년 반(계12:6; 13:5)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계12:14; 단7:25, 12:7),

이방인들의 때의 절정(눅21:23-24), 더욱이 그 날들(환난기)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들의 사역: 1,260일 동안 대언하는 것, 예언이 아니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왜 두 명, 성경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증언해야 한다고 말함(신17:6; 마18:16 등)

이들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다(굵은 베 옷)

계11:4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두 등잔대(*)

물문교: 성경과 물문경(사적 해석)

속4:11-14,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앞뒤 문맥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킵바벨(학1:1, 14, 속3:1; 4:6), 하나님의 일(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 자들, 사탄이 이들을 대적함. 계시록의 두 증인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

계11:5-6 이들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행하는 일

이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반대자들을 죽임, 극도로 부패한 때, 이런 방법 외에는 이들이 생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다.

이들의 복음 선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함, 폐부를 찌름(11:10)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함(6)

물에 대한 권능, 피로 변하게 함

모든 재앙들

누구일까?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1. 이들이 행하는 기적들,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것들과 유사하다.

모세: 물에 대한 권능, 피, 첫 번째 기적(출7:17-21), 다른 재앙들(출7-11)

불로 멸하는 것(민16:35), 고라의 반역

엘리야, 갈멜산 불(왕상18), 오십인 대장 두 번 불(왕하1:10, 12), 3년 반 가뭄(왕상 17:1; 약5:17)

2.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말4:4-5).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대언자

3.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남(마17:3; 벰후1)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렐에 갔음.

4. 엘리야는 휴거(왕하2:11-12), 모세의 몸 역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묻음(신34:5-6)

유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모세의 몸은 죽은 상태로 매장되어 있지 않고 일어났다.

5. 엘리야는 이미 침례자 요한으로 오지 않았는가?

마17:9-11,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킨다(행3:20-21). 재림의 문맥

마17:12-13,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이것은 모순이다.

요1:19-21,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함.

마11:14, 왕국(그것)을 받아들이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이다.

눅1:15-17,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야 한다.

계11:7-8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짐승이 등장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계6:2에 등장함. 그러나 짐승이라는 호칭으로 처음 등장함, 이 짐승은 계시록에 수십 차례 언급됨.

이 짐승은 13, 17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짐승은 부활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 계13:18,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수

계9:11, 계17:8, 무저갱의 왕, 천사, 멸망의 아들(살후2:3). 멸망의 아들(요17:12)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이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들의 시체가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의 거리에 놓인다(8).

예루살렘: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그 안의 거주민들의 영적 상태, 세계 최대 동성에 집회, 텔아비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거처

예수님도 죽였는데 두 증인이야 말할 것도 없다.

계11:9-10 두 증인의 죽음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환호

이유: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결국 죽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11:11-12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 환난기의 끝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이들을 살림
 그들이 갑자기 자기 발로 일어나서 섬
 사람들이 두려워 함, CNN 생중계, 그런데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서 올라감(*)
 이것은 엘리야의 휴거와 모세의 몸을 들어 올린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도 매우 비슷하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찌른 분 예수님을 상기시켜 줌(슌12:10)
 계11:13 예루살렘의 지진(슌14:4-5?)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음, 남은 자들 즉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하나님께 영광
 계11:14-15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즉시 울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실제의 이 땅에서의 왕국(영적 왕국 No),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다.
 눅1:31-33(*)
 계11:16-17 장로들의 찬양
 계11:18 민족들의 분노(시2:1-3)
 죽은 자들의 때가 왔다(사26:19-21)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 1,000년 왕국 후의 흰 왕좌 심판(계20:11-15)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말3:16-18),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의 요약
 계11:19 언약궤(수3:11-17),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던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결론
 일곱 번째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공의, 불신자들 심판,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보상
 인간의 딜레마가 완전히 해결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벧후3:11-13)

계12 사탄, 어거스틴, 천주교, 루터의 유대인 탄압(반셈족주의)

계12:1-17

지금까지 27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계시록 말씀의 3분의 2정도가 구약 성경 관련,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과 계시록 등 이해 불가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추종,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1948. 5.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 무지하다.

이런 무지는 결국 성경 해석의 무지, 계시록의 무지, 예언의 무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역성경 부실, 신학의 빈곤

지금까지 계시록 1-11장을 공부하였다.

11장은 모세와 엘리야로 보이는 두 증인의 사역, 예루살렘의 환난기 성전(1-2), 예루살렘 지진(13) 왜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는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시대 인물들이 나오는가?

이제 12장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12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

그것도 메시아를 내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 >, 유대인들의 역사와 핍박, 왜? 이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12장 여인과 용의 정체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이 있더라. 어떤 여인(*) 해와 달과 12별

12:2, 아이를 배어 해산의 진통

12:3 용,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12:4 아이의 출생, 죽이려 함

12:5 사내아이는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 하늘로 채여 올라감

12:6 여자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12:7-12 미가엘과 용의 싸움,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남

12:13-17 용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며 환난기 성도들과 전쟁을 벌임

12장에서 명백한 사실

1. 용은 사탄 마귀(12:9)

2. 사내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 기독교 모두 동의함

3. 그러면 여인은 누구인가?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 12장 해석이 변하게 됨

1. 천주교 해석: 여인은 마리아다(*)

해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12장의 여인 대신 마리아를 대입해 보자.

12:6 마리아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12:13-17, 여자 대신 마리아를 넣어서 읽어 보자,

말이 되는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주교의 사적 해석이다.

2. 개신교 해석: 여인은 교회다.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

일단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가 출생하는가?

일단 여자가 교회가 되면 주객이 전도됨

해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12장의 여인 대신 교회를 대입해 보자.

12:6 교회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그러면 환난 통과

12:13-17, 여자 대신 교회를 넣어서 읽어 보자,

말이 되는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사적 해석이다.

3.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사내 아이 즉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이스라엘이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다.

용이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러 간다(12:17). 즉 여기의 여자는 한두 명의 자녀를 낳은 여인이 아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이스라엘이다. 이 외의 다른 해석은 다 사적인 해석이다. 계시록은 상징들로 내용을 기록함, 계12장의 여인, 창37:9-10,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인(woman)으로 불린다(사47:7-9; 50:1; 54:1; 렘3; 호2).

호세아 2:2, 하나님의 아내,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짓기습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12장이 보여 주는 전체 그림

구약 시대 이스라엘부터(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교회 시대를 벗어나 환난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체 역사

즉 하나님의 눈에서 교회 시대는 팔호, 중간 막간이다. 성경 해석의 핵심이다. 롬9-11을 보라. 다니엘의 70이레(단9:25-26), 69이레,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마지막 한 이레, 7년 환난기(*)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의 예언을 무리하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이스라엘을 탄압하는가? 어떻게 탄압하는가?

0. 마귀와 첫 사람의 연대기

사탄 마귀의 연대기와 인류 역사를 조망해 보자.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셋째 하늘이 창조되어 천상의 존재들이 존재함,

그중 하나, 루시퍼,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그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기를 바랐다(사 14:12-14; 겔28:11-17).

그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adversary)를 뜻하는 사탄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보여 주시려고 우주 공간(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구)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인간을 창조하심

창세기 3장, 마귀의 개입,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인간의 타락 죄, 에덴동산에서 쫓겨남

인간은 땅에 대한 통치 권세를 빼앗기고 그것은 마귀에게 넘겨짐(눅4:6)

그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죄인이 됨

그래서 지금 인간의 땅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 2가지가 존재한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딜레마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

이 메시아는 구속자

마귀는 인류 역사에서 메시아와 메시아를 내는 민족을 탄압한다. 세상 역사, 성경 역사

1. 가인의 출생부터 40년 광야 생활

창세기 4장,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됨. 마귀의 뜻 실현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심(창4:25-26)

약 14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세상은 점점 더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함

이런 가운데 드디어 창6장에는 마귀가 천사들을 동원하며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함으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태어남.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가 됨

이대로는 여자의 씨 메시아 출생이 불가능함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해서 120년 동안 의를 선포하였으니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

그래서 대홍수를 일으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노아의 8명을 데리고 새롭게 왕국을 건설하

려 하심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중 하나인 함의 후손 니므롯이 등장하여 바벨 탑 근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최초의 단일 세계 정부 구성(창10-11장)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으로 흩으심. 그 결과 드디어 이방인들의 민족들이 생성됨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은 메시아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셈의 후손, BC 2000년경

아브라함 언약을 줌: 네 씨(메시아), 네 씨(유대인), 가나안 땅

그 이후로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족장들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감, 야곱은 죽을 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함(창49)

400년 시간이 지나자 마귀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사용하여 메시아를 내는 민족을 멸절하려 함
사내아이는 다 죽이게 함(출1)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

마귀의 반격: 파라오의 추격, 홍해 바다, 물 부족(출15:22-26; 17:1-7)

먹는 것 부족: 만나와 메추라기(출16), 아말렉을 통한 공격(출17:8-16)

하나님은 드디어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함

목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메시아를 낳 백성임을 확증함(출19)

예배 장소로 성막을 주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희생 예물 제도 규정, 대신 속죄 제도 모두가 메시아의 예표

모세의 시내산 체류 기간에 마귀의 공격: 아론을 동원하여 금송아지 숭배

시내산 출발 후 11일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신1;2), 12명의 스파이(민130)

10명이 갈 수 없다고 반기를 들, 결국 40년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끝 부분, 모압 왕 발락과 거짓 대언자 발람(민22-25), 이스라엘 멸절 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메시아 예언을 주심(민24:17)

가나안 정복부터 유다의 멸망

재판관들의 시대: 마귀의 개입, 거의 무정부 상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21:25).
아비 종교 확립(삿17-18)

하나님: 사무엘의 사역,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움

사탄이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왕을 요구하게 함.

이스라엘이 중앙 정부를 가지게 함으로 민족 전체를 배교로 이끌려는 심산

사람들의 요구로 마귀의 뜻을 수행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 40년간 배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주심으로 메시아 혈통을 더 좁히심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유다 지파, 다윗)

다윗 언약: 그의 씨 메시아, 메시아 왕국(삼하7)

솔로몬의 배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경배함

왕국의 분열

북왕국 이스라엘: 바알 숭배,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

남왕국 유다: 마귀의 공격, 아달라가 왕족을 모두 죽임, 메시아 계보 멸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왕하 11:1), 요아스 하나만 남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셔서 메시아 계보 유지

유다 역시 우상숭배로 인해 바빌론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의 침략: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됨,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함

하나님: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심

바빌론 포로 생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허용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 율법 정리, 성벽 건축, 메시아를 내는 민족 회복
하만이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 멸절 시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저지됨

그리스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멸절 시도

드디어 로마 시대가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메시아로 태어남

마귀가 이를 그냥 두지 않음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함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3번 시험하며 공격함,

예수님의 선포. 메시아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전에 죽이려 함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도와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 사흘 뒤 부활, 40일 뒤 승천
계12장의 사내아이가 하늘로 채여 올라감(12:5)

그 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음

AD 70년 타이투스의 예루살렘 함락, 100만 명의 유대인 살해

유대인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짐, 디아스포라

그 뒤로 마귀는 반셈족주의라는 도구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게 함

특별히 400년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을 만들

교회가 왕국이다.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왕국을 치리한다.

여기에 거침이 되는 자들: 유대인, 이들을 박멸해야 한다. Christ killers(*)

곳곳에서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함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인들이다.

마귀는 또한 1095-1291년까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유대인들을 박멸하려 함

이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교회의 대리자인 교황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 시도, 유대인, 이슬람, 이방인, 면죄부 천주교인들 때 죽음

종교 개혁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게 함,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드디어 20세기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탄은 히틀러를 사용하여 유럽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다.

수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 대전은 1945년에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 뒤 1946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려 나왔을 때 독일 나치 장교로 선전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슈트라이허(Julius
Streicher)에게 재판관이 질문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자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죄가 없소.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하였을 뿐이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재판하시오.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나쁘지 않았소.”

그 뒤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사용해서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함.

또한 마귀는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세워지던 바로 그날 제1차 중동 전쟁

하나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6일 전쟁) 등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 구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하심, 그냥 기적이 일어남

천주교는 국가이다. 바티칸, 대사들 파견, 현재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개의 나라들 중

하나, 관계는 있어도 미적지근하다.

2015년 5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팔레스타인국가로 인정함(*)

그래서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들은 여기의 여인이 이스라엘임을 인정할 수 없고 왜곡된 해석을 함.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함

현시대 이스라엘

그런데 문제: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완전히 무신론 배도 상태(*)

성경을 알지 못한다. 곳곳에서 탄압받다가 탄압이 없는 자기들의 국가에서 살아야겠다고 돌아옴
소수의 정통파 유대인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박사
동일한 종교 놀이(*)

사탄 편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통합 종교통합 시도, 이슬람의 확산, 이스라엘 위협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던 영국, 미국 등 앵글로색슨족의 쇠퇴

전 세계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세계 정치 지도자를 구함(슌12장), 지기 힘든 짐
드디어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이스라엘의 소원: 희생 예물을 드리고 싶다.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그를 안다. 환난기 성전을 짓게 한다.

그런데 한 이레의 한중간에 그가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에게 희생물을 바칠
것을 요구한다(살후2:4),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한다.

드디어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예수님의 표현,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유대인들 주변의 광야로 피신함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기적으로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며 유대인들 멸절 시도(12:15)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 멸절되고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3분의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만 구출 받음(슌13:8-9),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하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보호 천사인 미가엘을 보내 그들을 구출하심(단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계12:7, 미가엘 천사장의 등장, 이스라엘 보호 천사

드디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함(슌12:10)

마23:39가 이루어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강림, 마귀가 무저갱에 갇힘, 천년 왕국

이것이 계시록 12장이 보여 주는 전체적인 그림이다.

결론

하나님은 인간이든 마귀든 창조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인간의 역사이기에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반드시 선다.

우리는 이런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감사하자.

계28 7년 환난기: 사탄의 유대인 핍박과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

계12:1-17

계시록은 총 22장, 지금까지 28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이제 계시록 중반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일 전 금요일, 27번 강해, <계28 사탄, 어거스틴, 천주교, 루터의 유대인 탄압(반셈족주의)>

역사와 성경을 통한 마귀의 이스라엘 핍박 역사를 살펴봄

처음 강해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올바른 이해의 핵심: 계시록은 유대교의 요소가 많다는 것 발견하는 것(404절 중 278절). 3분의 2, 즉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과 계시록 등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등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착각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

크리스천투데이, 2022년 8월 18일, <노벨상 많이 받은 유대인, 하나님의 축복 받은 민족인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422>

권모 목사,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고신대 대학원, 부산 세계로 병원 원목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로 혈통적 유대인 개념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성경의 증언처럼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반드시 그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롬2:28-29).

이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동일하게 물려받는다(롬4:16).

둘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혼혈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미 혈통적으로도 순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 단위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보편 교회’에 해당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학 상식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갈 6:16).

이러한 신학으로는 성경과 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를 반만 이해함:

1-8장 이방인들의 구원, 9-11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문제, 12-16장 성화의 문제

롬11:1-2,5

그 다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눈먼 것 설명, 25-29

성경과 계시록의 통합적 이해 필요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함, 그렇게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가?
즉 왜 유대인이 성경에 나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뒤 AD 70년에 쫓겨나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국가 건설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국가인가?

1.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개 국가인가?

2. 성경의 예언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물려받을 나라인가?

누구라도 행1장에 따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다.

또 그분의 재림 시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다. 마23:39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재림 전에 저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형성해야만 한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큰 표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방해물

1.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요4:22)

메시아가 난다. 12제자, 바울 등 성경 기록자 모두 유대인

2. 결국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창22:18, 26:4); 행3:25)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창22:18)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탄압해야만 한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 계보인 다윗의 가족들을 탄압해야만 한다.

아달라, 남왕국 유다: 마귀의 공격, 아달라가 왕족을 모두 죽임, 메시아 계보 멸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왕하 11:1), 요아스 하나만 남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셔서 메시아 계보 유지

지금 우리는 환난기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후반부 3년 반

그러면 마귀는 얼마나 다급할까?(계12:12)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총 주제이다.

12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 그것도 메시아를 내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 >, 유대인들의 역사와 핍박, 왜? 이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12장 여인과 용의 정체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이 있더라. 어떤 여인(*) 해와 달과 12별

12:2, 아이를 배어 해산의 진통

12:3 용,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12:4 아이의 출생, 죽이려 함

12:5 사내아이는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 하늘로 채여 올라감

12:6 여자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12:7-12 미가엘과 용의 싸움,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남

12:13-17 용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며 환난기 성도들과 전쟁을 벌임

12장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사실

1. 용은 사탄 마귀(12:9)

2. 사내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 기독교 모두 동의함

3. 그러면 여인은 누구인가?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 12장 해석이 변하게 됨

1. 천주교 해석: 여인은 마리아다(*)

해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12장의 여인 대신 마리아를 대입해 보자.

12:6 마리아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12:13-17, 여자 대신 마리아를 넣어서 읽어 보자,

말이 되는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주교의 사적 해석이다.

2. 개신교 해석: 여인은 교회다.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

일단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가 출생하는가?

일단 여자가 교회가 되면 주객이 전도됨

해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12장의 여인 대신 교회를 대입해 보자.

12:6 교회가 광야로 1,260일 동안 피신함, 그러면 환난 통과

12:13-17, 여자 대신 교회를 넣어서 읽어 보자,

말이 되는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사적 해석이다.

3.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사내 아이 즉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이스라엘이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다.

용이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러 간다(12:17). 즉 여기의 여자는 한두 명의 자녀를

낳은 여인이 아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이스라엘이다. 이 외의 다른 해석은 다 사적인 해석이다.

계시록은 상징들로 내용을 기록함, 계12장의 여인, 창37:9-10,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인(woman)으로 불린다(사47:7-9; 50:1; 54:1; 렘3; 호2).

호세아 2:2, 하나님의 아내,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짓기습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12장이 보여 주는 전체 그림

구약 시대 이스라엘부터(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교회 시대를 벗어나 환난기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체 역사

즉 하나님의 눈에서 교회 시대는 괄호, 중간 막간이다. 성경 해석의 핵심이다. 롬9-11을 보라.

다니엘의 70이레(단9:25-26), 69이레,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마지막 한 이레, 7년 환난기(*)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의 예언을 무리하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강해하겠다.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강해한다.

12장 강해

1. 여인과 사내아이(1-5)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창3:15, 사66:7,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닳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갈4:4

사내아이의 정체(12:5), 시2:7-9

2. 용과 하늘의 별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들은 별들(욥38:7), 어느 때에 새별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리위야단(욥41:1, 시74:14, 104:26, 사27:1)

마귀: 욥41:33-34, 땅 위에는 그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시74:12-15, 특히 14절

사26장 끝, 이스라엘의 부활, 27:1-3, 하나님의 이스라엘 보호, 특히 1절

3. 여자의 도피, 광야 1,260일 동안(6), 광야 생활 40년과 비슷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요르단 강 옆의 페트라 같은 곳을 지명한다.(*), 5장

4. 하늘에서의 전쟁, 여기 하늘은 셋째 하늘로 보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의 싸움(7)

용과 그의 천사들이 패하고 땅으로 추방됨(8-9)

이들의 추방에 대한 선포(10-12), 사탄의 이름 고소하는 자,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감 예수님의 말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마24:37).

창세기 6장: 특징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남자의 몸을 입고 여자들과 동거하여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생겨남,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다시 한 번 재림의 때에 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5. 용이 이스라엘을 핍박함(13)
6. 여자,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피신함(출19:4),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14), (단7:25; 12:7),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단7:25).
7. 용이 홍수를 일으켜 여자를 멸절하려 함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8. 땅이 갈라져서 물을 다 삼켜 버림
9. 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 감, 야곱의 고난의 때(렘30:4-7), 렘31:1-4
미가엘의 등장(단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10. 대환기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때, 예수님의 표현,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11.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 멸절되고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3분의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만 구출 받음(슌13:8-9),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하리라.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 천사인 미가엘이 등장하여 그들을 돕고 이스라엘의 승리, 메시아 영접

결론

성경은 하나님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책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간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 성경과 유대인

진리의 말씀, 특히 예언을 담고 있는 책, 유대인 귀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벰후3:3-4

진화론자들의 등장, 노아의 대홍수 부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땅은 불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3:7).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모두가 구원받는 것(11)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14).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받는다. 가장 크고 복된 소식

성경대로 된다(살전4:16-18):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계3^ㅁ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장과 666 표

계13:1-18

계시록은 총 22장, 지금까지 29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

지난 몇 주, 계시록 11장, 12장 계시록, 중반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7년 환난기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는가? 왜 닥치는가?

역사와 성경을 통한 마귀의 이스라엘 핍박 역사를 살펴봄

최종 시점에 유대인들의 불순종, 야곱의 고난의 때(렘30-31)

오늘 계시록 13장 < >, 이미 계6장의 흰 말 탄 자, 정복하고 정복하려 함(계6:2),

드디어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충분히 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강해 진행하려고 한다.

계시록 13장 강해

계13:1 아마도 여기의 바다는 지중해, 여기의 짐승(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은 왕이요, 적그리스도이다(사람이다. 계13:18). 단순히 부활된 로마 왕국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짐승의 수(18)를 어떤 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인간의 수로 보게 된다.

계시록에는 짐승(beast)이 총 44번, 하나님의 왕좌 앞의 네 짐승(계4-6장, 계4:6)

이것들을 빼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짐승(the beast)과 그를 돕는 다른 짐승(13:11)

계11:7-20:20까지 총 32번)

두 종류, 13:11 이후에 나오는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일단 13:1과 18은 적그리스도 짐승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단7장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서

단2, 7, 8장에는 세상 왕국의 변천, 다니엘서 강해 12, 13 참조

2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 나타남(단2:31-45, *, 금, 은, 동, 쇠, 쇠와 진흙, 돌)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로, 로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7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 짐승들을 통해 나타남: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작은 뿔, 그리스도 (*)

두 개를 비교해서 보자(*)

다니엘서 7장

1절: 벨사살의 통치 1년에 주어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2-3절: 대해(지중해)에서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

네 짐승은 네 왕 곧 네 왕국(17절)

4절: 사자와 독수리, 단2장 형상의 정금, 바빌론

5절: 곰, 형상의 은, 메대/페르시아

6절: 표범과 네 날개, 형상의 동

7절: 두렵고 무서운 짐승, 쇠로 된 로마 제국, 형상의 쇠, 형상의 열 발가락은 여기서 열 뿔로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왕국(8, 19-27)

8절: 적그리스도의 왕국, 단2에는 자세히 계시되지 않은 것,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의 뿔들 중 세 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

9-14절: 그리스도의 왕국, 특히 9절과 14절을 보라.

19-27절: 다니엘의 해석, 넷째 짐승과 작은 뿔 설명

작은 뿔(7:8, 11, 24-26), 그리스도의 재림 전 이 땅의 마지막 왕국 치리자

사람의 눈 같은 눈들(단7:8):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뛰어난

큰일들을 말하는 입(7:11, 25; 계13:5-6), 살후2:4

그가 나온 이후로 전쟁, 기근, 사망, 믿는 자들의 순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나온다(계6장).

정복하고 정복하여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다(단11:21; 살후2:9-11)

그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한다.

세상 왕국들을 정복하고 파위를 차지함(단7:19, 20)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살후2:3-8), 계13:1-10 (*)

이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함(25)

그의 통치 기간(7:25)

그의 기간 3년 반(계12:14), 1260일(계11:3; 12:6), 42달(계11:2; 13:5)

단9:24-27의 마지막 한 이레(7년)

앞으로 올 임할 통치자(단9:26-27), 26절

유대인들과 한 이레 동안의 평화 조약 체결

한중간에 그가 언약을 파기함. 3년 반의 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전쟁: 여기의 성도들(단7:18, 21, 22 2회, 25, 27)은 환난기 성도들이다.

앞뒤 문맥상 특히 유대인 성도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책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7:21, 25; 계12:13-17, 용의 여자 핍박).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이긴다(18, 22, 27).

그리고 왕국을 취하고 소유한다.

단7:19-27의 그의 왕국은 계13-19에 기록된 7년 환난기의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절됨(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왕국, 단2:34-35, 44-45).

열 뿔(7:7-8; 24, 계13:1; 17:3, 7, 12, 16)

열 왕국은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연장이요, 바빌론 문화 및 종교의 본산이다. 그 안의 열 개의 민족, 국가,

혹은 언어

전체적인 성경 구조 이해 필요

계시록 13장

계13:1-2

이 짐승은 용과 비슷하다(계12:3).

마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다.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 열 개의 왕관

그는 10명의 왕들로 구성된 왕국과 상관이 있다(열 개의 왕관).

이 짐승의 모든 것은 용에게서 나온다(13:4).

계13:3-10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계13:8의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행2:23)

개역성경 오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정신을 차리라,

10저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마26:52). 환난기 성도들의 인내

계13:11 거짓 대언자, 그는 땅에서 나온다(계16:13; 19:20; 20:10).

그는 첫째 짐승 - 적그리스도 - 만을 위한다. 성령님과 대조된다(요14:26; 15:26; 16:13-14).

용 아버지, 짐승 아들, 거짓 대언자: 사탄의 삼위일체(계16:13) (*)

대적하는 신, 대적하는 그리스도, 대적하는 영

계13:12-14 기적들을 행한다. 불을 내린다(계11:1-14의 두 증인) (*)

육기에 보면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욥1:16). 형상을 만들게 한다(단3:1-30의 형상)

계13:15 형상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계13:16-17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지옥의 낙인, 세상 정치, 경제, 종교 통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의 전체주의

계13:18 어떤 사람(적그리스도)의 수이다. 666,

베리칩, 네이버 백과사전,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 (Verichip)'이라는 전자칩을 심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들의 관리를 위해 전자 인식표로 사용되던 이 칩을 이제 인간의 몸속에도 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베리칩에 대한 찬반논란이 크다. 사람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베리칩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베리칩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베리칩은 '확인용 칩(verification chip)'의 약어로 무선주파수 발생기인 RFID 칩의 일종이다. 쌀알 크기 정도로 주사기를 통해 간단하게 인체에 주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거 수술을 받지 않는 한 몸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 이 칩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또는 고유 번호가 저장돼 있다. (*)

이 칩은 무선으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개인 정보가 저장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순간 개인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베리칩 하나면 개인의 신분에 관한 신상정보뿐 아니라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 유전자와 같은 생체 정보, 질환 및 진료 기록과 같은 의료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GPS와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이 칩은 인간의 몸에 이식돼 개인의 신분확인,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용도: 가령 미 CIA에 근무하는 김 씨는 보안지역을 통과할 때 더 이상 신분증이나 지문, 홍채 인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다. 보안지역에 설치된 스캐너가 김 씨의 몸속에 있는 베리칩으로부터 무선 전자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김 씨의 신분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기를 좋아하면서 줄서기는 몹시 귀찮아하던 박 씨는 더 이상 계산대 앞에 길게 줄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계산대 옆 출구를 나서는 순간 그곳에 설치된 스캐너가 박 씨의 신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박 씨가 구매한 물품들에 심어진 RFID칩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물품 정보를 확인해 곧바로 자동 전자결제 that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혈압과 심장질환으로 병원 출입이 잦은 노인 이 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복잡한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씨 몸에 내장된 베리칩을 스캔하면 유전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와 그동안의 진료 기록들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이 칩을 이식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 중 한 면이다. 동전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1.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 감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인의 사생활 역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RFID칩은 본질적으로 식별장치이지만 GPS와 연결되는 경우 추적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 장치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 또는 스캐너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면, 개인의 행적은 소리 없이 추적되고 기록으로 남는다.

베리칩 이식은 현재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정부나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강제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로 인식되고 있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등.

그러나 짐승의 표는 7년 환란기에 주어지므로 지금의 베리칩 등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AI, 초고속 인터넷 등

우리는 7년 환난기 전에 휴거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동성애, 낙태, 불법의 합법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벧전5:8-11

계31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는 가룟 유대인가?

성경말씀: 계13:1-18

지난 두 주 계시록 12-13장 유대인 핍박

세 인물이 등장함, 용, 짐승, 다른 짐승,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도 삼중 구조, 사탄도 세 인격체로 자신의 뜻을 편다.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용의 등장, 이스라엘 핍박

1. 계12:7-9의 용, 아버지 하나님 대적
2. 계13:1-6의 짐승(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적
3. 계13:11-18의 다른 짐승(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를 도우며 성령님 대적
4. 계20:10: 마귀, 짐승, 거짓 대언자의 파멸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겔28 덮는 그룹, 사14의 루시퍼, 12-14 절, 그는 경배받기를 원하였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창조 세상을 만드신 이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계4:11),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 각종 거짓 종교와 이단을 만들고 대항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시험함(눅4:5-8)

특별히 마귀는 모방의 대가: 하나님의 교회, 음녀 바빌론 교회 혹은 종교 체제(계17)

하나님의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고후11:13-14)

어떤 교회 목사: 계11장의 두 증인: 교회와 성도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마귀는 지난 6,000년 동안 사람을 속이며 경배를 받으려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 7년에 이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에 성공한다(계13:8).

그런데 성공하자마자 주님의 심판을 받고 불 호수에 떨어진다. 마귀의 운명(계20:17).

적그리스도의 명칭과 그가 하는 일

계13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용의 권능을 받아 마지막 때에 세상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통제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도록 온 세상을 사람들을 속임수로 장악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함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자기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 즉 불신자, 이단자, 박해자(복수)가 있다고 말했다(요일2:18; 4:3).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온 것을 부인했다(요일2:22; 4:3).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유일한 의미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며 살후2장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네 가지 다른 이름 즉 (1) 죄의 사람(3절), (2) 멸망의 아들(3절), 불법의 신비(7절), 그리고 저 사악한 자(8절)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읽자....

1. 죄의 사람(3): 누구나 죄인, 그러나 그는 죄에 사로잡힌 자, 행하는 모든 것이 죄
예수님은 의의 사람
2. 멸망의 아들(3): 출신이 멸망이고 하는 일이 멸망이며 종착지가 불 호수 멸망이다.
예수님은 승리의 아들
3. 불법의 신비(7): 처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 일이 미스터리이다.
신비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아는 진리, 너무나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4. 저 사악한 자(8): 사탄의 초능력 인간
 - a. 그는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매혹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능력을 가질 것이다.
 - b. 또한 그는 완벽한 아침꾼, 뛰어난 외교가, 최상의 전략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가?

특별히 계13-19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계13:18), 남자, 남자라면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적그리스도의 과거: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

이상하지 않은가?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즉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존재함) 지금은 없으나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성경대로 믿으면 그는 이미 이 땅에 언젠가 한 번 존재한 자이다.

오늘은 < >,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와 어떤 관계인가?

<알레이시의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고 가룟 유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인류 구속 계획, 창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씨, 메시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창3:15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무어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씨’, ‘네 씨’, ‘네 씨’. 사탄 마귀의 씨, 씨라는 말은 남자 자손을 말한다.

이것의 의미: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낳았는가? 네, 그렇다. 여자의 씨, 메시아

그렇다면 이 사실은 사탄도 실제로,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친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탄의 씨

사탄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영적인 존재인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창6:1-2, 4). 이들이 자기들의 신분과 위치를 버리고 남자들의 몸을 입고 와서 여자와 결합하여 아이들 출산: 몇 잇는 자들,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4).

사탄도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이다. 말세에 그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어떤 여인과 동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여인에게서 출산된 그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사탄의 씨가 될 것이다.

사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 (1) ‘적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도 그가 자신의 사악한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임을 보여 준다.
- (2)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는 사자’(벧전 5:8)로 표현된 것 같이 적그리스도 역시 무서운 짐승이 될 것이다.
- (3) 그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있을 것이므로 그는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계13:18). 그런데 그가 매우 사악하므로 ‘죄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 (4) 또한 그는 자기의 아버지 마귀와 함께 불 호수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계19:20, 20:10)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이다.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멸망’(Perdition)은 ‘아폴레이아’(apoleia)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곧 ‘파괴’ 혹은 ‘파괴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계 17:11).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19: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씨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두 번만 그 칭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옆에서 자기의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 그 칭호가 처음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2). (*)

성경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칭호가 언급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아마겔돈 전쟁을 가리키며 말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살후2:3). (*)

이 두 경우 모두 ‘멸망의 아들’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모방의 명수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숲 속의 더러운 뱀을 노출시켜 놓으셨다. 만일 성경을 연구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사악하며 교묘하며 더러운 계략들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온 우주의 대 모방자’임을 보여 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의 몇 가지 모방 계략을 보자.

1. 사탄은 삼위일체 신성을 모방한다. (*)

참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1) 아버지	(1) 용
(2) 아들	(2) 적그리스도
(3) 성령	(3) 거짓 대언자

2.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방한다(계13:3, 14).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옴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계13:3).

3.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적도 모방한다(계13:13-15).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4.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방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처녀 탄생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창세기 3장 15절의 사탄의 씨 참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듯이 적그리스도는 참 마귀, 참 사람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왜 가룟 유다도 그와 똑같은 칭호로 불렸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사탄의 모방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씨’(여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늘 지지 않으려고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아들도 그것을 모방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참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계1:8). (*)

모조품 그리스도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

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있었고(was)	있었다가(was)
있고(is)	없으나(is not)
앞으로 올(is to come)	여전히 있는(yet is)

(*)

마귀는 흉내를 내긴 내되 똑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모방자란 기껏해야 모방자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이 사탄의 아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이 구절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그는 있었고(과거), 2. 그는 없으며(현재), 3. 그는 밑바닥 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미래)
4.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미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있었으나 바로 그 당시에는 죽어서 땅 위에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일러 주었던 천사는 적그리스도가 땅에 다시 올 것이고 밑바닥 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최종 도착지는 멸망(즉 불 호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지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가롯 유다가 태어나서 자살할 때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에 의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Al Lacy)는 왜 유다가 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요17:12).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살후2:3). 이 칭호 앞에 있는 정관사 ‘the’는 단 한 명의 유일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적그리스도는 같은 인물로서 하나입니다.
- ② 저는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남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마귀의 ‘씨’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요6:70-71).

위의 성경 구절의 '마귀'(devil)라는 단어로 그리스어 '디아블로스'(diabolos)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 '디아모니온'(diamonion)은 사악한 영들에게 사용되었고 '마귀'(a devil) 혹은 '마귀들'(devils)로 번역되었습니다(마15:22; 막 5:15; 행 10:38 등 참조). 그런데 '디아블로스'(diabolos)라는 단어는 단 한 번의 예외(우리가 금방 읽었던 가롯 유다에 관한 요한복음 6장 70절)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 한 구절만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사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마귀(devil)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 자신의 정의를 따라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 ③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영들(디아모니온, 즉 마귀들)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틀어 개인적으로 사탄에 의해 사로잡히고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13:26-27).

유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④ 사탄처럼 유다는 매우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창3:1).

유다는 너무나 간교했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너무나 간교해서 그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간교한 그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요6:64). 물론 적그리스도도 교활한 점에 있어서는 유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 ⑤ 유다가 지옥(땅의 중심부에 있는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으로 내려간 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행1:25) 성경에서 언급된 그 어떤 인물도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땅을 떠난 뒤에 무저갱에 있는 자기 자신의 특별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하여야만 그가 다음의 성경 기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자, 이제 요약을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여자들을 통해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이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인 가롯 유다는 지옥의 하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소'에 가서 사탄이 한 여인을 속여 그 여인이 수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태된 순간에 유다의 혼은 무저갱에서 나와 그 여인의 태로 들어갈 것이고 9개월이 지난 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방하기 위해 그녀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의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사탄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이 될 것입니다.

결 론

1. 불안해하지 말라. 2. 은혜로 구원받는다. 3. 은혜로 휴거 받는다. 7년 환난기에 안 들어간다.
4. 교육하고 전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해야 한다.
5. 부실한 성경, 교리, 아이들 교육, 사역자 지원, 미디어 선교 사역에 힘을 써야 한다.

계3군 적그리스도의 등장, 얼마나 가까운가?

성경말씀: 계13:1-18

지난 4주 계시록 11-13장, 유대인 핍박

세 인물이 등장함, 용, 짐승, 다른 짐승, 마귀의 삼위일체(*)

1. 계12:7-9의 용, 아버지 하나님 대적
2. 계13:1-6의 짐승(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적
3. 계13:11-18의 다른 짐승(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를 도우며 성령님 대적

성경 신자들의 관심사, 1. 일단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받는다. 환난 통과는 이단 교리

2. 그런데 휴거 전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나간다.
3. 우리는 휴거의 날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도대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특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살후2:1-3). 인류를 컨트롤한다(계 13:16-18).

< >, 짐승의 표, 매매 불가,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재림의 확실성

재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약 성경의 여러 메시지: 구원과 성화,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됨.

신약에서만 총 318회, 신약: 총 260장, 1장에 1.2번 정도 언급됨.

4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여 차례 재림에 대해 직접 언급하심.

마23:37-39, 요14:1-3, 행1:9-11

바울도 50여 차례 언급

계22: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성경 신자의 확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은 우리의 최종 영광, 몸이 부활하여 보상 받는 때

성경 예언의 특징: 많은 경우 징조들이 주어진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특이한 징조들이 제시되어 있다.

징조들의 이유: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때를 모른다(마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다만 시대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마16:2-3).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굿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므로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들

1. 노아의 때(UFOs), 마24:37-39
2. 유대인 귀환(팔레스타인 갈등)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3. 이슬람 세력의 확산 겠37-39 등
4. 적그리스도의 세상,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세상, 정치 및 종교 구조(계. 단, 살후)
5. 인본주의/진화론(조롱하는 자들, 벵후3:3-7)
6. 도덕의 극심한 붕괴
7. 건전한 교리의 배척(딤후3:1-7), 거짓 교사들의 등장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짓 이단 교리, 기적과 표적 등(마24:33)
8. 기후 및 자연계의 변화(마24장)

이런 여러 징조들 가운데 오늘은 1. 노아의 때, 2.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오늘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보여 주려고 한다.

노아의 때(롯의 때)

(*) 노아의 때의 특징(마24:37-39(노아), (*) 눅17:28-30(롯의 때); 벤허2:4-6, 노아와 롯의 때)
이 두 때에는 사람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께서 홍수, 불과 유향의 무서운 심판으로 정죄(*)
노아의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결국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시대(창6:6)

창6:5, 11, 12, 세상에 폭력이 가득함, 사랑이 없다.

근본 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취함(창6:2; 유1:6)

그 결과: 노아 당시 몇 억의 사람들 가운데 8명만 구원받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롯의 상태(벤허2:7):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나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난기,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극도로
좋아하고 동경함, 하나님 조롱, 인류의 과반수가 죽을 것으로 예상됨

(*)7년 환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받는다.

그런데 그전에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오해야 한다.

십자가로 인한 고통, 사회 전체(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이 모두 반기독교)

지금 시대를 보라. 사악한 일, 부도덕, 동성애 등 사회가 전적으로 타락함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다(마24:38). 즉 세상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창6:3). 이것이 우리에게서 축복, 그들에게는 저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 거인의 생산(4), UFO(*)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창6:12), 유전자 변형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인류 멸절, 짐승, 날짐승 멸절 원인: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의 의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 주권 침해

현시대는 과학이 발전한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단12:4).

(*)과학의 발전 중 하나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식품: 식품 생산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변형시켜 만든
식품,

(*)1995년, 미국 몬산토 사가 처음으로 콩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병충해에 대한 면역을 높여 수확량을
크게 늘려 이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질병이나 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안정성 문제,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따른다.

유전자 전형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짐승과 인간의 유전자 변형/조작, 최종 목적: 인간 복제

유전자 지도, 게놈: 인간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일반인들조차 한 번쯤 들어본 용어가 게놈이다. 게놈
(genome)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로, 염색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함의하고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의 전체 염기 서열을 완전히
읽어내겠다는 프로젝트로, 인간 게놈 국제 컨소시엄과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이끄는 셀레라사가 공동으
로 2000년 초판을 발표했고, 2005년 보다 완전한 형태로 다시 개정판을 발표한 사업이다.

(*)1996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복제 개 스피너, (*) 그리고 2018년 원숭이 복제

(*)인간과 함께 영장류에 속하는 원숭이 복제의 성공은 곧 복제인간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증거

키메라의 출현, 2017년 (*)

2017년 1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미국 소크연구소 연구진은 과학저널 셀에 돼지
수정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해 신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문을 실었다.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은 태아는 돼지 암컷 자궁에 착상돼 사람의 근육과 장기세포 초기 형태로 자라났다.

(*) 중국 생명공학 관련 기업 보야 그룹(博雅, Boyalife Group), 2016년 3월 9일 인간 복제 능력 소유 발표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 복제공장(Animal Cloning Center)을 건설한다고 발표해, 동물복제공장의 안정성과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간 복제는 불임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변이다. 실제로 자식을 원하는 불임 부부, 미혼자, 동성애자 등은 이 인간 복제 기술을 생식 보조 기술의 하나로 활용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한 동성애자들의 자식 소유 욕구 충족

그러므로 인간복제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뒤를 이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 유럽,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 동성 결혼 합법, 한국도 쫓아가고 있음

(*) 텔아비브, (*) LGBT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특징: 동성애, 분명히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리고 롯의 시대를 보면 분명히 동성애였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동성애와 이로 인한 필연적인 인간복제이다.

유전자 변형의 핵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다. 마구 찍어내려는 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창6:4, 그 이후의 여러 거인들

계시록 12장 9절, 후반부 3년 반,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

단2:43

(*)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류 통치자가 나타난다. 살후2:4에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경배하게 한다.

계13장 16-17절을 보면 그는 짐승이라 불림, 그의 표,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수 666을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경제 활동 불가능

15절: 적그리스도의 철권통치,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

13-14: 다른 짐승이 나타나 짐승을 돕는다. 기적과 이적을 사용해서(13-14)

자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생길 수는 없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통제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이런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인류를 통제해야 하는 것, 어떻게

초고속 인터넷, 5G, 6G,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모든 정보, 매매 기록

인간복제뿐만 아니라 인간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 과학의 발달: 보안 문제 생체 인식(지문, 홍채), 현재 가장 각광받는 것은 얼굴 인식(안면 인식) 얼굴을 인식해 신분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이런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미지 인식 기술 등의 발달로 실현 단계까지 왔다.

과학의 발전 AI의 발전, 인간 계급화, 초고속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주행 비행기(드론), 중공업 로봇, 병 진단 로봇, 아마 설교하는 로봇 인간 컨트롤

빅 데이터는 AI 기술의 핵심 요소다. 우수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은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 50%에 달하는 7억 명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진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중국 사회의 인식과 광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정부, 그것을 자국 AI 기업 양성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했다. 이처럼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짐승 복제, 인간복제를 하면 인권 탄압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정치 경제 체제로 이루어지는가?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경제가 통제되는 사회이다(계13:16-18).

(*)경제는 크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통제 경제
지금 전 세상의 방향: 자유 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1850년 이후로 진화론, 공산주의(사회주의) 등장

(*)진화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을 무생물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공산주의: 유물론, 정부 혹은 빅브라더가 인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 무신론, 유물론
이 둘은 결국 자유를 버리고 전체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진화론은 대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매료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 사회주의가 남미 장악,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전 세계 그림을 보면 미국과 몇몇 기독교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이슬람, 아니면 사회주의

큰 정부, 정부 통제, 정부 의존(말은 다 무상 의료, 복지, 요령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미국도 멸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바마 8년 동안 사회주의 시스템, 친 이슬람, 동성 결혼

트럼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선되었지만 역부족, 지식층이 완전히 사회주의 좌파, CNN, 뉴욕 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마존, 구글, 애플

바이든, 곧 좌익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이다. 바른 것을 말할 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 자유 시장 경제, 그러나 70년이 지나면서 극도의 반미

반미: 기독교 정신 배척(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 언론의 부패 (*)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개헌 시도, 극도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계급투쟁(약자와 강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 이슬람/다문화와 기독교, 동성애 등),

사회주의 정책에 물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무상 병에 걸려들어서).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해도 마약에 거린 사람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그러나 북한 때문에 한국에서 더 심하다.

기도하고 바르게 투표하는 것

좌익 교회, 목사에게서 탈출해야 한다.

전망

유전자 조작, 짐승 복제, 인간 복제, 동성애, 이슬람, 사회 통제 감시, 전체주의 복귀, 적그리스도의

등장

노아의 대홍수 때 겨우 8명 구원, 왜 이런 데 빠질까?(살후2:9-12)

이런 악한 추세를 막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와 롯처럼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휴거) (*)

1. 기도한다. 2. 말씀을 전한다.

3.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한다.

4. 애국하는 시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시민

계33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과 홍해의 피

성경말씀: 계14:1-20

지난 몇 주 동안 계시록 11-13장, 유대인 핍박

세 인물이 등장함, 용, 짐승, 다른 짐승, 마귀의 삼위일체(*)

특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적그리스도 설명, 마지막 때의 징조, 유전자 조작, 동성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계시록을 32번 공부함. 이왕 공부하면 잘 이해는 것 필요함, 숲을 보고 나무들을 보아야 함

계시록 이해의 핵심:

1.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다. 약 3분의 2, 계시록 11-12장은 거의 100% 유대인,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핍박 과정, 환란기에 닥치는 대환난, 스가랴, 다니엘, 예레미야 등과 함께 보아야 한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해석 불가능, 교회는 환나 전에 휴가된다.

2.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란기 사건들이 여러 각도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계시록을 정직하게 보면 적어도 네 번 환란기가 나옴을 볼 수 있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적그리스도와 그의 행위, 일곱 금병

적그리스도: 계11:7, 계12, 계13, 14장

오늘 우리 < > 계시록 14장을 살펴보려 한다. 유대인 144,000명, 세 천사의 선포, 적그리스도에게 정배하는 것의 치명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심판 등. 이제는 1장을 설명해도 될 것이다.

144,000명 다시 설명

살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특히 국위 선양을 한 선수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승리가 넘어간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정복자 이상 가는 자라고 한다.

롬8:37, 요일5:3-5, 딤후4:7-8

때로 죄의 패배자가 되기는 하지만 신분 면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계14장에는 큰 승리자들이 나온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144,000명이나(*)

계14:1, 14장 1-5절에는 다시 144,000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계7:4-9에 나오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자들이다. 다른 해석 불가능

이들은 계7에서 봉인을 받아 땅에서 사역을 한다(7:3). 아마도 온 땅을 다니며 왕국의 복음 선포(마 24:14)

1절의 주인공은 사실 어린양이다. 그분 때문에 이들이 승리한다.

중요한 점: 14장에서 이들은 하늘에 있다(14:3; 계7:9-12의 대환난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늘에 있다).

질문: 아마 이들도 3년 반 사역, 하나님의 봉인,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이들은 승리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늘에 있는가? 우리는 이 경우 그들이 순교당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도 있다. 계11장 두 증인, 죽었다가 부활한 뒤 하늘로 끌려올라 감(휴거받음 11:12))

어쩌면 144,000명도 끝 부분에서 휴거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절의 시온 산은 교회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산이다(히12:22; 겔28:14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48:2의 시온 산, 사14:13, sides of the north(우주 위에 놓인 높은 공간)

즉 시온 산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런데 문맥 상 여기는 하늘이다.

이들의 이마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7장 봉인의 의미

13장의 세상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이마의 표,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다.

계14:2 하늘에서 누군가가 음악을 한다. 하프 타는 자들은 15:2-4에도 있다.

계14:3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4,000명 외에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의 144,000명은 아주 특별한 그룹 혹은 존재들이다.

아마도 15:2의 승리자들은 15:3의 모세의 노래(출15장, 특히 2절)와 어린양의 노래(계5:9-13):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구약적인 개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14:12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 이것은 12:17과 같은 말이다.

결코 믿음 +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롬11:6). 록크맨주의자들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이들이 유대인임을 보여 준다. 성도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름: 교회 시대와는 다른 시대임을 보여 준다.

계14:4 이들(These, 그리스어 남성 복수)은 남자들이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말은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히13:4). 다만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임을 보여 준다.

왕국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자들, 여기에 쓰인 처녀들(virgins)도 남성 복수이다.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교회 전체가 순결한 한 처녀로 주님께

정혼되었다(고후11:2).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14장에 있는 이들은 여러 처녀들이다.

마25:1의 처녀들(10명), 이들은 신랑이 올 때에 신랑과 결혼하러 가지 않고 그를 맞으러 간다(25:6).

신부 처녀는 한 여자로 따로 있다. 그것이 교회이다. 여기의 처녀들은 환난기 끝까지 견디다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다(마24:13).

이들은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참석하지만 신부가 아니다.

시45편 참조, 13-14절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천주교 신부들도 아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아6:8,9에도 많은 처녀들이 있다.

이들은 남자들이지만 반드시 'virgins'라고 해야 한다. '동정'이라는 말이 아니다.

교회도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도 여자

이들은 첫 열매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 즉 환난기가 열렸음을

뜻한다. 즉 그 새 시대의 첫 열매

첫 열매, firstfruits(스트롱 번호 536), '첫 열매들'이라고 하면 오역이다. (*) 그리스어 자체가

단수이고 영어도 집합 단수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지 첫 열매들로 하면 안 된다(고전

15:23).

첫 열매, 수확이 있다. 수많은 환난기 성도들(계7:9-17),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

이들은 주님이 가는 데마다 간다.

계14:5 환난기 유대인 성도들, 144,000명,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은 자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 천사의 메시지(6-13)

계14:6-7 여기의 첫 번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며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신약성경에 총 101회),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이 있다.

1. 왕국의 복음(마4:23, 24:14), 2. 은혜의 복음(행20:24; 롬15:19), 3. 영존하는 복음(계14:6) 등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시작이다.

창조 신앙이 믿음의 시작이다. (*)

창조의 복음, 심판의 복음, 구원자가 아니라 창조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계시록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선포됨(계3:10부터 총 8번)

계14:8 다른 천사의 메시지, 바빌론이 무너졌음. 18:2 참조.

실제적인 바빌론 혹은 바빌론 체제가 무너짐.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 시스템의 멸망을 간단하게 선포함

구체적으로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은 실제로 17, 18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14:8, 10, 18:3)

구체적인 심판 내용 17-20절에 나온다.

계14:9-11 다른 천사의 메시지, (*)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경고

영원한 지옥 불 호수 심판,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대개 순교한다.

계14:12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 구약시대와 비슷하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았다. 환난기에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약의 명령들(율법)을 지키며(11장의 성전, 단9장의 환난기 희생 예물 등) 이방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다(다시 강조한다.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수는 순교하고 일부는 살아남아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마25장이 말하는 양과 염소 심판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 이들이 양 민족이다(마25). (*)

그러나 환난기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계14:9-11; 계21:8; 마25:30, 41; 유13; 벧후2:17).

영원한 고통(마25:41, 46; 단12:2)

계14:13 장례식 구절이 아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제부터'이다(계 13:15 이후). 이때에는 순교하는 것이 낫다.

재림 전에 주님께서 땅을 수확하심

계14:14 재림하시기 바로 전의 예수님(사람의 아들), 19:11과 다르다.

계14:15-18 마13:39, 땅의 수확, 여기는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이다. 즉 이방인 민족들의 수확(율3:9-17), 여기의 수확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계14:19 땅의 포도 수확, 진노의 포도즙 틀(*), 피가 말 굴레 1m 높이로 약 300km(1,600 스타디온)나 흐름(*).

사63:1-4, 6절 참조, 계19:13,15, 다시 자세히 설명함

계14:20 예루살렘 밖으로 피가 흘러 나감, 두려운 예수님(율1:15)

이처럼 무서운 기간이 바로 7년 환난기이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채여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

계34 하나님의 최종 진노의 일곱 금병(대접) 심판

성경말씀: 계16:1-21

지난 주 계시록 14장을 살펴보았다. 14장은 하나님의 7년 환난기 심판의 전모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유대인 144,000명, 세 천사의 선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의 치명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심판 등.

계7:1-8의 유대인 144,000명은 땅에 있다가 지금은 어린양과 함께 하늘에 있다.

이들과 11장의 두 증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 7장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의 구원(9-17).

여기의 144,000명은 처녀들이다(4). 그런데 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첫 열매이다(4). 새로운 시대를 뜻함, 교회 시대 이후 환난기 시대임을 보여 준다.

이것이 끝나고 세 천사의 메시지

1. 계14:6-7 여기의 첫 번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6).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시작이다.

2. 계14:8 다른 천사의 메시지, 바빌론이 무너졌음. 18:2 참조.

실제적인 바빌론 체제가 무너짐. 음녀 종교 체제

구체적인 심판 내용 17-18장에 나온다.

3. 계14:9-11 다른 천사의 메시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과 그의 표,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경고 영원한 지옥 불 호수 심판(11),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대개 순교한다.

그러나 환난기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계14:9-11; 계21:8; 마25:30, 41; 유13; 벧후2:17). 영원한 고통(14:11; 마25:41, 46; 단12:2)

계14:13 장례식 구절이 아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아무 때나 아니라 '이제부터'이다 이때에는 순교하는 것이 낫다.

재림 전에 주님께서 땅을 수확하심

열매가 다 익으면 우리는 수확한다. 땅의 모든 것, 심판을 향한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수확할 때가 왔다.

계14:14 재림하시기 바로 전의 예수님(사람의 아들), 낮, 19:11-14와 다르다.

계14:15-18 마13:39(가라지 비유), 땅의 수확, 여기는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이다.

즉 이방인 민족들의 수확(골3:9-17), 여기의 수확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18절의 불은 제단 불을 말한다.

계14:19 땅의 포도 수확, 진노의 포도즙 틀

피가 말 굴레 1m 높이로 약 300km(1,600 스타디온)나 흐름.

계19:13-15에서 이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계14:20 예루살렘 밖으로 피가 흘러 나감, 두려운 예수님(골1:15)

이처럼 무서운 기간이 바로 7년 환난기이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채여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오늘은 < >, 먼저 15장, 환난기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1-4), 일곱 금병을 가진 천사들(5-8), 16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일곱 금병 심판의 내용

15장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1-4)

진노라는 말, wrath, 총 198회, 계13번, 주로 하나님의 추상같은 분노(호령 따위가 위엄이 있고 서슬이 퍼르다). 특히 주의 날의 심판을 언급할 때 wrath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계15:1 교회는 결코 진노에 이르지 않지만(살전5:8-10)

1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 진노인 금병 심판을 당한다.

금병 심판은 환난기의 후반부에 생긴다. 집중적으로.

계16:2를 보면 금병 심판이 이를 때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짐승은 계13:5에서 보듯이 후반부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일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6-7장, 일곱 봉인

8-9장, 일곱 나팔

15-16장: 일곱 금병

순서대로 7년간에 걸쳐 봉인, 나팔,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한다.

봉인 1 2 3 4 5 6 7 → 나팔 1 2 3 4 5 6 7 → 병(대접) 1 2 3 4 5 6 7 (*)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는 성경 신자.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계시록은 유대교 요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형태(*)

봉인	1	2	3	4	5	6	6-7장
나팔(7번째 봉인)			1	2	3	4	8-9장
병(대접), 일곱째 나팔					1	2	15-16장

일곱째 나팔(계11:15-19, 비교 10:7),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유연한 자세로 그대로 순서를 따라 가면 된다.

계시록 타임 라인(*)

계15:2 유리 바다(계4:6), 겔1:22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음(얼어붙은 유리 바다)

이들은 계4:6; 7:13-15; 14:2-3 등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부활하거나 휴거받아 하늘에 올라가 있다.

계15:3 모세의 노래(출15장, 신31:19, 22, 30, 32:43 등은 아니다)와 어린양의 노래(계5:9-14), 성도들의 왕, 그리스도는 현재 성도들의 왕이 아니다. (영적으로는 왕,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다. 지금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환난기 이후에 왕이 되신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제사장과 왕이 된다(계1).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롬8; 갈3).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눅19; 딤후2). 우리는 지금 통치하지 않는다.

계15:4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나아와 경배한다. 슥14장, 사2:1-4, 시72, 시110, 구약의 주제
15장, 일곱 금병 천사들(5-8)

계15:5-8 하늘의 성전(8:3-5; 11:19; 14:17)

일곱 금병의 심판, 병: 향수병처럼 몸통은 크고 목 부분은 작은 병, 호리병(*)

16장, 일곱 금병 심판의 내용

계16:1 하나님의 최종 진노의 병들, 심판의 절정, 땅에 쏟아부으라.

계16:2 첫째 금병 천사(*), 짐승의 표(계13:12), 42달(계13:5), 42달 동안 두 증인(계11:2-3), 1,260일 동안 여인의 뵤박(계12:6)

헌데는 어찌면 구약성경의 나병일지도 모른다.

계16:3 둘째 금병 천사(*), 바다, 썩물

계16:4 셋째 금병 천사(*), 강들과 물들의 근원, 민물, 모세의 표적(계11:6)

계16:5 물들의 천사의 말, 이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다.

계16:6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대규모 죽음은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짐, 악한 자들이 피를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계16:7, 제단에서 나는 소리, 의로운 일이다(계6:9-11), 다섯째 봉인, 제단 밑의 혼들

계16:8-9 넷째 금병 천사(*), 해가 뜨겁게 해서 사람을 괴롭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넷째 나팔(계8:12), 말4:1-2 비교

계16:10 다섯째 금병 천사(*), 어둠이 덮인다. 모세의 표적(출10:20-23). 두 증인
혀를 깨문다(아마도 갈증으로 인해). 계11장 6절의 엘리야의 사역(42달),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재앙을 내린다. 16:2의 재앙, 16:3의 피, 16:10의 갈증

계16:11 사람의 상태 계9:21-22, 렘17:9; 시39:5,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계16:12 여섯째 금병 천사(*), 천사 유프라테스, 계9:13-14의 여섯째 나팔, 유프라테스에 묶인 네
천사를 풀어 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음, 넷째 봉인 때 이미 4분의 1 죽음
동방에서 2억 명의 악한 자들이 온다(9:16-17).

거기서는 악한 영들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인간 왕들의 진행
사11:15-16, 강이 말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민족들이 모인다.

계16:13 부정한 영은 개구리 같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다(마13).

사탄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대언자, 속이는 영들(살후2:9)

계16:14 이 부정한 영들이 기적들을 행한다(계13:3, 14). 병 고침은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다.
행16장의 점치는 소녀, 하나님의 큰 날, 율2:1, 하나님과 싸우려고 사람들을 모은다.

계16:15 삼입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어쩌면 환난기 이후의 휴거받는 성도들을 가리킴
자기 옷을 지킨다. 고운 아마는 성도들의 의(19:8, 14), 또 다시 믿음 + 행위가 아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계16:16 여기의 그는 마귀 혹은 적그리스도

아마겟돈의 뜻: 군중들이 모이는 산, 뜨겁도 골짜기(*), (*)

계16:17-18, 일곱째 금병 천사(*), 심판의 절정, 다 이루어졌도다(17). 엄청난 규모의 지진, 예루살렘
에도(슥14:4-5 참조)

일곱째 봉인(계8:5), 일곱째 나팔(계11:19), 일곱째 금병(계16:18)

일곱째 이후에 동일한 것들이 생긴다: 음성, 천둥소리, 지진

계16:19 그 큰 도시는 예루살렘일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바뀐다(골짜기, 산, 사해 사40:3-6; 겔47:1-12 참조).

바빌론, 계14:8에서 이미 멸망됨, 자세한 멸망 과정은 17-18장에 기록됨.

예수님의 지상 강림은 계19:11에 이루어진다. 17-18장은 16:19의 설명

계16:20-21 우박(수10:8-13), 우박의 무게: 20-30kg,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포악해
짐. 감사하게도 신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

15절을 기억하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준비해야 한다. 준비는 구원, 그 뒤 성화

살전5:2부터, 특히 9-10

계35 카톨릭 주도 WCC 음녀 신비 바빌론 단일 세계 종교의 멸망

성경말씀: 계17:1-21

계시록 총 22장, 지금까지 34회 강해, 4장 이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을 다룬다. 특별히 4-19장의 시기를 우리는 7년 환난기라고 부른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되어 땅에 없다.

휴거 뒤 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중에 구원받는 자들,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11-12장, 이 와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

13장, 적그리스도가 하는 구체적인 일: 짐승의 표, 경배, 매매 불가능

14장은 하나님의 7년 환난기 심판의 전모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유대인 144,000명, 세 천사의 선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심판 등.

15장은 환난기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6장은 구체적인 일곱 금병 심판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수많은 군대가 동방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16:12, 16).

이 일을 위해 사탄의 삼위일체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들이 나와 기적들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인다.

일곱 번째 천사가 금병을 부음으로 7년 환난기가 끝난다(16:17).

바빌론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16:19)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된다.

19:1-2,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판 찬양, 19:12, 예수님의 지상 재림

20장 천년왕국, 그 이후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런데 우리 앞에 17-18장이 남아 있다.

이 2장 역시 팔호 장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언급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왕국 통치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도 있었다. 구체적인 것, 시행 기관 등 모를 사람은 단순히 정치, 경제 이런 것들만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무엇이 필요한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 단일 종교 체제

종교의 이름과 대상인 신은 달라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

이 종교 체제가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합을 돕는다. 이것을 성경은 바빌론 음녀라고 말한다(17:5).

17-18장은 바빌론 음녀의 종교 문화 상업 체제가 멸절되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 > 바빌론 큰 음녀의 정체, 음녀에 대한 심판 (*)

음녀는 한마디로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빌론 로마다(5절)

종교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함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남아 있으므로 영원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개입하여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왜곡한다. 롬1:21-23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를 집어넣는다. 딤후4:1, 특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선민, 그러나 이집트 탈출 이후의 역사를 보라.

광야, 사사, 왕정 시대, 말씀이 끊어짐, 예수님 당시, 시도 때도 없이 우상숭배

그러니 다른 민족들은 오죽하겠는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벧전1:18)

우리나라 불교, 유교, 샤머니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마귀는 세상 곳곳에 거짓 종교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짓 종교 체제는 마지막 때에 마귀를 위해 제 역할을 한다. 모든 거짓 종교 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도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유대교와 이슬람 분쟁, 인도 파키스탄 분쟁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종교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17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적 종교적 적 본질, 18장은 물질적 본질을 보여 준다.

이 일의 주동자는 물론 마귀, 그러나 특별히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둘째 짐승 거짓 대언자
바빌론의 멸망은 이미 14:8, 16:19절에 명시되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17, 18장에 나온다.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 질실하게 종교를 갈망하게 된다.

일곱 봉인, 나팔, 금병,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 마귀는 마귀들을 사용하여 바빌론 종교, 단일세계종교를 굳건히 세운다.

물론 이 일은 WCC 등의 예비 과정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빌론의 시작

노아의 홍수 이후, 새롭게 세상이 시작됨

하나님의 명령(9:1),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남, 지도자는 니므롯

창10:6-10,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강력한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11장 1-9절에 생김

1절: 한 언어

2절: 드디어 이들은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을 만나고 3-4절 바벨탑을 쌓는다

스스로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4).

홍수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노아 셈 함 야벳 등이 살아 있음) 하나님께 대적함, 이것이
인간의 본성

7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전 세상으로 이들을 흠으심(*)

세계 4대 문명, 우리나라 단군 기원, 주전 2333년, 단기 4355년

그러자 이들은 자기들의 거짓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나감

그럼에도 여전히 바빌론은 거짓 종교 시스템의 메카

전설에 따르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죽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함

담무스는 니므롯의 환생, 이러면서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가 홍왕함(*)

세미라미스, 이 어미 여신의 이름은 다양하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아스다롯, 하늘의 여왕(렘44:15-19) 숭배

담무스 숭배(겔8:14), 태양신 숭배

17장은 이런 거짓 종교 시스템을 음녀, 창녀라고 부른다.

이 창녀는 한 개인이 아니다. 거짓 종교 시스템이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을 행함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성경은 음행, 간음이라고 말한다.

배경

요한은 현재 정치적인 로마 제국 체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의 날 즉 마지막 때의

환상 속에서 정치적인 음녀 로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음녀 로마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음녀를 천주교회로 보았다. 팩트;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계17:1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 15절 많은 물들의 의미를 보여 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장악함

음녀는 종교 체제인데 실제로는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바티칸은 정치 체제이다.

계17:2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을 벌임,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포섭됨, 음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치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움, 환난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온 땅에 사는 거주자들도 거짓 종교에 빠짐

계17:3 그 천사가 그를 광야로 데려감,

음녀를 태운 짐승(3)은 계13:1의 짐승과 비슷하다(*).

음녀는 짐승(정치 세력) 위에 타고 세상을 주무르는 종교 체제

이 짐승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 여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 체제이다.

신비(5절),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신부가 있다. 이 음녀가 곧 마귀의 신부이다.

바빌론 신비 체제는 니므롯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사제 체제, 교황 체제, 아기와 어미 숭배, 유골

숭배, 성인 숭배, 행위 + 믿음의 구원, 연옥 개발, 면죄부 개발, 세례 중생, 미사 (*)

짐승과 음녀는 당분간 공존한다.

17:4 음녀의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은 사치의 상징이다(삼하1:24), 당시 가장 비싼 염료와 옷, 교황 시스템의 색이다. (*)

17:5의 금잔, (*) 바빌론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곳 렘50, 51장(각각 46, 64절), 51:7을 보라.

창녀는 손님을 취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 로마 시대 창녀는 자기가 참여임을 보여

주는 무언가로 자신을 단장하였다. 역 창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신비 바빌론, 이 말은 위치를 뜻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단일 세계 종교 신비 시스템

주도하는 단체 로마 카톨릭

17:6: 성도들의 피는 구약 시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 신약시대와 환난기

그러나 로마 체제로 인해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유아세례와 미사로 인해

마지막 때에는 음녀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 있다. 전 세계의 천주교화, 단일세계종교화

그래서 요한은 크게 놀란다. 기독교의 탈은 쓴 음녀를 보고

마틴 로이드 존스, 천주교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

17:7: 놀라지 말라. 내가 정체를 보여 주겠다.

짐승의 신비는 8-17절, 음녀의 신비는 18절

이 둘의 관계를 요한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놀란다.

17:8 음녀가 탄 짐승은 마귀가 인격화된 어떤 존재이다. 이자는 요한 이전에 있었으나 요한 당시에는

없고 다시 나중에 나타난다. 용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존재,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계시록 강해 31번,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는 가룟 유대인가?> 참조

17:9 계13:18과 비슷한 구절, 일곱 산, 로마이다.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7:10 일곱 왕, 정체는 모름, 마지막 왕은 잠시 동안 머문다(3년 반). 적그리스도의 왕국

17:11 여덟 번째는 처음의 일곱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된 로마라고 본다. 어쩌면 유럽 전역

즉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로마의 모든 시스템 특히 종교 정치 시스템은 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절정을 이룬다. (*) (*)

17:12 마지막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열 발가락의 왕국을 뜻한다. 열 왕이 모인 연합 왕국,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음, 이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임,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계17:14)

17:13, 14 이 짐승의 정치 체제와 음녀 종교 체제(천주교가 이끄는 단일 종교 체제)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한다. 이 음녀 체제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한다(계18:4,5). 렘

51:45

17:15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온 세상을 지배한다.

계17:16 음녀의 최후,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인 열 왕이 음녀 종교 체제를 이용한 뒤 끝을 내 버림.

계17:17 살후2:10-12

계17:18 성경에서 도시는 종종 여인으로 표현된다(시46:4,5; 시48:1-3; 계21:9-10).

이 도시는 로마이다. (*)

결론

창세기는 계시록과 대조를 이룬다.

낙원의 상실, 회복

바빌론의 시작, 바빌론의 멸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카톨릭 교회 중심의 단일 세계 종교, WCC에 참여하면 안 된다. 계18:4
WCC(*), 교황(*)

WCC 참여 목사는 가짜든지 배도한 자든지 둘 중 하나이다. (*), (*)

살후2장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적들로 다가온다. 맑은 정신으로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화평을 주실 것이다.

계36, 마리아 숭배 카톨릭 교회는 바빌론 음녀인가?
WDD 종교 통합은 배교이다.

천주교의 유래 PPT

계37 마귀의 신부 UCC 바빌론 음녀 단일 세계 종교에서 나오라

성경말씀: 계18:1-24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성경의 총 결론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와 그의 천사들 파멸, 이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보상에텐동산 복원 천년왕국

계시록 총 22장, 지금까지 36회 강해, 17-22장 마지막에 다다랐다. 총 결론이 나는 부분 지난주부터 17-18장, 이 두 장은 괄호 부분이다. 원래는 16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음녀 체제 및 체제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심

17:1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여인(17:15)

그런데 이 여자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17:2) (*), 이상한 여인의 이름 신비 바빌론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도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유대교와 이슬람 분쟁, 인도 파키스탄 분쟁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종교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17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적 종교적 적 본질, 18장은 물질적 본질과 멸망을 보여 준다.

오늘은 < >, 18:4-5절

바빌론 음녀 체제는 무엇인가?

마귀는 모방의 명수

하나님을 모방한다. 사탄의 삼위일체(*)

구약 시대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하나씩 나온다. 물론 한 여자가 아니가 종교 시스템

마찬가지로 마귀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음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바빌론 음녀는 마귀의 신부

그러므로 바빌론 음녀는 조직화돼서 마귀의 일을 하는 종교 집단

종교개혁자들은 이 음녀가 천주교회라고 믿었다.

왜 17:6, 음녀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인 데 로마 카톨릭 교회:유아세례, 고해성사 반대, 교회 내 성직자 계급 체제 반대, 성경의 유일한 권위 반대(성경 금서), 신부와 수녀 독신 생활 반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상 왕국 통치, 무천년주의 확립,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 여인의 주거지, 7개의 산(언덕)의 도시, 17:18(*)

그래서 우리는 여기 17-18장에 나오는 음녀가 천주교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온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세상 끝으로 가면서 천주교회의 주도하에 온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원래 세상 모든 거짓 종교는 바빌론 바벨탑에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규합하려고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 구심점이 가장 큰 종교 세력으로 신약 시대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천주교와 천주교 교황이 되어야 한다. (*), (*), (*)

그런데 적그리스도 짐승과 짐승을 돕는 열 왕의 세력이 음녀를 이용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든 뒤에는 이 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살후2장,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은 뒤에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려 함

그래서 음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그래서 음녀를 죽여 버리고(17:16) 적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게 함

18장은 음녀와 그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이들이 어떤 호강을 누리고 살았는지,

최종 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신다.

바빌론 심판의 필요성

인간이란(사40:15, 17)

행14:16, 하나님이 참아 주심, 시편 2편 1-4

하나님의 심판(행17:30-31)

살후1:6-10

7년 환난기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기회를 주신다.

144,00명, 두 증인, 환난기에서 구원받은 자들, 심지어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메시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아 진리를 모르고 음녀와 저그리스도를 추종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살후2장을 보라

바빌론의 멸망 선포(18:1-3)

18장에 대한 견해

첫째 견해: 17장과 같은 음녀 체제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음녀의 종교 장사로 인한 부의 축적, 함께 부역하던 자들의 패망 등

둘째 견해: 마지막 때에 바빌론이 세워진다.

음녀 바빌론은 일곱 언덕에 세워진다(평양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제로 바빌론이 재건된다면 계18:24를 설명하지 못한다(계17:6).

구약성경 사13, 14, 렘50, 51은 바빌론의 영구한 멸망 예언

결론: 그러므로 음녀는 종교 체제가 합당하다. 다만 18장에서는 상업과 부를 축적한 음녀의 패망 이로써 인간의 모든 노력, 적그리스도의 수고가 모두 수포가 되 예수님의 재림

바빌론의 멸망 선포(18:1-3)

멸망의 두 가지 이유

1. 악한 영들의 처소(2)
2.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벌이게 함(3)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이단 사이버 시스템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그의 앞잡 노릇을 하는 음녀가 있다. 영적 싸움임을 기억해야 한다,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뒤에는 마귀가 있다.

멸망을 피하려면(18:4-5)

내 백성아 음녀 체제에서 나오라(렘51:45). (*)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모든 이단 사이버, 비성경적 교리(딤후4:1), 반셈족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환난 통과, 성직자 계급 체제

교회의 모든 비성경적 관행 버리고 나와야 한다.

예수님의 교회는 정결한 처녀(고후11:2), 뱀의 유혹

불신자들과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후6:14-17)

공의로운 심판(18:6)

6: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킹제임스 성경: 그녀의 행위에 따라 그녀의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라.

her double의 double 삭제함, 삼하12:6 네 배

삭개오 눅19:8, 네 배로 갚아야 한다.

화려한 음녀(18:7-8)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삶, 교황, 중세 시대, 유대인들, 재산 몰수, 고해성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 소유, 막강한 재력 (*). (*)

왕들, 종교 지도자들(*), (*), (*), (*)

함께 부역하던 자들의 탄식(18:9-14)

모두가 놀란다. 어떻게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이 음녀는 땅의 좋은 것들을 탐하였다(12-13).

맨 마지막 사람들의 혼들, 한 혼이 세상보다 귀중하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16:26).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혼을 탐하는 종교 시스템을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믿음+행위, 교회다운 교회에 나가야 한다. 혼을 살리는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만다. 교회 건물, 성당 건물 다

함께 부역하던 자들의 탄식(18:15-19)

다시 한 번 부역하던 자들의 통곡 소리

하나님의 심판(18:20-11)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심(계6장의 혼들)

맷돌처럼 바다 속으로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18:22-24)

음녀의 모든 기쁨과 희락이 끝난다(22-23).

이유 1. 마법으로 민족들을 속임 (*), (*)

2.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죽임

결론

계18:4-5

내 백성아 음녀 체제에서 나오라 (*), (*)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날이 오고 있다.

환난 전 휴거 받아야 한다. (*)

계36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성경말씀: 계19:1-21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성경의 총 결론, 예수님의 재림, 왕국의 설립, 새 하늘과 새 땅
지난 몇 주, 7년 환난기 맨 끝 부분, 17, 18장 음녀 바빌론의 파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음녀 바빌론 적그리스도의 신부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음녀 바빌론 파멸, 7년이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때에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주님께 대항하다가 날짐승들의 밥이 된다.

지상 강림 전에 하늘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

이 모든 것이 19장에 들어 있다. 오늘 < >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다(계4:11).

특히 성도들 히13:14-15

감사 찬양의 이유

1. 그분의 거룩함(시30:4)
2. 그분의 긍휼(시136:26)
3. 그분의 선함(시106:1)
4. 그분의 위로(시75:1)
5. 하나님의 일들: 창조 사역, 구속 사역
6.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심
7. 성화 사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파멸시키시는 것에 대한 찬양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찬양이 많다.

신32:43,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시라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시58편,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9-11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파멸시키는 내용이 계19장에 들어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구속받은 성도들과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이다. 헨델의 메시아 찬양

할렐루야 찬송(1-5)

1절: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시150:1). Praise the LORD!

할렐루야의 야는 여호와, 시104:35,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
기를 원하노라.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성경 구약에 24번 정도, 신약에 4회(계19장 1, 3, 4, 6절)

여기는 구원과 구속의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메시아 할렐루야 가사)

2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음녀 심판,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 주심(계6:9-11)

사9:6-7

3절: 그녀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계14:11). 바빌론 거짓 종교 체제, 완전히 멸절됨

4-5절: 할렐루야 찬송,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6-9)

6절: 전능하신 분(omnipotent), 성경에 단 1회, 전능자의 통치, 창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 단7:9-14, 옛적부터 계신 분, He is in control!

7-9절 어린양의 혼인 만찬,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가장 기쁜 날, 그날 기뻐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전 우주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된다.

어린양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

현 시대의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정혼되어 있다(고후11:2-3).

휴거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3:10-16; 고후5:10,11; 롬14:10-12).

신부는 심판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

땅에서는 환난기, 하늘에서는 신부의 단장, 그리고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가장 큰 사건,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

7절을 다시 보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요14:1-3) (*)

정혼: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정혼 언약을 맺음.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mansion)을 마련함.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감(마25:1-13).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음.

그들은 신부 방으로 들어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물(창29:27).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음.

7일 연회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 만민에게 공개함.

8절 성도들의 의, 아마포,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엡2:8-10).

9절 혼인 만찬 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부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신부가 아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환난기 성도들, 시45 참조(결혼식)

시대별 성도들 간의 차별을 말하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의 연합을 보여 준다.

시대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 신분에 차별이 없다. 보상을 빼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유배 상태에 있는 요한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10절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천사, 성인, 마리아, 목사, 주교, 교황...)

실제로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들이다(히1:14)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요16:13). 모든 대언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즉 요한도 천사도 다른 대언자들도 모두 같은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경배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인간의 꿈, 유토피아 건설, 죄성과 마귀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드디어 창3:15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자의 씨 사탄의 머리를 부숨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스스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토픽, 사도 바울의 주제, 성경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
창3:15; 창6; 창19; 신27,28; 사4, 11, 24, 26, 27, 34, 35, 40, 63, 66 렘50, 51; 단2,
7; 욥2; 미4; 슥14; 마24; 막13

에덴동산 유토피아 건설(시편 2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파멸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6:20).

11절 계4:1-3 이후에 하늘이 두 번째 열림,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의 그리스도는 계6:1-2의 적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첫째 봉인

의롭게 심판하고 전쟁을 하신다.

어디로 오시는가? 행1:9-11, 올리브 산(슥14:4),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12절 아무도 모르는 이름, I am that I am.

13절 요1:1-3, 피에 담긴 옷(계14:10; 사63:1-5; 시68:23) (*), 포도즙 틀 심판

14절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군대(계19:8), 교회(살전3:13; 유14-15), 또 천사들도 온다.
롬8:19

15절 검(계1:16) 사34:5, 포도즙 틀(계14:14-20), 시2:9; 계2:27; 12:5의 철장

16절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헨델의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계6:15-17; 11:15; 16:16).

적그리스도의 군대(2억 명의 악한 영들; 계9:13-17) (*)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어린양의 혼인 만찬 이후에 내려온다.

17-18절 새들을 위한 잔치(비슷한 곳 겔39:1-22), 눅17:34-37과 마24:28, 휴거가 아니다!

사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 적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

19절 계9:15-17; 16:12-16; 17:13,14

20절 계13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불 호수는 둘째 사망(계20:14-15; 마25:41)

21절 검(히4:12; 살후2:8)

결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맨 마지막에 사탄의 삼위일체와 그의 추종자들 파멸로 이끄신다. 최종 심판 집행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한다.

환난 전 휴거를 받고(*)

정혼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계시록 공부의 핵심이.

계3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

성경말씀: 계19:11-21

지금까지 계시록 38회 강해, 계시록 4-19장, 7년 환난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이스라엘 박해, 두 증인, 144,000명, 적그리스도, 사탄의 삼위일체,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제 20-22장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오늘은 < > 계19:15, 14:19-20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오늘 설교는 우유가 아니라 고기이다(히5:12-14).

포도즙 틀 심판

7년 환난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세상에 쏟아지는 심히 무서운 때이며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환난기의
극심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 준다. 특히 환난기 끝에는 포도즙 틀 심판이라는 공포의 심판이
나온다.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계14:19-20).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는 시점 즉 환난기의 맨 끝 부분에서 천사는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졌다. 그러자 어떤 존재가 그것을 짓밟아 으갠더니 피가 나와 말의 목까지 차올라오며
300km를 흘러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포도즙 틀’(wine press)이라는 심판 도구가 나온다. 기존
성경은 이것을 포도주 틀이라고 오역하였다. 땅에 판 큰 틀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밟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나온다.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 조그만 틀이 아니라 성인 남녀 20명이 들어가 발로 밟아 포도를 으갠 수
있는, 땅을 파서 만든 큰 틀이다. 성경에는 지옥과 불 호수가 있다. 아마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형틀이 될 것이다. (*)

말굴레 높이까지 피가 차서 300km까지 흘러가려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

[그분께서]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계19:15)

즉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포도즙 틀에서 사람들을 짓밟으니 그들이 포도처럼 으깨어져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포도즙 틀: 지옥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장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재림 상황 설명

예수님 재림의 상황, 계19:15, 그 결과 죽임 당한 자들, 날짐승들의 밥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 눅17:22-37, 7년 환난기 끝 부분의 상황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과 갑자기 닥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구약 시대의 2가지 예를 드심

1. 26-27절, 노아의 때(마24:37-39, 창6)
2. 28-30절, 롯의 때(창19)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 쾌락만 추구하면서 전혀 재림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됨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사함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을 빼고는 모두 유황 불 심판

17:30-36(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은 7년 환난기 마지막 부분, 재림 전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마24:29-44).

7년 환난기 바로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 (*)

고전15:51,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는 31절 지붕에 있어야 하는지(31), 들에 있어야 하는지(36),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31)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34-36, 예수님 지상 강림 바로 전,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

두 여자가 멧들을 갈고 있다.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

두 남자가 들에 있다.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

영어 taken은 하늘로 휴거받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24:36-41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기 위해 붙잡혀 가는 것을 뜻한다.

남겨진 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 밤(34), 그 낮(35-36),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목격된다.

결론: 온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붙잡혀간다.

37절 제자들의 물음, 주님의 답변, 독수리 같은 날짐승의 밥이 된다(계19:17-21).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

결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분리가 생긴다. 낮이든 밤이든, 일하고 있든 자고 있든, 분리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들어가 날짐승의 밥이 된다.

마25: 양과 염소 민족들 심판, 34, 41(*)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계19:15). (*) (10미터, 10미터), (*)

계14:15-18 마13:39, 땅의 수확, 여기는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이다. 즉 이방인 민족들의 수확(율3:9-17), 여기의 수확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계14:19 땅의 포도 수확, 진노의 포도즙 틀, 피가 말 골레 1m 높이로 약 300km(1,600 스타디온)나 흐름

계14:19-20

(1) 말골레까지 피가 쌓여 약 300킬로미터나 흐르려면 이 피는 어디서 오는가?

(2) 말골레까지 피가 쌓여 약 300킬로미터나 흐르면 이 피는 어디로 가는가?

(1) 예수님 재림 때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눅17:36-37)

계19:15-18(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예루살렘 근처(슌12:2, 9; 14:2), 여기가 바로 포도즙 틀이다(사34:1-6).

계14:19-20은 이곳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 도시(예루살렘) 밖에 있다.

계14:19-20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낮은 사람들을 수확하는 것을 보여 준다.

포도는 악한 자들을 보여 준다.

포도즙 틀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밟는 것을 보여 준다.

땅의 포도(붙잡혀 가는 자들), 그들은 진노의 포도즙 틀로 붙잡혀간다.

(2) 피는 어디서 오는가?

아마겔돈의 군대들만으로는 말골레 높이의 피를 300킬로미터나 낼 수 없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한 번에 이곳에 모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3) 어디로 가는가?

포도즙 틀이 예루살렘 밖에서 시작되면 어디로 가는가? 북으로 아마겔돈으로(거리가 짧다, 100km).

군대들은 아마겔돈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온다(슌12:2, 9). (*)

슌14:4, 동서로 산들의 골짜기가 생긴다.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불신자들이 골짜기에 갇힌다(슌14:5)

어떤 골짜기: 위의 골짜기는 포도즙 틀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골짜기가 있다.

욘3:2a, 12-14의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판결 골짜기라고도 불린다(14절).

이곳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두 골짜기가 포도즙 틀이 될 것이다.

과거의 포도즙 틀에는 두 개의 골이 있었다(밧는 데, 모으는 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밧고 피가 흐르면 모으는 데가 있다. (*), (*), 같은 그림 다시 보여 준다.

군대가 먼저 오고 나중에 악한 자들이 모두 모이면 주님께서 혹은 천사가 틀을 밧는다.

이 틀은 나중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 깨끗하게 된다(슌14:8; 겔47:1-5).

(4) 어디까지 가는가?

사34:3-8, 민족들 심판

3-4는 계6:13-14(여섯 번째 봉인)와 같음

5-6의 내 칼: 계19:15, 21의 칼, 5, 6절 이두매아, 보스라

사63:1-6의 포도즙 틀: 주님께서 에돔의 보스라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것을 묘사함. (*)

(5) 이 피는 어디로 가는가?

보스라는 예루살렘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100킬로미터).

보스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홍해(Red sea)가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홍해는 300킬로미터(*)

렘49:7-22를 보면 에돔의 멸망이 나온다. 20-22저르 21절: 홍해, 22절: 보스라

왜 홍해(red sea)일까? 파라오 사건 이후 아직까지 전적으로 빨간 바다가 된 적이 없다.

홍해도 빨간 색, 에돔의 뜻도 빨간 색이다(창25:24-30).

야곱은 이스라엘로, 에서는 에돔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예루살렘 앞 올리브산의 포도즙 틀에서부터 흘러 나간 사악한 자들의 피는 붉은 것을 뜻하는 에돔 지방을 거쳐서 드디어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면 그 거리가 300km 정도 된다, 붉은 에돔처럼 홍해 역시 말 그대로 '빨간 바다'이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군사들의 죽음으로 인해 한 번 빨강게 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이때처럼 심하게 빨강게 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때에 드디어 그 바다는 이름값을 하면서 전체가 시뻘겋게 변할 것이다.

(6) 어떻게 악한 자들이 포도즙 틀에 갇힐까?

하나를 붙잡혀 가고 하나는 남는 일: 엘리야와 엘리사(왕하2:9-11), 실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

민족들 심판 렘25:30-33, 30절: 포도를 밧는 자들, 32: 회오리바람, 33: 주께 죽임 당한 자들
회오리바람(구약에만 총 27번, 심판과 관련해서 이 단어는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 나타남)

렘23:19-20

렘30:23-24: 야곱의 회복,

사40:22-24, 시58:9-11

회오리바람이 이 사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즙 틀에 집어넣을 것이다.

(7)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틀을 밧으실까?

실제로 밧으신다(사63:1-6).

(8) 포도즙 틀이 이해되면

1. 잠2:21-22(천년왕국)

2. 시110:1, 6절 같은 구절들이 이해된다.

(9) 양과 염소 심판(마25), 욘3:2, 12-14

민족들은 심판을 받은 뒤 밧힌다.

아마겔돈에 군대가 모인 후 포도즙 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옴. 천사들이 회오리바람으로 땅의 악한 자들을 틀 안에 넣음. 이 시기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틀을 밧음.

(10) 포도즙 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참고 인내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틀에서 밟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한다. 마10:28,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떨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주의 만찬을 대할 때 포도즙(주스)을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포도즙 틀의 아픔을 기억한다(마26:29).

결론

이처럼 무서운 기간이 바로 7년 환난기이다. 7년 환난기 심판, 포도즙 틀 심판

그러므로 환난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채여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

계4^ㅁ 예수 그리스도의 유토피아: 천년 왕국 통치

성경말씀: 계20:1-15

지금까지 39회에 걸쳐 1-19장 강해, 7년 환난기 전체 설명,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오늘 계시록 40번째 강해, < >, 왕국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20장은 천년 왕국 즉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마19:28)를 보여 주고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린다.

천년 왕국(*):

의가 거하는 때, 불의란 존재하지 않는 때, 모든 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역사 등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 전쟁이 없는 때

기후도 좋고 질병도 거의 없고 저주가 제거되어 인간의 수명이 1000세까지 되는 때

인간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해 온 유토피아, 에덴동산의 회복

사11장이 이루어지는 때(11-12) (*), (*)

성경의 총 주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

구약 성경: 전체가 초림과 재림, 모두 왕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약의 대언서는 모두 왕국에 대한 것이다(여자의씨, 메시아의 통치).

성경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책”

천년왕국의 이름:

다시 태어나는 때(마19:28),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행3:19, 21)

바울의 표현: 때가 충만히 찬 경륜(엡1:10), 임자.

왕국: 하나님의 통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 4:17; 10:7).

마6장 주기도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

6:9-10, 왕국의 도래

계시록 20장을 그대로 믿으면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왕국 전에 있다.

즉 계19장이 계20장 전에 있다. 이것은 설이 아니라 교리요 믿음이다.

계19:11이 20:4전에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

후천년설, 무천년설: 비성경적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어거스틴의 천주교 신학, 반셈족주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

천주교에서 왔기 때문이다. 1,000년은 긴 기간이다(무천년주의(*), 어거스틴).

후천년주의(*): 사람들의 힘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된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성취된다(행3:19-21). 롬8:21-23, 사11:1-11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미래 일들의 개요(*)

7년 환난기 바로 전, 교회의 휴거(예수님의 신부), 휴거된 자들은 몸이 변화된다.

환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들어간다(유대인,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 순교당함

7년 환난기 끝, 두 부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환난기 성도들, 불신자들

불신자들의 처리: 아마겟돈 전쟁, 마25장 염소 민족 처리

천년왕국에는 지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

유대인(계12:6,13-17; 사60:21; 롬11:26) 이방인(계7:9-17) 중에서 믿음을 받아 구원받아
왕국을 소유한 자들만 들어감(100% 믿는 자들)

사탄이 땅에서 제거됨(1-3)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반역의 괴수를 제거하는 것, 사탄, 이 세상의 신(고후4:4), 공중 권세 잡은 자(엡2:2), 이자가 제거되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함

1절, 한 천사(정체 모름) (*)

무저갱: 계시록에 7번 등장함, 9:1, 2, 11; 11:7; 17:8; 20:1, 3, 모두 악한 영들의 일시적인 거처, 최종 감옥이 아니다. 최종 감옥은 불호수이다(마25:41), 여하튼 고통의 장소(눅8:31) 벤후2:4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역시 사슬에 묶여 있다. 이들은 풀려나지 않는다.

2절: 마귀의 정체, 1000년은 6번 나온다(2,3,4,5,6,7).

창조 후 6,000년, 1000년이 하루와 같다(사14:7, 14:12-18; 벤후3:8), 안식의 천년 안식: 히3:18 가나안의 안식, 히4:4 창조의 안식, 히4:9 천년왕국의 안식, 히4:9,10 성도의 안식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됨, 그는 현재는 결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님(벧전5: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3절: 창2:1-3, 히4:9의 일곱째 날의 안식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있다(*). 유혹하는 자가 없다.

마귀: 민족들을 속이는 자, 공산주의, 진화론, 동성애 등

그러나 사람은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마귀를 추종한다.

1000년 동안 새 시대가 열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평화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한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의식을 지킨다(사2:2-3; 사11:10-13; 슥8:21-23; 슥14; 말3:1-3)

주님이 땅에 계시므로 구령하러 다니지 않는다(슥13:2,3; 히8:8-13).

민족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음, 1000년이 만기가 될 때 잠시 풀려남(8-10절)

성도들의 통치(4-6)

천년 왕국의 통치자,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계19:16)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4절: 왕좌들에 앉은 자들: 아마도 구약 시대 성도들(단7:27), 교회 시대 성도들(고전6:2), 환난기 성도들(계6:9; 7:9-17; 12:1), 목 베임을 당한다(이슬람). 심판하는 권세 이들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 (*)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요3)은 그리스도가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다(롬14:17).

창조 이후 구원받은 모든 자들: 신구약시대, 환난기의 모든 성도들 부활

5절: 악인들은 1000년 이후에 부활함.

첫째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엡2:1-6)이 아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이단): 딤후2:17-18, 딤펢전1:20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요5:28-29), 적어도 1000년의 간격 단 한 번의 일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요11:23,24; 행24:15).

첫째 부활: 첫 열매(예수님과 몇몇 성도들 마27:50-53), 수확(휴거와 부활), 이삭줍기(환난 성도, 구약 성도) (*)

고전15:22-25 참조

첫째 부활은 환난기가 끝나야 마무리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여기서 나온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

제사장과 왕으로 통치한다(계5:10).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 대언자, 제사장, 왕

성도들도 지금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계19:10).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분리되는 것

사탄의 복귀(7)

7절: 사탄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위해 무저갱에서 놓임

1000년은 유한한 시간이다. 영원이 아니고.

세상의 반역(8-10)

8절: 배도한 자들이 그에게 붙는다.

천년왕국 시작될 때 100% 신자들, 첫 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들
첫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롬8:7).

아이들을 낳는다. 이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자들, 불신자들

천년왕국에서도 반역이 있다(슥14:17-19; 사65:20).

마귀가 민족들을 속인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역(바다의 모래 (*), 여기의 곡과 마곡은 겔38, 39의
곡과 마곡과 다르다. 같은 지역에서 반역의 주동 세력이 일어난다. 러시아, 이슬람

9절: 예루살렘 공격, 메시아 왕국의 수도

불의 심판(벧후3:7,10; 사66:22)

계20:10 마귀, 불 호수(*), 영존하는 불,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1000년 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미 사로잡혀 갇혀 있음(계19:20)

마지막 흰 완좌 심판(11-15)

첫째 부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환난기 성도들 부활

1000년이 지난 뒤 악한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 더는 심판이 없다.

11절: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희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심판자는 창조자 하나님
지금 있는 땅과 하늘, 더는 이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벧후3:13).
악한 자들이 설 장소가 없다.

12절: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행위들에 따라 심판의 정도가 정해짐(보상의 등급, 정죄의 등급),
책들이 펼쳐짐, 생명책(*)

13절: 바다, 사망과 지옥이 죽은 자들을 내쫓,

14절: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짐(*)

불 호수. 계헨나,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
둘째 사망, 지옥의 최종 상태

15절: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든 자들, 불 호수
빌2:10,11의 성취

결론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지금은 마귀가 민족들을 속이기에 완전한 뜻, 평화와 정의 공의 실현 불가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 사람의 핵심: 믿음

히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베드로, 바울,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이들이 바라던 곳 히11:9-10, 4000년 전 아브라함

모세가 한 것처럼 11:27, 3500년 전 모세

우리 역시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고전15:3-4,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
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15:4)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성경기록대로 구원, 환난 전 휴거,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Bible believer가 되자.

계4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새 예루살렘의 도래

성경말씀: 계21:1-21

지금까지 40회에 걸쳐 1-20장 강해, 7년 환난기 전체 설명,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지난 주, 천년 왕국, 민족들을 속이는 자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1000년 동안 의와 평화의 유토피아
 그러나 1000년이 끝난 뒤 마귀가 풀려나자 수많은 사람들 반역, 하나님의 불 심판

새 시대로 들어가기 전 이 시점에 크고 흰 왕좌 심판

창조 이후의 모든 악인들 심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모든 악한 영들, 둘째 사망
 이로써 지금 있는 땅에서의 모든 불의 제거, 반란 제압

이제 새로운 시대(New age)가 열리게 된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 영원한 시대
 바울 고전1-2장 하나님의 지혜 설명, 2:9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지금 유한한 몸으로는 이해 불가능,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성경대로 될 줄로 믿는다.

오늘 계시록 40번째 강해, < >,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

전체적인 윤곽

창세기와 계시록 비교

창세기	계시록
하늘과 땅 창조(1:1)	새 하늘과 새 땅(21:1)
태양의 창조(1:16)	태양 불필요(21:23)
밤이 있음(1:5)	밤이 없음(22:5)
바다들 창조(1:10)	바다들이 없음(21:1)
저주의 선포(3:19)	저주가 없음(22:3)
죽음이 들어옴(3:19)	죽음이 없음(21:4)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남(3:24), 생명나무	사람이 낙원으로 회복됨(22:14), 생명나무
슬픔과 고통의 시작(3:17)	슬픔과 고통이 없음(21:4)

새 하늘과 새 땅(1)

1절: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을 위한 곳
 그러나 첫 부모의 죄로 인해 부패와 저주가 들어옴

은 창조 세상이 신음 가운데 있음(롬8:18-23)

하늘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깨끗하지 않음(욥15:15)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완성(엡3:10): 인간 역사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제 모든 반역이 영원히 제거됨, 이 드라마 완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장소 필요(사65:17; 66:22),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에 삶
 이를 위해 옛 땅과 옛 하늘은 물러가야 함

베드로 불에 의해 정화되고 새롭게 된다(벧후3:10-13).

새롭게 된다는 의미: (1) 옛 땅과 옛 하늘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2) 옛 땅과 옛 하늘이
 새로운 성격과 형태로 바뀐다. 5절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

사람들의 궁금증,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살아남은 의로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가? 불에 의해 정화되는데.

답: 나도 모른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바다가 없다는 말의 의미: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22:1을 보라

새 땅에서는 물이 재배치될 것이다. 요한 당시 세상의 바다: 위험, 폭풍우, 분리(유배),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

여기의 바다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궁창 위의 물(욥38:30; 욥41:31-33)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과 그 안의 시민들(2-8)

2절: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며 신부이다. 성경에서 종종 도시는 사람들을 말한다(시온,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도시, 기관).

16절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른다.

거룩한 도시(계21:27), 예비된 도시(요14:1-6), 아름다운 도시(신부처럼)

이러한 특징들이 21-22장에 묘사되어 있다.

3절: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다(겔37:26-27, 전체 장 설명, 천년 왕국).

거룩한 도시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마1:23).

에덴동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걷고 거하셨다(요1:14). 휘장이 찢어져서 직통 나가게 됨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전6:19-20)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 새 시대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분 앞에 거할 수 있다(3절).

거룩한 새 예루살렘(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4:26).

계21:4,5 이 장소가 바로 요14:2의 장소이다.

요한은 이곳을 다시 표현할 수 없어서 “다시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함, no more

눈물이 없다. 사망, 슬픔, 아픔이 다시는 없다.

이전 것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5), 확산: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다.

6절: 만족이 넘치는 장소 freely 값없이(요4:13-14; 사55:1-4)

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7절: 이기는 자, 계2, 3장, 요일4:4; 5:2-4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특별한 일 하는 사람들).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들

8절: 반대로 지는 자, 불 호수에 들어가는 자들, 둘째 사망

여기의 죄인들은 이런 악한 일들을 일삼아 하는 자들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고백을 못 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죄와 구원의 안전 보장: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는다(시51:12). 간증(고전15:33,34), 건강(고전11:30), 보상(고전3:13-15)

생명(고전5:4; 11:30)을 잃는다.

9절: 이 영원한 도시는 신부의 거처이며 동시에 신부 자체이다. 다시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빌딩이며 동시에 사람들이다.

신부는 어린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정혼됨(고후11:2), 준비가 됨(계19:7). 결혼 예식 후 아내

엡5장 결혼의 의미,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엡5:30-32)

10절: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땅에 착륙하는지는 모름). (*), 15-16절, 정방형, 피라미드

이 도시에는 거할 곳이 많다(요14:1-3)

11-21절: 도시의 모습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열두 문 설명(21절), (*)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됨을 기억해야 한다.

13절: 사방에 각각 3문씩, 14절: 성벽에는 열두 기초, 열두 사도의 이름

15-16절: 도시의 크기,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약 2,240킬로미터(1440마일) 지구의 지름 12,756km, 5.7배(*), 정방형, 혹은 피라미드

17절: 성벽의 높이, 144 큐빗,

계21:17 천사는 남자이다. 성경의 모든 천사는 젊은 남자, 날개 없다,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 곧 기초들이 있는 도시로서(히11:10)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이며(시46:4) 신구약 성도들이 가기를 바란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은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같다(계21:16). 이 도시는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약 2,240킬로미터 정도 된다.

여기에는 (1) 아버지 하나님(계4:2-3; 단7:9), (2) 아들 하나님(계5:6), (3) 성령님(계1:4; 4:5; 22:17), (4)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히12:22; 계5:11), (5) 스물네 명의 장로들(계4:4), (6) 교회(히12:22-23; 계19:1, 7-8; 21:1, 9-11), (7) 구원받은 이스라엘(히11:16) 등이 거한다. 이 도시의 성벽은 열두 개의 기초석 위에 놓여 있고 거기에는 신약시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계 21:14).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약 65미터이며 벽옥으로 되어 있다(계21:17-18). 약 2,240킬로미터 높이의 도시에 약 65미터 높이의 성벽을 쌓는 것은 마치 63빌딩에 2센티미터 높이의 담을 친 것이나 같다. 이 도시에는 각 면에 세 개씩 열두 문이 있으며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각각의 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계21:12-14). 한편 새 예루살렘에는 왕좌가 있고(계 4:2, 3, 6) 생명수의 강이 있으며(계22:1; 시46:4) 생명나무가 있다(계22:2).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라진 그 생명나무는 역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은 고전15:44에 기록되어 있다. 고전15:39-41에서 바울 사도는 영에 속한 새 몸은 본성에 속한 옛 몸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보여 준다. 이런 몸은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고(빌3:21; 요일3:1-3) 살과 뼈로 되어 있으며(눅24:39-40) 중력과 시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눅24:31, 36; 요20:19). 그런데 이런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몸이며(마8:11; 눅16:23; 고전13:12) 영원한 몸이고(고후5:1) 영이 지배하는 몸이다(고전15:44, 49).

천국은 찬양하는 장소로서(사44:23; 히2:12; 계14:3; 계15:3) 신자들은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세!” 등과 같은 찬송을 부를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 즉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계속 부를 것이다(계4:11; 5:9).

한편 천국은 교제의 장소이다. 실로 하늘에서는 실제적이며 영원한 교제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눌 것이며 사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아주 친밀한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계2:17; 3:21; 7:17; 19:8). 또한 천국은 간증하는 장소이고(시107:2-3; 막5:19) 섬기는 장소이다(계22:3).

천국에는 바다와(계21:1) 눈물과 죽음과 아픔이 없고(계21:4) 해와 달이 없으며(계21:23) 불안이나 밤이 없고(계21:25) 죄가 없으며(계21:27) 병이나 저주가 없다(계7:16).

끝으로 천국에는 영광(요17:24; 롬8:18), 거룩함(계21:27), 아름다움(시50:1-2), 하나님의 빛(사 60:1-20), 하나 됨(엡1:10), 완전함(고전13:10), 기쁨(시16:11) 영원한 생명(요3:15)이 있다.

결론

고전2:9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걷는다.

계4권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생명나무
성경말씀: 계21:22-22:6

요한계시록 막바지, 지금까지 41회에 걸쳐 1-21장 강해, 1장 요한의 빛모습 유배, 23장, 요한 당시의 실제 7교회,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교회들, 4장부터 7년 환난기 전체 설명,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리고 1000년 왕국, 새 시대의 도래,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15),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 영존하는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바울 고전1-2장 하나님의 지혜 설명, 2:9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오늘 < >, 새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가?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재림과 휴거 파노라마 책을 보라.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여기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새 집 마련, 아파트, 구조, 내부 등 관심

히12:18-24, 신약과 구약 비교

구약,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두려움, 심판, 땅의 백성

신약,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늘의 백성, 이들이 살 곳: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로서(히11:10) 신구약 성도들이 가기를 바란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은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같다(계21:16).

이 도시는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약 2,240킬로미터 정도 된다. (*)

여기에는 (1) 아버지 하나님(계4:2-3; 단7:9), (2) 아들 하나님(계5:6), (3) 성령님(계1:4; 4:5; 22:17), (4)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히12:22; 계5:11), (5) 스물네 명의 장로들(계4:4), (6) 교회(히12:22-23; 계19:1, 7-8; 21:1, 9-11), (7) 구원받은 이스라엘(히11:16) 등이 거한다. 이 도시의 성벽은 열두 개의 기초석 위에 놓여 있고 거기에는 신약시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계 21:14).

이 도시에는 각 면에 세 개씩 열두 문이 있으며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각각의 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계21:12-14). (*) 한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으며(계22:1; 시46:4) 생명나무가 있다(계22:2). (*)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라진 그 생명나무는 역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22-23절 설명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몸은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고(빌3:21; 요일 3:1-3) 살과 뼈로 되어 있으며(눅24:39-40) 중력과 시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눅24:31, 36; 요20:19). 그런데 이런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몸이며(마8:11; 눅16:23; 고전 13:12) 영원한 몸이고(고후5:1) 영이 지배하는 몸이다(고전15:44, 49).

새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

천년왕국,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는다. 아담의 본성, 1000세까지 사는 일이 일어난다 (사65:20, 22). 그런데 1000세 정도가 끝이지 그 상태로 더는 살지 못한다. 늙는다.

새 땅에는 누가 살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반역자들 심판,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 옵션

1.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교회 성도들, 구약 성도들, 환난기 성도들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신다. 그러면 새 세상에는 100% 모두 영화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한다. 아기 출산 등 불가능, 인구 불변

-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들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인구 증가

성경은 둘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려 한다.

민족들은 누구인가?

21:9-23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특징 설명함

그런데 24, 26절이 문제를 일으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다. 우리는 거기의 시민이다. 도시가 우리요, 우리 것이다.

24,26을 보면 방문자로 그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명칭: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들을 다스리는 왕들, 이들이 민족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즉 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 왕들,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누구인가? 22:2의 민족들과 같은데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치유를 받는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의 차이를 보자 (*).

흠정역: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개역, NIV 등: 만국(백성들,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즉 천년왕국 이후에 남겨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유대인, 이방 민족들)

성경을 바르게 나누자

딤후2:15,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성경 신자가 될 수 없다. (*)

우리 교회 성도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킨의 책 (*)

계21장 이후는 영원의 세계를 다룬다,

실제로 22:5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끝이 난다.

22:6-21은 사람들을 향한 권고와 경계의 말이다.

교회는 계3:22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22:16에 다시 나온다. 교회가 아직 휴거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6-21절은 계시록 연대의 끝이 아니다. 이미 5절에서 연대는 끝났다.

계22:1-5는 천년왕국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계21의 연속이다.

1. 하나님과 어린양: 계21:22과 22:1은 같은 도시에 있다.

2. 민족들: 계21:24와 22:2는 같다.

3. 생명나무(계22:2)는 그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다.

4. 계21:24와 22:2의 어려움, 구원받은 이 민족들이 생명나무로 치유를 받는다.

치유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은 22:1-5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40-48장으로 간다.

그러나 계22:1의 생명수는 겔44-48의 물이 아니다. 요4:14 생명수

계22:2 생명나무

겔47:12,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강 옆에 나무들(trees), 계시록은 그것(it), 단복수

계22:2의 생명나무와 겔47:12의 나무들은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

1. 겔44: 진짜 예루살렘 성전, 레위 사람들(44:15), 하늘의 것들이 아니다.

2. 계21:22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겔47:12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다.

3. 겔47:12, 나무들의 잎사귀는 음식과 약(특히 이스라엘에게)

4. 계22:2의 잎사귀는 민족들(계21:24)을 고침(이스라엘이 아니다).

5. 부활 혹은 휴거를 받은 모든 자들(신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환난기, 천년왕국), 이런 성도들은 생명나무가 필요 없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병 고침이 필요

없다.

6. 그런데 새 시대에는 생명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22:2).

민족들, 열두 문(신32:7-9). (*)

행17:26-27, (*) 열두 지파, 열두 경계, 아마도 열두 종류의 민족
계22:14도 신비의 구절: 아마 환난기를 통과해서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육체를 입고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 생명나무 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해결책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두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창13:15, 전1:4(*)

사9:6-7 (*)

눅1:31-33 (*)

엡1:8-10, 때가 찬 경륜 (*)

사65:17-19 (*)

겔37:24-28 (*)

결론: 지구(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 영원히 거한다.

계22:2: 12민족들이, 12경계 지역으로 나누어 새 땅에 살며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누구인가?(아마 천년 왕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계22:3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의 경우 단7:14, 18 (*)

창조의 첫 주에서 마지막 날 7일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다(창2:1-3).

즉 1000년 왕국 이후에는 영원이 온다.

계22:5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나 땅에는 필요하다(계절을 위해, 열두 달을 위해
22:2). 새 예루살렘에도 계절과 달(22:2)

이스라엘: 시89:27-37, 렬31:31-37; 33:20-22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고 통치한다(계1:6).

아마 새 땅에 사는 이스라엘과 민족들, 계속해서 인구 증가.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로 이주
우리는 한 별을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

계22:6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결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살펴보았다.

우리 새 예루살렘 거주민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고 통치한다, 천사들도 심판한다(고전6:3).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년 왕국 통과 후 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생명 연장, 우주
정복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전3:14). (*)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전12:13-14). (*)

구원받았는가?

계43 요한계시록 최종 말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아멘

성경말씀: 계22:7-21

목사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야 한다(행20:27).

성경과 신학, 믿음과 실행의 모든 부분

올해 초, 코로나로 입원, 퇴원 후 내가 전해야 할 긴급한 메시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변화, 그레이트 리셋, 예수님의 재림

14년 전 요한계시록 강해, 올해에 다시 알려야겠다는 결심, 2월 6일부터 시리즈 시작하여 오늘 43번째 마지막 강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설교를 참고 끝까지 강해에 관심을 보여 주신 성도들, 특히 새로 오신 분들, 학생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 >, 전체 요약, 하나님의 최종 경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재림과 휴거 파노라마,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책을 보라.

전체 구조와 해석 방법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관점, 해석의 방법에 따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읽고 계시록의 경우 과거주의 해석을 하지 않고 미래주의 해석을 한다. 즉 계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따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구절

계시록 1장 19절,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 (*)

계시록의 전체 개요

I. 서론(1:1-8)

II. 네가 본 것들(1:9-20):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 내용

III. 지금 있는 것들(2:1-3:22)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

IV. 이후에 있을 것들(4:1-22:5)

A. 환난기(4:1-19:21), 4-19장, 교회는 휴거되어 4-21장까지 나오지 않는다. (*)

1. 하늘의 왕좌(4장)

2. 하늘의 책과 그것의 일곱 봉인들(5장)

3. 일곱 봉인 심판(6:1-17)

4. 환난기에서 구속받은 자들(7:1-17)

144,000명의 유대인(7:1-8), 수많은 이방인(7:9-17)

5. 일곱 나팔 심판(8:1-9:21) (*), (*), (*)

6.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작은 책(10:1-11)

7. 두 증인(11:1-19), 환난기 성전, 11, 12장은 이스라엘 핍박

8. 하늘에서의 전쟁(12:1-17), 미가엘과 용

9.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거짓 대언자(13:1-18)

10.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줌(14장)

144,000명에 대하여, 영존하는 복음에 대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땅의 수확에 대하여

11. 일곱 금병 심판(15-16장)

12. 종교적 바빌론의 심판(17장), 13. 상업적 바빌론의 심판(18장)

15.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19장)

B. 천년왕국(20장), C.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21:1-22:5)

V. 결론(22:6-21)

오늘 총결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6-7, 18-19)

6절 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들이다. 왜 주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천사를 통해) 요한이 기록함(계1:1), 하나님의 사자, 요한을 도와 이해하게 함

거룩한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대언이다.

7절 이 책(계22:7,9,10,18(2회), 19, 6회), 계시록

지키라는 말, 1. 말씀대로 살아라(1:3).

2. 그러나 여기서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말이다.

주님께서는 18-19절에서 다시 이것을 강조한다.

18-19절 하나님께서는 말씀 변경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경고를 남겨 두셨다.

말씀 변경의 심판(신4:2; 잠30:6 등)

1차적으로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변경 경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 변경에 대한 경고 생명책에서 제거됨(생명나무가 아니다).

고의로 말씀을 제거하는 것: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당연히 생명책에서 그의 부분이 빠진다.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의 영혼 지옥으로, 무엇을 통해? 성경 말씀의 변경 (*)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삭제, 변경, 혹은 그것들에 더한다. (*) 두 종류의 사본 (*)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군데 수정: (1,952군데 삭제, 467군데 추가, 3,185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개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페이지에 해당함

(*)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단어가 부족하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개역성경분석 (*)

시12:6, 마24:35를 부인한다.

인본주의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었다.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원 작업 이것은 불가능하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는다(시12:6; 마24:35). (*)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보존된 성경이 이 땅에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존 약속, 연구, 킹제임스 성경의 신실함(400년 동안 무교정, 모든 성경들의 번역 대본 혹은 참조 성경, 주석, 교리 문답서, 신학교 교리,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됨. 천주교 소수 본문에서 나온 모든 현대 역본들이 공격하는 대상).

우리 교회의 책무: 2008년 사랑침례교회,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우리말로 전달해야 한다.

마4:4를 기억하고

8-9절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를 당한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두 번째 경배하려고 한다.

첫 번째(계19:9-10)

천사의 말: 하나님께 경배하라.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10절, 계시록을 봉인하지 말라. 다니엘에게는 봉인하라고 하신다(단12:4).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계시록은 드러내는 책이다. 감추는 책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읽고 지키고 복을 받아야 한다. 때가 가깝다: 그레이트 리셋, 유토피아, 코로나 통제, 인공 지능, 인간 복제, 지식의 폭발, 동성애, 이스라엘, 미국 붕괴

11절 단12:10, 거룩한 말씀에 상응하는 삶을 살라.

계시록,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마음의 변화 불가능, 이들에 대한 재차 경고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12절 성도들의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은 동일하나 보상은 다르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로이다(계20:13)

단순히 주님을 믿는 데 그치면 안 된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섬겨야 한다. 롬12:1

하늘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손놓고 살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휴거 파동

13절 또 알파와 오메가 (*), (1:8, 11; 21:6, 13)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분

14절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에 해당하는 구절, 이들을 위해 생명나무 잎이 필요하다(계22:2).

15절 여기의 개들은 사람들을 가리킨다(사56:10-11; 빌3:2). 계21:8, 27 동일한 것을 말함

16절 새벽별(사14:12의 루시퍼와 대비), 6절과 16절 비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다윗의 뿌리, 유대교적이다.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새벽별)이여! 이러면 예수님이 타각한 것이 된다.

17절 성령님과 교회가 마지막 초청을 함(사55).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55:1). 누구든지 거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심

20-21절 축복의 말씀

22장에서 내가 속히 간다 3번(7, 12, 20). 2,000년이 지났다. 왜 아직 안 오시는가?

벧후3:9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20절,

21절의 축복,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였는가?

단순히 지식의 축적, 자랑거리가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천국은 단순히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히11, 믿음 장, 아브라함(9-10, 13-16)

히12:1-2, 예수님도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사심

천국 확보했으니 마음대로 살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자, 회개 불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 이런 불량한 신학, 성도가 되면 안 된다.

벧후3:14, 자기 점점, 신자들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실행

불신자 구원

계시록 공부 가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면 20절 내가 속히 가리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21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